

2021년도

# 일본어문학회 추계학술대회

- ◆ 일시 : 2021년 12월 11일(토)
- ◆ 장소 :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 ◆ 주최 : 일본어문학회
- ◆ 주관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글로벌 동아시아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
- ◆ 후원 : 영남대학교

## ◆◆ 세부일정 ◆◆

- ◎ 2021년 12월 11일(토) 분과별 학술발표회 및 차세대 라운딩 테이블
  - 12:30 - 13:30 접수 및 등록(인문관 3층)
  - 13:30 - 16:40 분과별 학술발표회(인문관 304호~307호)
  - 15:10 - 16:40 차세대 라운딩 테이블(인문관 308호)
  - 13:30 - 16:40 포스터 세션(인문관 3층)



일본어문학회

The Socie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ology

<https://trijapan.com>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안녕하다는 말이 절실해지는 시기인 듯합니다. 2년여 간의 힘든 싸움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코비드 상황을 보며 다시금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겸손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는 작은 희망들을 통해 인문학이 품고 있는 역동성을 믿어봅니다.

저희 일본어문학회에서는 이러한 희망과 염려 속에서도 지난 10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발표에서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등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2021학년도 겨울을 맞아 정기학술대회를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환경 속 일본어문학 연구가 마주한 난제들과 하루하루 악전고투 중이신 연구자들께서 동참하셔서 새로운 학술의 지향점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회원 및 연구자를 모시고 4개 분과 5개 발표장에서 각각의 의미 있는 발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히 마련된 라운딩 테이블을 통해 우리는 ‘차세대 연구자들의 일상’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본어문학 연구를 살펴보면 각각 학문적 영역에서 한정된 울타리를 구축한 채 사변적인 노력을 거듭해왔음을 느낍니다. 때문에 연구의 주체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일상에서 일본어문학관련 연구자로서의 삶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구축하고, 일상 속에서 연구와 생활의 공존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결국 지속 가능한 일본어문학 연구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늘 연구와 교육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학회 구성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님과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 마무리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일본어문학회에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1일  
제15대 일본어문학회 회장 채 수 도

## 분과별 줌 접속 계정 안내

분과	줌 어드레스	패스워드	오프라인 분과장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1)	https://kangwon-ac-kr.zoom.us/j/9387952044 회의 ID: 938 795 2044	6161	304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2)	https://us02web.zoom.us/j/83220910781 회의 ID: 832 2091 0781	6161	305
일본문학	https://us02web.zoom.us/j/4039576145 회의 ID: 403 957 6145	6161	306
일본학	https://us02web.zoom.us/j/7448334016 회의 ID: 744 833 4016	6161	307
차세대 라운딩 테이블 기획발표는 발표회장 시스템 사정상 오프라인으로만 개최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08

## 차세대 라운딩 테이블 12/11(土) <인문관 308호>

좌장 : 채수도(경북대)

사회 : 조헌구(경북대)
<p><b>주제 : 생활과 연구의 앰비밸런스적 위기의식</b></p> <p>집단토론 : 김영찬(한국국학진흥원)·윤승민(동의대) 이윤정(구미대)·제갈현(계명대)</p>
시간 : 15:10-16:40

## 포스터 세션(학문후속세대) 12/11(土) <인문관 3층>

발표 시간	발표자	주 제
13:30-16:40	김동규 (경북대)	일본의 투표율은 왜 낮은가?
13:30-16:40	김소희 (경북대)	연극 <리볼버~누가 고흐를 쏘았는가? ->를 둘러싼 마음과 예술 - 예술의 역할과 일본 현대연극
13:30-16:40	김혜경 (경북대)	개인적 성향과 집단적 성향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반응을 중심으로
13:30-16:40	박훈석 (경북대)	문화 콘텐츠 산업 모델로서의 미디어 믹스(Media-Mix) - 일본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한국에서의 발전 가능성
13:30-16:40	백채린 (강원대)	일본의 개인정보 활용 동향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13:30-16:40	조우성 (경북대)	미야자와 겐지의 『빛의 맨발』 작품 분석

일본어학/교육 분과(1) 12/11(土) <인문관 304호>

좌장 : 이현우(창원대)

발표 시간	발표자	주 제
사회 : 황운(대전대)		
13:30-14:15	김영아 (원광대)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ための形容詞の類義語の分析 지정토론 : 염미란(전남대)
14:15-15:00	김선영 (경북대)	일본어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에 관한 연구 - 『日本語日常会話コーパス(CEJC)』를 분석 대상으로 - 지정토론 : 제갈현(계명대)
15:00-15:10	휴 식	

좌장 : 박종승(강릉원주대)

발표 시간	발표자	주 제
사회 : 김미정(경북대)		
15:10-15:55	천호재 (계명대)	일본어 광고인쇄물에 나타난 경어 표현 지정토론 : 김봉정(대구대)
15:55-16:40	김양선 (영남대)	일한번역의 문제점 및 대안 - 1950년대 大江健三郎의 한국어 번역본을 실례로 - 지정토론 : 권성(목포대)

일본어학/교육 분과(2) 12/11(土) <인문관 305호>

좌장 : 나공수(영남대)

발표 시간	발표자	주 제
사회 : 주인원(단국대)		
13:30-14:15	장원재 (계명대)	자순도치 한자어의 번역어와 현대어로의 변화 지정토론 : 이충규(서원대)
14:15-15:00	이운정 (구미대)	일본취업연수기관의 실태조사 및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지정토론 : 이명영(경남대)
15:00-15:10	휴 식	
사회 : 김은정(경북대)		
15:10-15:55	이순형(영남대) 손미정(경북대) 이승민(계명대)	한국과 일본의 도시에 투영된 언어문화자본 지정토론 : 이현정(금오공대)
15:55-16:40		

일본문학 분과 12/11(土) <인문관 306호>

좌장 : 신기동(강원대)

발표 시간	발표자	주 제
사회 : 박려옥(영남대)		
13:30-14:15	강운경 (경북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그 이야기의 원형 -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을 중심으로 - 지정토론 : 이은희(계명대)
14:15-15:00	김경인 (전남대)	한일 원폭문학에 나타난 ‘원폭처녀(原爆乙女)’의 비교고찰 - 大田洋子の ‘景子’ 들과 김옥숙의 『흉터의 꽃』 속 분희’를 중심으로 - 지정토론 : 유은경(주오대학 객원연구원)
15:00-15:10	휴 식	
사회 : 오수문(경북대)		
15:10-15:55	이상혁 (고려대)	전후파의 정동(1) - 훗타 요시에 『광장의 고독』과 『시간』 - 지정토론 : 길미현(우송대)

## 일본학 분과 12/11(土) <인문관 307호>

좌장 : 김경일(금오공대)

발표 시간	발표자	주 제
사회 : 김미진(울산대)		
13:30-14:15	이종협 (영남대)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에 대한 조선 측 인식(認識)의 형성과 변화 지정토론 : 손정아(경북대)
14:15-15:00	山口勝弘 (東海大学附属高等学校)	ポストコロナ時代を見据えた定住外国人の 日本語教育と生活適応の課題 - 日本語教師養成講座のカリキュラムを通じて - 지정토론 : 장유리(경북대)
15:00-15:10	휴 식	
사회 : 김미진(울산대)		
15:10-15:55		
15:55-16:40		

# 目 次

## 【일본어학/교육 분과(1)】

김영아(원광대) / 지정토론 : 염미란(전남대) .....	3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ための形容詞の類義語の分析	
김선영(경북대) / 지정토론 : 제갈현(계명대) .....	15
일본어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에 관한 연구	
- 『日本語日常会話コーパス(CEJC)』를 분석 대상으로 -	
천호재(계명대) / 지정토론 : 김봉정(대구대) .....	31
일본어 광고인쇄물에 나타난 경어 표현	
김양선(영남대) / 지정토론 : 권성(목포대) .....	44
일한번역의 문제점 및 대안	
- 1950년대 大江健三郎의 한국어 번역본을 사례로 -	

## 【일본어학/교육 분과(2)】

장원재(계명대) / 지정토론 : 이충규(서원대) .....	64
자순도치 한자어의 번역어와 현대어로의 변화	
이윤정(구미대) / 지정토론 : 이명영(경남대) .....	74
일본취업연수기관의 실태조사 및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이순형(영남대) · 손미정(경북대) · 이승민(계명대) / 지정토론 : 이현정(금오공대) .....	81
한국과 일본의 도시에 투영된 언어문화자본	

## 【일본문학 분과】

- 강운경(경북대) / 지정토론 : 이은희(계명대) ..... 89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그 이야기의 원형  
-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을 중심으로 -
- 김경인(전남대) / 지정토론 : 유은경(주오대학 객원연구원) ..... 96  
한일 원폭문학에 나타난 ‘원폭처녀(原爆乙女)’의 비교고찰  
- 大田洋子の ‘凜子’ 들과 김옥숙의 『홍터의 꽃』 속 분희’를 중심으로 -
- 이상혁(고려대) / 지정토론 : 길미현(우송대) ..... 103  
전후파의 정동(1)  
- 홋타 요시에 『광장의 고독』과 『시간』 -

## 【일본학 분과】

- 이종협(영남대) / 지정토론 : 손정아(경북대) ..... 113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에 대한 조선 측 인식(認識)의 형성과 변화
- 山口勝弘(東海大学附属高等学校) / 지정토론 : 장유리(경북대) ..... 121  
ポストコロナ時代を見据えた定住外国人の日本語教育と生活適応の課題  
- 日本語教師養成講座のカリキュラムを通じて -



# 일본어학/교육



#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ための形容詞の類義語の分析

金英児(円光大学校)

지정토론 : 염미란(전남대학교)

## 1.はじめに

韓国における日本語の形容詞の研究は、統辞的研究、形容詞の下位分類、語彙論的な立場からの韓・日両国語の形容詞の意味の対応、語構成に関する対照研究が行われており、その研究対象は主に感情形容詞であった。ここで注目すべきことは、形容詞の研究方法において、シソーラスの意味体系に当たる形容詞を対応させ、相当する分野別の語彙の量をはかり、その特徴を記述する計量的な研究が一般的であったため、意味論的な、構文論的な立場からの統合的な形容詞研究に限界があった。(金英児 2017 : 349-350)

近年、形容詞の研究は進んでおり、その中、意味論的な立場から感覚形容詞を対象にその類義語との意味・用法を実例に基づいて明らかにした上で、対応する韓国語の類義語との比較を行った研究(金2017)、属性形容詞を研究対象にして個別的な形容詞の意味・用法や類義関係を持つ形容詞を分析した研究(金2018)、コーパスを利用して形容詞の使用傾向を調査・分析した研究(玄仙令2021)などが行われ、従来の形容詞研究の対象や研究方法が多様性を持ち、広げられている。

日本語教育においては、高校日本語教科書を対象にして、い形容詞の文型の変遷を分析した研究(오현정2013)と(高校)日本語教科書の形容詞(い形容詞と・な形容詞)の活用表の変遷過程を分析し、問題点を考察した研究(장근수2018)、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作文を研究対象にして、い形容詞の使用と教師によるフィードバックの影響を分析した研究(조영남2016)、な形容詞の使用実態から誤用を分析した研究(조2018)、な形容詞の種類と使用頻度を分析し、誤用が起りやすいな形容詞との関連性を明らかにした(조2019)研究が挙げられる。このように、日本語教育研究での形容詞研究は、研究対象が(高等)日本語教科書と学生の作文に限られており、日本語の語彙教育のための類義語の形容詞の研究はあまりなされていない現状である。

したがって、本発表では、形容詞の中、日常会話でもっとも使われ、初級段階から学習される「すごい」を取り上げて、その意味・用法から程度の大きさを表す面で類義関係を持つ「ひど

い」「激しい」との意味・用法を実例に基づいて比較・分析し、共通点と相違点を明らかにしたい。用例は、朝日新聞の「聞蔵」と読売新聞の「ヨミダス」から抽出した。

## 2. 対象の概観

### 2.1 辞書的な意味

各語について、現代語を対象としたいくつかの辞書を参照する。

#### 【すごい】

『岩波国語辞典』(第六版、岩波書店、2000)《形》① ぞっとするほど恐ろしい。② (ぞっとして)おそろしくなるほどすぐれている。転じて、**程度がはなはだしい**。

『集英社国語辞典』(第二版、集英社、2000) [形] ① ぞっとするほど、恐ろしく気味が悪い。  
② **程度がはなはだしい**。③ (「すごく」の形で副詞的に)たいそう。たいへん

『明鏡国語辞典』(初版、大修館書店、2003) ① 物事の程度が甚だしく尋常でないさま。ものすごい。② 感嘆に値するほどすばらしい。③ 身震いするほど、恐ろしいさま。すさまじい。

『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 [形] 1. ぞっとするほど恐ろしい。非常に気味が悪い。2. びっくりするほど**程度がはなはだしい**。並外れている。大層な。1)

#### 【ひどい】

『岩波国語辞典』(第六版、岩波書店、2000) [形] ① 残酷だ。むごい。「一しうち」② **はげしい**。はなはだしい。>「非道」の形容詞化。

『集英社国語辞典』(第二版、集英社、2000) [形] ① 残酷だ。むごい ② 甚だしい。**激しい**。  
③ 悪い程度が大きい。>「非道」の形容詞化

『明鏡国語辞典』(初版、大修館書店、2003) ① 非情で道義にはずれるさま。残酷だ。むごい。② **程度がはなはだしい**。表現多く悪い意味で使うが、「一喜びようだった」「一く懐かしがる」のようにいい意味で使うこともある。③ ものの状態や出来などがはなはだしく悪い。

『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 [形] 《名詞「非道(ひどう)」の形容詞化》 1. 残酷である。むごい。  
2. 度を超している。**はなはだしい**。3. 程度が非常に悪い。2)

1) <https://dictionary.goo.ne.jp/word/%E5%87%84%E3%81%84/#jn-118076>

2) <https://dictionary.goo.ne.jp/word/%E6%BF%80%E3%81%97%E3%81%84/#jn-175577>

## 【はげしい】

『岩波国語辞典』(第六版、岩波書店、2000) 《形》 勢いが鋭く強い。はなはだしい・しきりに行われる。しきりに怒る。

『集英社国語辞典』(第二版、集英社、2000) 程度が甚だしい。勢いが強い。

『明鏡国語辞典』(初版、大修館書店、2003) ① 勢いがきわめて強いさま。② 感情・性質などが荒々しいさま。激情的である。③ 程度・頻度などがはなはだしい。

『デジタル大辞泉』(小学館) 1. 勢いがたいへん強い。2. 程度が度を過ぎてはなはだしい。ひどい。3. 行われる回数が驚くほど多い。非常に頻繁である。4. けわしい。3)

このように国語辞書類の説明においては、三語ともに程度の甚だしさを表すと説明されている。また、「ひどい」の説明に「はげしい」が用いられ、「はげしい」の説明に「ひどい」が挙げられているように、この三語の使用上、また、意味的な近似が窺える。

## 2.2 使用上の特徴

### 2.2.1 「すごく」と「ひどく」

まず、現代語を対象にした辞書を参照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新明解国語辞典』(第四版、三省堂、1989)

- ・すごく【凄く①】(副詞) [とても・非常に]の意の口頭語的表現。[若い世代に用いられる強調表現は「すっごく」]
- ・ひどく①(副)その程度が・常識(予想)を上回ることを表わす。

『デジタル大辞泉』

- ・すごく 副 《形容詞「すごい」の連用形から》程度がはなはだしいさま。とても。たいへん。4)

『三省堂 大辞林』

- ・すごく(副) [形容詞「すごい」の連用形から]程度がはなはだしいさま。大変に。大層。非常に。主に会話で用いられる。

『明鏡国語辞典』(初版、大修館書店、2003)

- ・ひどく 副 程度のはなはだしいさま。非常に》形容詞の「ひどい」の連用形から。

3) <https://dictionary.goo.ne.jp/word/%E6%BF%80%E3%81%97%E3%81%84/#jn-175577>

4) <https://dictionary.goo.ne.jp/word/%E5%87%84%E3%81%8F/>

そのほか、『小学館日本語新辞典』(初版、小学館、2005)の「「すごい」の項目で「すごく」の形で副詞的にも用い、強調して「すっごく」ともいう」と説明している。このように、「すごい」と「ひどい」の使用上の特徴の一つとして、口頭語的な表現で「すごく」と「ひどく」が副詞的に用いられ、辞書によって、形容詞の連用形から副詞化した形で、副詞として項目を立てている。

## 2.2.2 「すごい+用言」

「すごい」と「ひどい」の使用上の特徴として「すごい」が連用修飾に連体形を持ち、俗語、若者言葉、日常語とも言われる場合がある。

『明鏡国語辞典 第二版』：話し言葉では、「すごい」を「すごく」と同じように連用修飾に使うことがある。

『岩波国語辞典 第七版』：俗用ながら口頭語では「今朝はすごい寒い」など連体形を使うのが普通になった。

『デジタル大辞泉』：俗に連体形を副詞的に用いて「すごいおもしろい人だ」のような言い方もある。

『現代形容詞用法辞典』：「すごい」は本来形容詞であるが、最近若い人の中では⑤(「こないだ、通りですっごい大きい犬を見たわ。」)のように、他の修飾語にかかる副詞のように、活用させずに用いられる用法が増えている。

『新明解国語辞典 第四版』：(形)①恐ろしくて、ぞっとするような感じだ。②普通では考えられないような見聞きしたり、予想外のことに接したりして、よくもそんな事が行われるものだと、感心したりあきれたりする気持ちだ。[一腕前・わあ、一：一きれい[=すごくきれい、の俗な表現]]

(1) 【巨人=宮崎】左肩痛からの復帰で、出遅れが心配されたルーキーの内海哲也(東京ガス)が快調なスタート。(中略) 即戦力として期待される左腕は「すごいいい感じで投げられた。無理しない程度に上げていこうかな、と思ってる」。

(読売 1998.02.12.)

(2) 「バイオリンの次に読書が好き」と言う妃鞠さんは、チャイコフスキーの伝記を読み、「すごい苦しい人生だったけど、協奏曲はスイスのテンポで書かれているのですごい美しい感じ。生涯を知っているとより表現できる」と話す。

(朝日 2021.06.24.)

(3) 同社の商品開発担当者から「今日は、のりを巻くかどうか、ご飯を味付きか白ご飯にするか、大枠を決めましょうか」と言われ、さっそく試食を始めた。「ごはんが甘くて、すご

いおいしい!」

(朝日 2021.09.14.)

- (4) 北欧の小さい町はすごい元気です。

(朝日 2021.03.22.)

- (5) 「自分自身で点を取ったのはすごい大きなこと」とこれで気持ちが切り替わる。

(朝日 2021.04.28.)

- (6) 広瀬：そうですね。今回、桜井さんはポンコツ探偵という役柄で、「桜井さんがポンコツってどうなんだろ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ポンコツの顔がすごい上手で(笑)、ムムムっていうポンコツ顔を、リハーサルからナチュラルにされてたので、想像以上に面白い人なんだろうなって思います。もう、ポンコツの演技がおかしくて、ずっと笑ってます。

(朝日 2021.04.06.)

### 3. 「すごい」・「ひどい」・「はげしい」の共通点

#### 3.1 程度大

- (7) 聴覚過敏、進まぬ理解 乳児虐待事件、被告に症状 / 茨城県

周囲の音を大きく感じ、激しい苦痛や不快感などを感じる「聴覚過敏」=キーワード=に悩まされる人たちがいる。(中略) 県内に住む50代の会社員男性も同じ原因の聴覚過敏を抱え、職場で机の引き出しを閉める音を苦痛に感じたり、普通の会話が怒鳴り合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たりする。「ひどい時は騒音がすごい工場にいる感覚。乳児の泣き声は耳に突き刺さるように聞こえる」誰かが自分に呼びかける声などは聞き取れる一方で空調音などの騒音を打ち消す「デジタル耳せん」を使ったり、家では静かな部屋に移ったりして暮らし、現在も治療を続ける。

(朝日 2020.09.04.)

- (8) 漢方薬で抗がん剤の副作用を緩和する研究は、近年、活発に行われている。消化器症状に効果があるとされる「半夏瀉心湯(はんげしゃしんとう)」では、激しい下痢が減った、ひどい口内炎が起きる期間を縮めた、という成果が報告されている。

(読売 2020.02.26.)

## 3.2 動きを伴う程度

- (9) 詩梨ちゃんの体重はわずか約6キロ。同年代の平均の半分以下だ。遺体には激しい虐待の痕跡があった。複数のやけど痕や頭蓋骨の骨折、胃から見つかった香辛料入りの調味料――。(中略) 家庭という密室で起きる虐待事件は、発覚しづらい。どんなにひどい暴行を受けていても、親をかばおうとする子どももいる。

(読売 2019.12.10.)

- (10) 映画では「何年間も雨が降り続く」という想定で、我々が生きている間にそうなることは多分ないとは思いますが。一方で、映画が公開された2019年の台風19号では、東日本を中心に1000人を超す死者・行方不明者が出る豪雨となりました。短期的にすごい大雨になることは十分に考えられます。

(朝日 2021.04.04.)

## 4. 三語の相違点

### 4.1 「ひどい」の論理性

- (11) まるでユーチューバーだが、実態は、「マネジャーや旦那が勝手に動画を撮り、息子が編集し、いつのまにかアップされている」のだとか。「メイク動画のひどいサムネイル画像を選んだのも息子。悪意を感じますね(笑)。みんな私をおもちゃにして遊んでるんだから」。

(朝日 2021.06.04.)

- (12) 山藤：僕の主観でいくと、今年の惨状、このひどい目に遭っている日本で開催するのはぜいたくかな。

(朝日 2020.12.25.)

- (13) 新型コロナウイルス蔓延(まんえん)対策として導入された大学のオンライン授業は、一方的でひどいという意見もあるが、じつはこれは形式の問題ではないとわたしは考えている。学生たちは現在世界で起きているさまざまな問題を、程度の差はあれ、自分の将来にかかわるものと感じ、疑問を抱き誤解し悩み、不安に思っている。こうした気持ちに応える新しい教養教育の必要が、いまつよく感じられる。教え込むのではなく、考え合う場があるのだ。授業のコメントに可能なかぎり反応を返し、たとえ素朴なものでも学生が互いに考えを交換する、相互フィードバックが成立したオンラインクラスでは、新鮮な発見や共感の表明がむしろ増えた。

(朝日 2021.09.08.)

## 4.2 「はげしい」の動きの内状した動作性

- (14) 高校卒業後、小田さんの店で働きながら通信制の美容学校で学び、3年で美容師免許を取得した。小田さん率いるチームの一員としてパリコレに参加する機会にも恵まれた。人の入れ替わりが激しい業種だが、食らいついて12年間働いた。

(朝日 2021.02.12.)

- (15) 東日本大震災がさらに絆を深めた。「今日は、斉昭の誕生日ですね」と事務所で準備をしていた時、激しい揺れが襲った。柱だけを残して崩れた壁もあった。

(朝日 2021.03.07.)

- (16) この秋、スリランカの話をかれらにしようと思う。その長い歴史、複数の言語と文学、激しい内紛の後にも山積する問題に向き合いつづける人々のことを。

(朝日 2021.09.08.)

## 4.3 「すごい」の恐ろしさ・驚き

- (17) 馬乗りになり、女性に包丁を突きつける男に蹴りかかる——。こんな勇敢な行動で、殺人未遂事件の容疑者の逮捕に貢献したとして、千葉市若葉区の介護ヘルパーの山口詔子さん(63)に県公安委員会から感謝状が贈られた。(中略) 中村弘・前署長は「刑事たちも『すごい勇敢だ』と驚くくらい勇敢な行動で被害者の命を救ってくれた」と感謝した。山口さんは「一瞬ちゅうちょしたが、助けないといけないと思った。男が逮捕されるまで手が震えていた」と当時の緊迫した状況を振り返っていた。

(朝日2021年03月09日)

- (18) タレントの研ナオコさん(67)が2月に自身のYouTubeチャンネルで公開したメイク動画が大きな話題を呼んだ(96ページの写真)。完全なるすっぴんからゴージャスフェイスに変身する過程に、「ギャップがすごい」「美意識が素晴らしい」など称賛のコメントが相次ぎ、再生数は400万回を超えた。

(朝日2021年06月04日)

- (19) 真子内親王と小室圭さんの結婚問題がこれほど大きな話題となるとは。/当初は小室さんの母親の元婚約者に対して、訝しく見る向きもあったようだが、いまや小室バッシングばかりが目立つ状況だ。コロナ疲れの格好のはけ口となっている感も否めないものの、義父になるはずの人から「(一連の騒動に)納得いく説明を」と求められた答えがA4用紙計28枚、4万字。長さもすごいが、概要をつけるというビジネスライクさも不思議だ。

(朝日2021年04月30日)

## 4.4 動作性と状態性

### ■ 「激しい」の動作性

(20) 関西の民放各局が激しい視聴率争いを繰り広げる平日夕方の報道情報番組が、相次ぎ放送開始時間を前倒ししている。

(朝日 2021.08.23.)

(21) 明豊(大分)の幸(ゆき)主将は、雨天順延にも「初戦に向けてやることは変わらない。しっかり練習ができた」と冷静だった。冬の間、チーム内で激しいレギュラー争いをしてきたという自信がある。

(朝日 2021.03.22.)

### ■ 「はげしい」動作性・「ひどい」の状態性

(22) 大阪大学教授で社会学者の山本(やまもと)ベバリーアンさん(60)は、8年前に遺伝性血管性浮腫(HAE)と診断された。突然、顔や手足、おなかなどがはれて、激しい痛みで襲われる病气だ。診断までの40年、12歳から原因不明の症状とつきあってきた。(中略)この症状はいつ始まるかわからない。ある時は30時間、吐き続けた。いつもより痛みがひどいので、病院を受診すると、救急外来の医師からこう告げられた。

(朝日 2020.10.05.)

### ■ 「すごい」の状態性・「激しい」のかなりの変化・差によるダイナミックな関係から現れる動作性

(23) 映画では「何年間も雨が降り続く」という想定で、我々が生きている間にそうなることは多分ないとは思いますが。一方で、映画が公開された2019年の台風19号では、東日本を中心に100人を超す死者・行方不明者が出る豪雨となりました。短期的にすごい大雨になることは十分に考えられます。約40年間のアメダスのデータを使って、「非常に激しい雨」と「猛烈な雨」(1時間に50ミリ以上)の発生回数を見ると、最近10年の平均は、統計開始10年間(1976~85年)の平均の約1.5倍に増えています。

(朝日 2021.04.04.)

## 4.5 評価性

### ■ 「すごい」プラス

(24) この格闘技との出会いは小学1年の時。既に十数年の競技歴があった父の利彦さん(41)に連れられ、競技の普及に努める「ゲトカポエイラ日本支部」(金沢市)の体験教室に参加

した。同年代の子たちがクルクル楽しそうに回る光景に心を奪われ、「自分もあんな風  
にすごい技をしてみたい」と決意した。

(朝日 2021.03.08.)

#### ■「すごい」マイナス

(25) 最近、相手のミスなのに振りまわされて、自分の都合ばかり言ってくる方がいて、それ  
を指摘したところ、すごい剣幕で怒られました。

(朝日 2020.11.07.)

(26) 県内では8月21日、宿泊療養施設で受け入れきれない感染者の自宅療養が始まった。県  
の施設を統括する県医療・検査体制対策室の加藤一郎室長は「自宅療養はリスクが高  
く、最後のとりでになろうと(県全体でベッド数を)増やしてきた。自宅療養が始まった  
とき、こんなにあっさり崩れてしまったと、すごい敗北感があった」と振り返る。

(朝日 2021.09.14.)

#### ■「ひどい」マイナス

(27) ひどい言葉を投げかけられてもそのまま受け取らず、裏にある意味を考えろと言いました。

(朝日 2021.03.20.)

(28) ひどい食生活のためか便秘がひどくなりました。結局私が、便を取り出す「摘便」をする  
羽目に。そのときも「痛い!」「やめろ!」と大騒ぎでした。年老いた母による介護も限界に  
達していました。私は父に「死んでくれ!」と泣きながら何度言ったことか……。地獄の  
ような毎日でした。

(朝日 2021.04.03.)

#### ■「激しい」ニュートラル

(29) ■6481人が拘束(見出し)/国軍による拷問について、国際人権団体ヒューマン・ライツ・  
ウォッチは6月22日の報告書で「拘束された市民の多くが拷問や日常的な暴力にさらされ  
ている」と非難した。5月に拘束された17歳の少年は、軍の施設で目隠しをされ、最初の  
4日間、尋問の際にセメントが詰められた竹の棒で何度も殴られ、食事や水も与えられ  
なかったなどと証言したという。拘束中に死亡する事案も相次いでおり、国連人権高等  
弁務官事務所は3月、「拷問を示唆する激しい身体的虐待の証拠が犠牲者の遺体に残され  
ていた」と指摘していた。

(朝日 2021.06.04.)

#### ■ ひどい・マイナス 激しい・ニュートラル

(30) 未指定文化財を救え 豪雨被害で激しい傷み 廃棄防止へ県対応急ぐ (見出し) (前略)

県は今回もリストを基に所有者に連絡を取り、約60件の保護を計画している。19年4月の改正文化財保護法の施行で、文化庁は未指定を含めた文化財を「地域社会総がかり」で保存、活用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が、今回の豪雨では、浸水で泥水をかぶり、傷みがひどい文化財が多いとみられ、時間が経過するほど処分されるリスクが高まる。

(読売 2020.08.07.)

#### 4.6 文体面—「すごい」・「ひどい」の口語的

- (31) 「戦争ほどひどいことはない。平和を長く守ってほしい」/ペリリュー島で多くの戦友を失い、激しい戦いを生き抜いた永井さん。そのまなざしは、夏に取材した時よりいっそう鋭さが増したように感じてならなかった。

(読売 2018.12.14)

- (32) 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監督土本典昭(1928~2008)の水俣シリーズ第1作「水俣—患者さんとその世界〈完全版〉」と、患者らと企業の交渉を取材した第2作「水俣—揆—一生を問う人びと」を、名古屋シネマテーク(名古屋市千種区)が25日から上映する(中略)「水俣の入り江は潮の干満で毎日2回、すごい勢いで洗われる。この海は死んでなどいない。必ず回復すると思った」。

(読売 2021.09.25.)

- (33) 飛騨川が氾濫するなど、記録的な豪雨から初の週末となった岐阜県下呂市では11日、多くのボランティアが被災地入りして復旧作業にあたった。しかし、再び激しい雨となり、気象庁などはこの日午前、下呂市に土砂災害警戒情報を発表。12日朝にかけて激しい雨が續くとされることから、避難所に身を寄せる住民らは不安な一日を過ごした。(中略) 8日夕から家族4人で近くの中学校体育館に避難している下呂市小坂町長瀬、主婦大林菜美さんは「早く帰宅したいが、いつ、またひどい雨が降るかわからない。じっとしているしかない」と不安そうだった。

(読売 2020.07.12)

#### 4.7 形容詞の副詞的な用法—「ひどい」

- (34) (前略)その後も里父は何回も加害を繰り返した。少女は幼いころから児童養護施設で生活し、小学4年のときに里親宅に移った。帰る場所はなく「口外したり抵抗したりすればよりひどいことをされると思った」と振り返る。

(朝日 2021.05.13.)

(35) 人間、百歳まで生きることは、なかなか大変だと思い知った。生まれつき病弱体質の上、異常な偏食だったので、親も長命は希(のぞ)んでいなかったようだ。短命に生まれついたので哀れがり、わがままをつい許してしまうので、子の偏食は益々(ますます)ひどくなり、煮豆しか食べない子になってしまった。

(朝日 2021.05.13.)

(36) 戦時中は物が不足していた。主食は味がなく、水っぽいサツマイモ。おかずは干した大根。空襲後はさらにひどくなった。

(朝日 2021.08.17.)

(37) 息子の慎吾が腰に違和感を覚えたのは小学4年生のときだった。最初は近所の接骨院や整形外科に足を運んだが、明確な理由がつかめなかったという。だんだん腰の痛みがひどくなり、「ベッドに寝ることができず、食卓のいすに腰かけて、頭を食卓に寝かせて寝ている時期もありました」。

(朝日 2021.08.23.)

(38) 過去の差別が、それどころか現在の不平等でさえも、政府のあからさまな人種的優遇政策を正当化しようという考えは、自由主義的な価値に対する侮辱であり、そうした慣行が広まれば広まるほど、その侮辱は一層ひどくなるだろう。

(朝日 2021.05.21.)

## 5. おわりに

### 参考文献(紙面の関係上の一部のみ)

金英児(2017)「日韓両国語の聴覚形容詞の研究：類義語における語彙教育の立場から」『동북아 문화연구』52,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349-365.

\_\_\_\_\_ (2018)「類義語「いそがしい、せわしい、あわただしい」の意味・用法」『일본문화학보』79, 한국일본문화학회, pp261 - 278.

오현정(2013)「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문형변천 - 이형용사 활용형을 중심으로 -」『일본어학 연구』38, 한국일본어학회, pp.105-119.

장근수(2018)「일본어 형용사 활용표의 변천 과정에 관한 고찰-고등학교 일본어 I 교과서를 대상으로」『일본어교육연구』45, 한국일어교육학회, pp.129-143.

- 조영남(2016) 「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イ形容詞」の使用と教師によるフィードバックの影響-4ヶ月間の初級作文資料をデータとして-」『日本語文学』69, 韓国日本語文学会, pp.89-106.
- \_\_\_\_\_ (2018) 「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나형용사’의 사용양상-4개월간의 초급작문을 자료로 하여-」 『日本語文学』79, 韓国日本語文学会, pp.141-159.
- \_\_\_\_\_ (2019) 「초급 일본어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나형용사의 발달과정 - 나형용사의 종류 및 연체형을 중심으로 -」 『日本語教育』90,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63-76.

# 일본어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에 관한 연구

- 『日本語日常会話コーパス(CEJC)』를 분석 대상으로 -

김선영(경북대학교)

지정토론 : 제갈현(계명대학교)

## 1. 서론

한국어와 일본어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아 습득하기 쉬운 항목도 있지만 한국어에는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하나의 문법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일본어에서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형식으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본어 학습 중·상급 레벨이 되어도 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면서 단순한 의사전달 뿐만 아니라 자연스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구분이 필요한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즉 JFL(Japanese Foreign Language)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추량표현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제안의 일환으로 일본인모어화자의 이들 추량표현의 사용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는 회화체에서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日本語日常会話コーパス(CEJC)』<sup>1)</sup>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어모어화자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표현 중 어떤 형식과 어떤 의미용법이 주로 사용되는지, 각 형식의 접속품사 및 위치 등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일본어 교육시 학습자가 습득하여 사용할 기회가 많은 항목부터 도입하는 등 습득순서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国立国語研究所コーパスセンター <https://www2.ninjal.ac.jp/conversation/cejc.html>(閲覧日:2021.03.25)

## 2. 선행연구

일본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추량표현의 선행연구로는 飯干和也(2011), 崔延朱(2013b) 趙佳熙(2015)를 들 수 있다. 회화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崔延朱(2013b), 趙佳熙(2015)를 들 수 있다. 崔延朱(2013b)는 일본어학습자와 일본어모어화자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면서 학습자의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습득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일본어모어화자의 분석데이터로는 『BTSによる多言語話し言葉コーパス日本語会話』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데이터는 피험자 총 78명 중 58명이 여성이며 주로 10대~20대로 한정되어 있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미용법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趙佳熙(2015)는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신문 등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본어모어화자의 「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출현양상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회화체, 문장체의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의미용법, 형식요소까지 고찰한데 의의가 있으나 대표적인 추량표현인 「そうだ」이 고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前接하는 품사까지는 고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연발화코퍼스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형식별, 의미용법별, 형식요소(前接하는 품사, 나타나는 위치 등)<sup>2)</sup>를 중심으로 분석,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용양상을 고찰하여 회화체에서의 일본어모어화자의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전반적인 사용양상을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 3. 연구범위 및 방법

### 3.1 연구범위

仁田義雄(2009:132)에 의하면 추량이란 명제내용인 사태의 성립·존재를 불확실함을 가지는 것으로 상상·사고나 추론 속에 인식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량형식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국어 해석이 유사하며 특인 한국인일본어학습자에게 습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 이상의 네 가지 형식으로 나타내는 표현 중 전문의 「そうだ」과 접미사 「らしい」은 본 고찰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단 「ようだ」「みたいだ」의 용법으로 분류되는 비유나 예시의

---

2) 崔延朱(2013b:348)에 의하면, 학습자의 문법습득에는 ‘형식(표층)요소’, ‘의미(내용)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가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다고 기술한 바와 같이 문법 습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를 함께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의미용법과 형식요소에 따른 분류(前接하는 품사, 나타나는 위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용례는 추량표현과 한국어 대응이 유사하므로 고찰범위에 넣고자 한다.

###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회화체에서의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日本語日常会話コーパス(CEJC)』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 코퍼스는 다양한 장면에서 일상회화를 균형 있게 수록한 코퍼스로 일상장면에서 당사자들 자신의 동기나 목적에 의해 자연스럽게 생긴 회화를 대상으로 한다. 20대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과 남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 20명의 대화를 데이터화<sup>3)</sup>하고 있어 자연발화 데이터로서 추량표현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데이터를 대상으로 연구범위에 포함되는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용례를 추출한다.

둘째, 이들 용례를 각 형식별, 의미용법별로 분류, 그 사용양상을 고찰한다.

셋째, 각 형식의 前接품사와 추량표현이 문장에서 어느 위치(술어, 비술어)에 오는지를 고찰한다.

넷째, 각 형식별 성별에 따른 사용양상을 고찰한다.

다섯째, 각 형식별 연령에 따른 사용양상을 고찰한다.

## 4. 고찰

### 4.1 각 형식별 사용양상

먼저 추량표현 각 형식의 사용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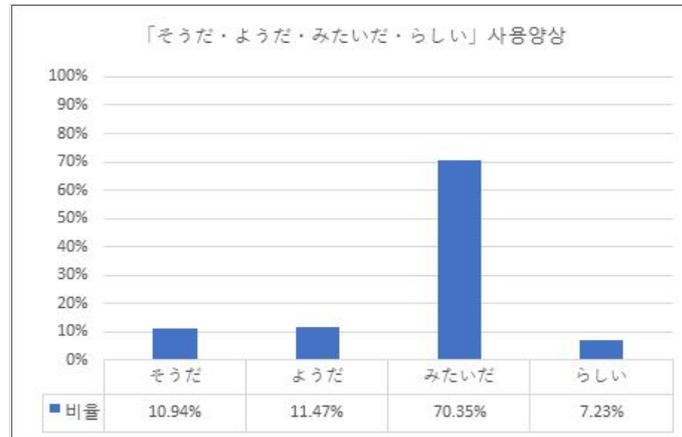
〈표 1〉 추량표현 전체의 각 형식별 출현빈도수

	そうだ	ようだ	みたいだ	らしい	계
빈도수	292	306	1,877	193	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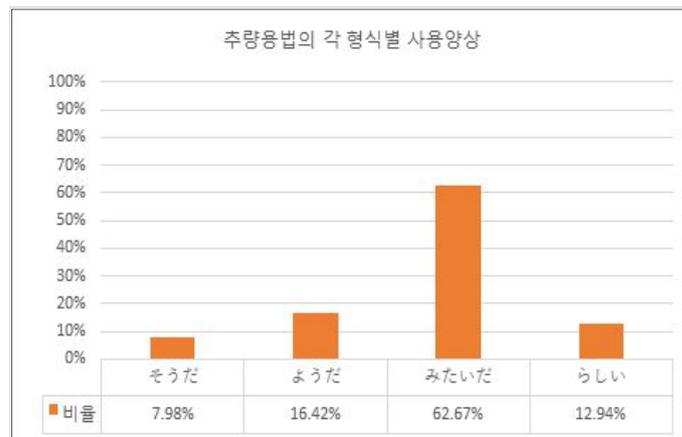
3) 小磯花絵外9人(2019: 21-26)에 의하면, 협력자 20명 이외 모니터 공개관 대상인 된 116개의 수록 섹션에 포함된 話者は 전체(述べ) 392명, 개별(異なり) 237명이다.

〈표 2〉 추량용법의 각 형식별 출현 빈도수

추량용법	そうだ	ようだ	みたいだ	らしい	계
빈도수	119	245	935	193	1,492



〈그림 1〉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



〈그림 2〉 추량용법의 각 형식별 사용양상

먼저 〈표 1〉〈그림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조사 결과 전체 2,668개의 용례 중 「みたいだ」이 1,877개의 용례로 70.35%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ようだ」「そうだ」「らしい」 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데이터가 회화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みたいだ」의 사용비율이 높아, 종래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그림 2〉는 「そうだ」의 양태용법과 「ようだ」「みたいだ」의 비유, 예시용법을 제외한 각 형식의 추량용법만을 나타낸 것이다. 추량용법 전체 1,492용례 중 「みたいだ」이 935개의 용례로 62.67%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ようだ」「らしい」「そうだ」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어 추량용법에서도 「みたいだ」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회화체에서는 「みたいだ」의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추량표현을 학습시킬 때 주로 「ようだ」의 회화체 정도로 교재에서는 언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추량표현의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도입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4.2 의미용법별 사용양상

### 4.2.1 의미용법 분류

의미용법은 김선영(2017:24-27)에 따르며, 각 형식의 의미용법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そうだ」의 용법은 「양태」, 「추량1」, 「추량2」용법으로 분류한다. 먼저 「양태」용법은 주로 형용사에 접속하여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용법, 「추량1」용법은 동작동사에 접속하여 곧 일어날 것 같은 징조를 나타내는 용법, 「추량2」용법은 주로 가능동사나 비의지동사에 접속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법을 말한다.

- (1) うーん綺麗なつゆだけじゃなくてなんか剥がれたようなものが出てきそうだけど、どろどろしたうんうんあー確かにあー乾物のようなそゆうの  
ないよ

(會話ID:K004\_012-女性、50-54歲) 「추량1」용법

- (2) でもなんかもう結婚したらなんでもよくなりそうだよねってかでもなんかうちの結構あかりはキャリアウーマンになるイメージが(생략)

(會話ID:K003\_005-女性、20-24歲) 「추량2」용법

- (3) うんいやまあほんとでもすごい寒そうだよね雪は半端なかったよ八甲田山かいもう帰れないと思ったもん(생략)

(會話ID:T015\_005-男性、50-54歲) 「양태」용법

둘째, 「ようだ」의 용법은 「추량」, 「비유」, 「예시」용법으로 분류한다. 「ようだ」의 「추량」용법은 화자의 경험과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용법을 말한다. 「비유」용법은 어떤 상태나 모양을 무언가에 비유하는 용법을, 「예시」용법은 예를 들거나 누군가의 앞서 말한 것을 들 때 사용되는 용법이다.

- (4) ほら前写真見たらすごい穏やかそうな人だったからさあーそうねなん結婚とかしそうな雰囲気の人だなそうなんか結婚とかしたいような感じの人でなんかあ結婚とかシオチ落ちていちゃいたいみたいな感じの人だからさ(생략)

(會話ID:T008\_014b-女性、30-34歲) 「추량」용법

- (5) 熱中症になっててあ起きた時にそあー寝てる間にうーんあっ寝てる間になるんだそう

そんなふうになるんだね老人のように寝てる間に熱中症水飲まなかったからだよ(생략)

(会話ID:C002\_015-女性、35-39歳)「비유」용법

- (6) 太った人ってそれやっぱそれができなくてさ例えばさそのなんだろう今週一週間は頑張ってダイエットするとかっつって一週間なんかさほとんど飲まず食わずのようなその生活するんだけど(생략)

(会話ID:T008\_022a-男性、45-49歳)「예시」용법

셋째, 庵功雄外3人(2000:129), 砂川有里子外7人(1998:560-563) 등에 의하면 「みたいだ」은 주로 회화체에서 사용되며 문장체에서 사용되더라도 격의 없는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고 문장체에서는 주로 「ようだ」이 사용되며, 「ようだ」과 같이 추량, 비유, 예시 등의 의미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みたいだ」의 용법은 「ようだ」과 마찬가지로 「추량」「비유」「예시」용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7) コンピューターずっとアエやってる人のほうがもっといっぱいやるよねあなんここうなんじゃなくてねこの人差し指がいけないみたいです。ここだけをずっとこうやって(생략)

(会話ID:K002\_016-女性、35-39歳)「추량」용법

- (8) 終わりが見えちゃうんだよねああそうなんだうーんで始まっちゃうと悲しくなっちゃうのあーあーなんかそのうち終わっちゃうんだなみたいなそうなんやね始まっちゃうたなみたいな賞味期限スタートみたいなそんなスタートなんだ(생략)

(会話ID:T010\_013-男性、20-24歳)「비유」용법

- (9) 企業も大変だよねうーんまあね働くつつうのはでも難しいねその非常勤の立場の難しさみたいなのはさっきちょっとゆってたんだよね(생략)

(会話ID:T004\_002-女性、45-49歳)「예시」용법

넷째, 「らしい」용법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상황의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량」용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10) 自由に動けるふーんフィンランド語は全然まったくわからないけどねそうだねそうなんか空港は日本語がいっぱいあるらしいんだけどイエーイなんか最近すごい増えたんだって(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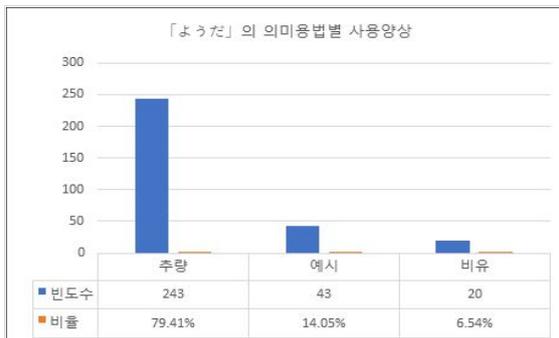
(会話ID:K001\_019-女性、35-39歳)「추량」용법

#### 4.2.2 의미용법에 따른 사용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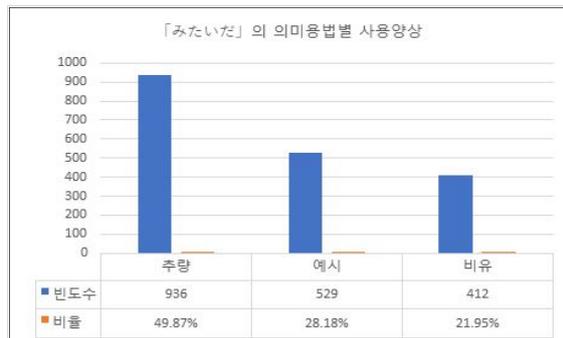
「そうだ」은 전체 292개의 용례 중 「양태」용법이 173개로 전체 59.25%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추량2」용법이 79개 용례로 27.05%, 「추량1」이 40개의 용례로 13.70%의 사용비율을 나타내었다. 추량표현 「そうだ」은 교육시 「양태」용법부터 도입을 하는 것이 학습하여 사용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そうだ」의 의미용법별 사용양상



〈그림 4〉 「ようだ」의 의미용법별 사용양상



〈그림 5〉 「みたいだ」의 의미용법별 사용양상

「ようだ」은 전체 306개의 용례 중 「추량」용법이 243개, 78.41%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예시」용법이 43개로 14.95%, 「비유」용법이 20개로 6.54%의 사용양상을 보였다. 즉 회화체에서 「ようだ」은 「추량」용법의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みたいだ」은 전체 1,877개의 용례 중 「추량」용법이 936개, 49.87%로 과반수이상 사용되었으며 「비유」용법이 529개로 28.18%, 「예시」용법이 412개로 21.95%를 나타내어 「ようだ」에 비해 「예시」「비유」용법의 사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らしい」은 전체 193개의 용례 중 모두 「추량」용법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회화체에서는 「そうだ」은 주로 「양태」용법의 사용비율이 높으며 「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은 「추량」용법의 사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3 前接 및 위치에 따른 사용양상

崔延朱(2013b:348)에 의하면, 의미용법이 유사한 항목의 습득에 있어서 학습자는 각각의 문법형식의 사용구분을 위해 어떤 형식적인 기준(접속하는 품사 또는 특정의 표현에 의한 문법항목의 선택)을 사용하고 있으며 「そっだ・ようだ・らしい・みたいだ」의 사용구분에도 일본어모어화자와는 다른 학습자 독자의 규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금후 학습자의 습득양상과 비교하기 위해 일본어모어화자의 추량표현 前接 품사 및 사용위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 4.3.1 前接 품사에 따른 사용양상

##### 4.3.1.1 「そっだ」

〈표 3〉 「そっだ」의 「추량1」용법의 前接품사

そっだ추량1	동작동사	동사부정	계
빈도수	39	1	40
비율	97.50%	2.50%	100.00%

먼저 「そっだ」의 「추량1」용법은 의미용법의 분류에서도 전술하였듯이 주로 동작동사에 접속하여 곧 일어날 것 같은 징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40개 용례 모두 동작동사에 접속되었으며 그 중 1개의 용법만 동사의 부정형에 접속되고 있다. 「추량1」용법은 주로 동사, 그 중에서도 동작동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そっだ」의 「추량2」용법의 前接품사

そっだ추량2	가능동사	무의지동사	동사부정	계
빈도수	17	60	2	79
비율	21.52%	75.95%	2.53%	100.00%

「そっだ」의 「추량2」용법도 전체 79개 용례 모두 동사에 접속되고 있다. 「추량2」용법과는 달리 무의지동사, 가능동사, 동사의 부정형에 접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의지동사에 접속되는 용례가 60개로 75.95%를 나타내고 있다. 즉 「추량2」용법은 주로 무의지동사와 가능동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そうだ」의 「양태」용법의 前接품사

そうだ양태	이형용사	나형용사	명사부정	동사부정	접미어	계
빈도수	130	38	1	3	1	173
비율	75.14%	21.97%	0.58%	1.73%	0.58%	100.00%

「そうだ」의 「양태」용법은 전체 173개의 용례 중 이형용사에 접속되는 경우가 130개, 75.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나형용사가 38개, 21.97%로 「양태」용법은 주로 형용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1.2 「ようだ」

〈표 6〉 「ようだ」의 「추량」용법의 前接품사

ようだ추량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계
빈도수	26	27	175	14	1	243
비율	10.70%	11.11%	72.02%	5.76%	0.41%	100.00%

「ようだ」의 「추량」용법은 전체 243개의 용례 중 동사에 접속되는 경우가 175개, 72.02%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이어 나형용사, 이형용사가 각각 27개, 26개로 비슷한 사용비율을 보였다. 그 이외 명사, 부사가 접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부사가 접속되는 경우는 회화체이기 때문에 도치문인 경우에 볼 수 있는 예문이다. 즉 「ようだ」의 「추량」용법은 주로 동사에 접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ようだ」의 「예시」용법의 前接품사

ようだ예시	나형용사	동사	명사	감탄사	계
빈도수	5	30	7	1	43
비율	11.63%	69.77%	16.28%	2.33%	100.00%

「ようだ」의 「예시」용법은 전체 43개의 용례 중 30개가 동사에 접속되어 69.77%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이어 명사, 나형용사, 감탄사 순으로 접속되고 있다. 특히 「예시」용법에 동사의 접속이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상대가 이야기하거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인용과 같은 표현들이 많아서 동사에 접속된 용례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ようだ」의 「예시」용법은 동사와 명사에 주로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ようだ」의 「비유」용법의 前接품사

ようだ비유	명사	계
빈도수	20	20
비율	100.00%	100.00%

「ようだ」의 「비유」용법은 전체 20개 모두 명사에 접속되어 사용되고 있다.

4.3.1.3 「みたいだ」

〈표 9〉 「みたいだ」의 「추량」용법의 前接품사

みたい다추량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감탄사	계
빈도수	106	59	543	178	32	18	936
비율	11.32%	6.30%	58.01%	19.02%	3.42%	1.92%	100.00%

「みたいだ」의 「추량」용법은 전체 936개의 용례 중 동사에 접속된 용례가 543개, 58.01%로 가장 많았다. 이는 〈표 6〉의 「ようだ」의 「추량」용법(72.02%)과 비교했을 때 동사에 접속되는 비율이 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명사에 접속되는 경우가 178개, 19.02%로 「よう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 부사, 감탄사에 접속되는 비율도 「ようだ」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みたいだ」의 「추량」용법은 주로 동사와 명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みたいだ」의 「예시」용법의 前接품사

みたい다예시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감탄사	기타	계
빈도수	37	25	214	245	5	2	1	529
비율	6.99%	4.73%	40.45%	46.31%	0.95%	0.38%	0.19%	100.00%

「みたいだ」의 「예시」용법은 전체 529개의 용례 중 명사에 접속되는 경우가 245개, 46.3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동사가 214개로 40.45%를 나타내고 있다. 「ようだ」의 「예시」용법과 비교했을 때 명사에 접속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みたいだ」의 「예시」용법은 주로 동사와 명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みたいだ」의 「비유」용법의 前接품사

みたいだ비유	명사	동사	계
빈도수	397	15	412
비율	96.36%	3.64%	100.00%

「みたいだ」의 「비유」용법은 전체 412개의 용례 중 명사가 397개, 96.36%로 접속이 가장 많았다. 「ようだ」 「비유」용법에서는 동사에 접속되는 용례를 볼 수 없었는데 「みたいだ」의 「비유」용법에서는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동사에 접속되는 용례도 있었다. 즉 「みたいだ」의 「비유」용법은 주로 명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1.4 「らし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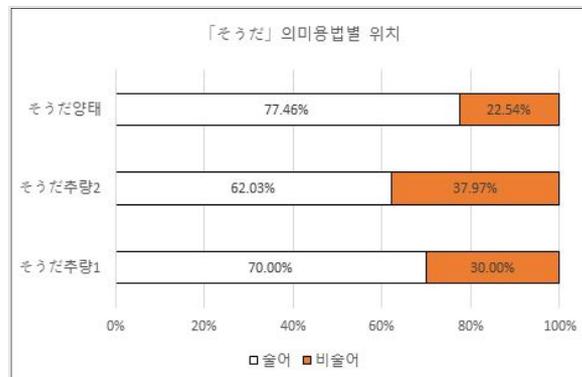
〈표 12〉 「らしい」의 「추량」용법의 前接품사

らしい추량	이형용사	나형용사	동사	명사	부사	계
빈도수	22	16	118	31	6	193
비율	11.40%	8.29%	61.14%	16.06%	3.11%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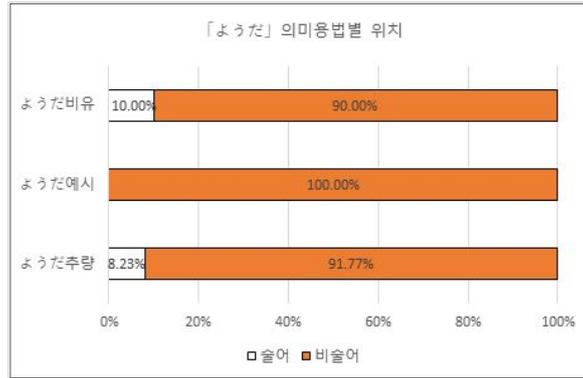
「らしい」의 「추량」용법은 전체 193개의 용례 중 동사에 접속하는 경우가 118개로 61.14%, 이어 명사가 31개로 16.06%, 이형용사가 22개로 11.40%, 나형용사가 16개로 8.29%, 부사가 6개로 3.1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らしい」의 「추량」용법은 주로 동사와 명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3.2 추량표현 위치에 따른 사용양상

다음은 추량표현의 위치 즉 술어, 비술어의 어느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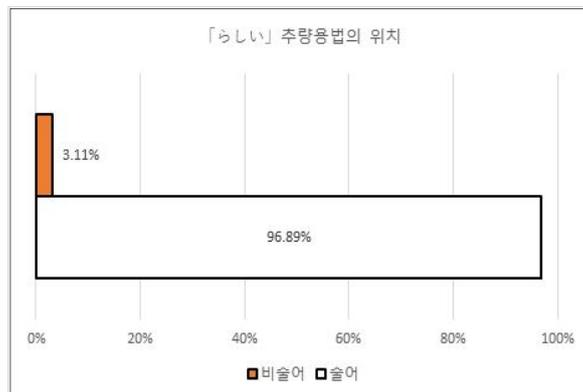
〈그림 6〉 「そうだ」의 의미용법별 나타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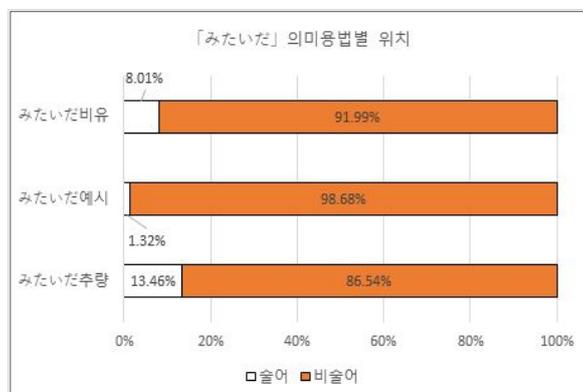
〈그림 7〉 「ようだ」의 의미용법별 나타나는 위치

먼저 「そうだ」은 술어에 위치하는 경우가 비술어보다 높았으며 「양태」용법은 술어에 위치하는 경우가 77.46%, 「추량2」용법도 술어의 경우가 62.03%, 「추량2」용법도 술어의 경우가 70.00%로 비술어에 비해 2~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ようだ」의 경우, 「예시」용법은 100% 비술어로 나타났으며 「추량」 「비유」용법도 90% 이상 비술어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8〉 「みたいだ」의 의미용법별 나타나는 위치



〈그림 9〉 「らしい」의 의미용법별 나타나는 위치

「みたいだ」의 경우도 「예시」 「비유」 용법의 경우는 90% 이상 비술어로 나타났으며 「추량」 용법은 86.54%가 비술어로 나타나고 있다. 「らしい」은 96.89%가 술어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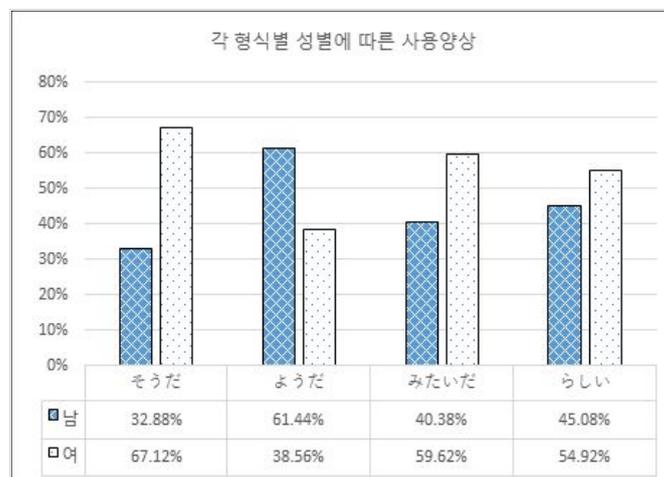
즉 의미용법에 그다지 차이 없이 「そうだ」와 「らしい」은 주로 술어로 나타나며 「ようだ」 「みたいだ」은 비술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4 성별에 따른 사용양상

다음은 성별에 따른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らしい・みたいだ」의 사용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표 13〉 각 형식별 성별에 따른 출현빈도수

	남	여	계
そうだ	96	196	292
ようだ	188	118	306
みたいだ	758	1,119	1,877
らしい	87	106	193
전체	1,129	1,539	2,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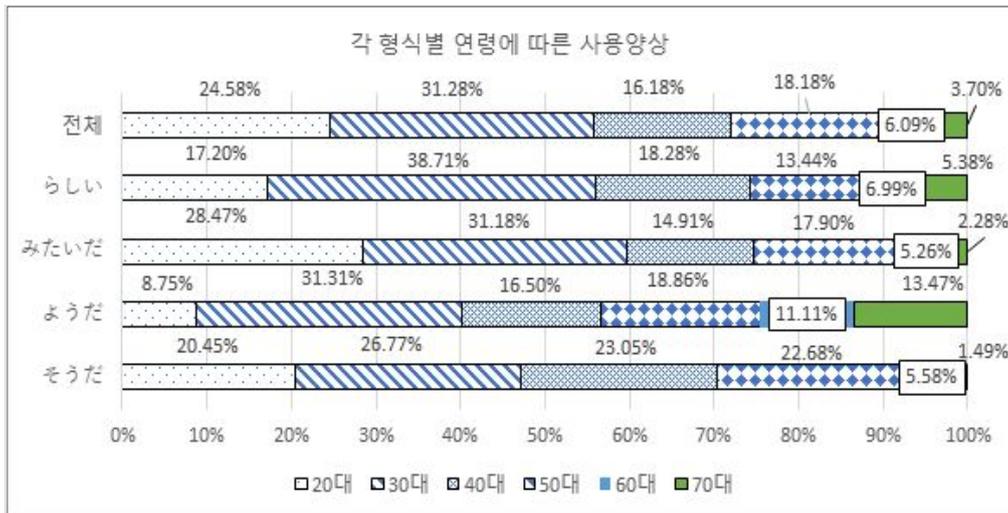
〈그림 10〉 각 형식별 성별에 따른 사용양상

추량표현의 남녀별 사용양상을 살펴보면 전체 2,668용례 중 여자가 1,539개(57.68%), 남자가 1,129개(42.32%)로 여자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각 형식별 사용양상을 살펴보면 「そうだ」은 여자가 196개(67.12%), 남자가 96개(32.88%)의 사용비율을 보여 여자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ようだ」은 남자가 188개(61.44%), 여자가 118개(38.56%)로 남자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みたいだ」은 여자가 1,119개(59.62%), 남자가 758개(40.38%)로 여자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らしい」은 여자가 106개(54.92%), 남자가 87개(45.08%)로 여자의 사용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즉 「ようだ」은 남자의 사용비율이 더 높았으며 「そうだ」은 여자가 월등히 높았으며 「みたいだ」「らしい」은 여자가 15~20%정도 더 높게 사용되었다.

#### 4.5 연령에 따른 사용양상

다음은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 각 형식별 연령에 따른 사용양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1〉 각 형식별 연령에 따른 사용양상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전체적인 사용비율을 보면, 30대가 31.28%로 가장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이어 20대가 24.58%, 40대가 16.18%, 50대가 18.18%, 60대가 6.09%, 70대가 3.70%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즉 추량표현의 사용은 20대, 30대가 40대, 50대보다 높았으며 60대, 70대에서는 10% 미만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각 형식별 사용양상을 보면, 「そうだ」은 다른 형식에 비해 연령별 차이가 그다지 없다고 할 수 있다. 30대가 26.77%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40대, 20대와도 그다지 차이가 없으며 60대, 70대에서는 10%미만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ようだ」은 30대가 31.31%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50대가 18.86%, 40대가 16.50%로 나타났다. 「ようだ」은 20대에서 가장 사용비율이 낮아 60대, 70대보다 낮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みたいだ」은 30대가 31.18%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어 20대가 28.47%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みたいだ」은 20대, 30대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훨씬 사용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らしい」은 30대가 38.71%로 가장 사용비율이 높으며 이어 40대가 18.28%, 20대가 17.20%로 비슷한 사용비율을 보였다. 60대, 70대에서는 10% 미만의 사용비율을 나타내었다.

## 5.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일본어모어화자의 회화체에서의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별 사용양상을 보면, 「みたいだ」이 70%이상의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ようだ」「そうだ」「らしい」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そうだ」은 주로 「양태」용법의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ようだ」「みたい다」「らしい」은 「추량」용법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셋째, 前接하는 품사에 따른 사용양상을 보면, 「そうだ」추량1」용법은 동작동사, 「추량2」용법은 무의지동사와 가능동사, 「양태」용법은 주로 형용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ようだ」는, 「추량」용법은 주로 동사, 「예시」용법은 동사와 명사, 「비유」용법은 명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みたい다」의 「추량」「예시」용법은 동사와 명사, 「비유」용법은 주로 명사에 접속되고 있으며 「らしい」의 「추량」용법은 주로 동사와 명사에 접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추량표현의 위치에 따른 사용양상을 보면, 의미용법에 그다지 차이 없이 「そうだ」「らしい」은 주로 술어로 나타나며, 「ようだ」「みたい다」은 비술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남녀별 사용양상을 살펴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15% 정도 추량표현의 사용비율이 높았다. 형식별로 보면 「ようだ」은 남자의 사용비율이 22%정도 높았으며, 「そうだ」은 여자가 34% 정도 높았고, 「みたい다」「らしい」도 여자가 15~20%정도 더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여섯째, 연령별 사용양상을 살펴보면, 20대, 30대가 40대, 50대 보다 이들 추량표현의 사용비율이 높았으며 60대, 70대에는 10% 미만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형식별로 보면, 「そうだ」은 다른 형식에 비해 그다지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ようだ」은 30대가 31.31%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낮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한편 「みたい다」은 20대, 30대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훨씬 사용비율이 높았다. 「らしい」은 30대가 38.71%로 가장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40대, 20대 순으로 비슷한 사용비율을 보였다.

이상 본고에서는 회화체에서의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의 사용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금후 문장체에서의 사용양상을 고찰하여 전반적인 일본어모어화자의 추량표현의 사용양상을 분석해 가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선영(2017)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추량표현 「そうだ」「ようだ」「らしい」의 습득연구」『일본어문학』제77집, 일본어문학회, pp.21-38.
- 趙佳姬(2015) 「「みたいだ・ようだ・らしい」の出現様相に関する研究－アニメーション・ドラマ・小説・新聞を用法別に分類して－」『日本文化研究』第54輯, 동아시아일본학회, pp.249-275.
- 崔延朱(2013a) 「推量・様態表現の習得に関する研究-L2学習者の「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そうだ」に着目して－」『日本語教育』第65輯, 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85-104.
- 崔延朱(2013b) 「「ようだ・みたいだ・らしい・そうだ」の習得に関する研究-JFL学習者と日本語母語話者の横断発話データの比較から－」『日本言語文化』第26輯, 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 pp.347-374.
- 飯干和也(2011) 「「(し)そうだ」「ようだ」「らしい」の習得調査－3形式による推量表現を場面別に分類して－」『日本言語文化』第19輯, 韓国日本言語文化学会, pp.317-339.
- 庵功雄外3人(2000)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129-130.
- 古磯花絵外9人(2019) 『国立国語研究所「日常会話コーパスプロジェクト報告書3」『日本語日常会話コーパス』モニター公開版コーパスの設計と特徴』大学共同利用期間法人人間文化研究機構国立国語研究所, pp.21-29.
- 砂川有里子外7人(1998) 『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pp.560-563.
- 仁田義雄(2009) 『仁田義雄日本語文法著作選第2巻・日本語のモダリティとその周辺』ひつじ書房, p.132.
- 国立国語研究所コーパスセンター <https://www2.ninjal.ac.jp/conversation/cejc.html> (閲覧日: 2021.03.25.-10.19)

# 일본어 광고인쇄물에 나타난 경어 표현

천호재(계명대학교)

지정토론 : 김봉정(대구대학교)

## 1. 본 발표의 목적

- 일본어 경어 체계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운용되는지 그 양상을 광고인쇄물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
- ① 광고인쇄물에 나타난 경어 형식(존경 표현 형식, 겸양 표현 형식, 정중 표현 형식) 그 자체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 ② 경어 형식(존경 표현 형식, 겸양 표현 형식, 정중 표현 형식)들의 의미와 사용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다.

## 2. 고찰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 2.1 경어 고찰의 필요성

- ① 경어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중점을 둔 언어 형식이다. 경어는 사용하지 않을 때 보다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을 때, 상대방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지닌다.
- ② 상대방에게 경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을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화자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들게 한다.
- ③ 경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품위를 드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 2.2 광고인쇄물을 통한 경어 고찰의 필요성

- ① 광고인쇄물은 일본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문화적 측면을 자세히 보여주며 그에 따라 일본사회 속에서 일본인들의 언어생활을 유추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즉 일본의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개인(발신자와 수신자)의 욕구, 욕구 성취를 위한 구체적 언어 행동 등에서 드러나는 경어 표현의 본질을 광고인쇄물이 매우 리얼하게 보여준다.
- ② 광고인쇄물은 전달하는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압축적이므로 실제 경어 표현 형식이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어가 사용되는 문맥적 조건을 탐구하기에 매우 유용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 ③ 광고인쇄물은 일본어 학습자들이 매우 단순하고 용이하게 경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교재의 역할을 한다.

## 2.3. 선행연구의 개관-생략

# 3. 연구의 개요 및 방법, 범위

## 3.1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대상인 광고인쇄물(65매)은 현재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사가미하라시(相模原市)에 거주하는 일본인 지인에게 요청하여 입수한 것이다. 광고인쇄물을 입수한 시기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이다. 광고인쇄물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전용휴게실, 건물 내부공사 안내, 경비원 구인, 고급과자, 고급레스토랑, 고물수거, 골반 및 자세교정 전문점, 냉동식품, 다이어트 복싱, 도시락 전문점, 독서실, 두통 치료원, 마을 자치회, 머리 염색 전문점, 모델하우스, 미용실, 바이크 주류장, 사기방지 캠페인, 사법서사 사무소, 사진관, 상해보험, 선거공약, 세탁소, 생활협동조합, 수도공사, 수영장 오픈, 스시 전문점, 안경점, 애완견 호스트, 야키니쿠 전문점, 어린이 영어회화학원, 어린이 축구교실, 온천, 요양원 스태프 모집, 육조 수리, 유치원 입학...

## 3.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전단지에 나타난 문구 중에서 경어 표현 형식의 사용 빈도와 사용 조건을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경어 표현 형식을 구성하는 각 표현 형식들, 즉 존경 표현 형식, 겸양 표현 형식, 정중 표현 형식의 출현 빈도수를 살펴볼 것이다. 그다음으로 경어 표현 형식의 의미와 사용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 3.3 연구의 범위

아래에 제시하는 예문은 모두 정의상(2019) 『New 스타일 일본어문법』 동양북스, pp.222-240에서 인용한 것임

### 〈존경 표현 형식〉

1) 명사(형용사, 수사, 부사)에 접두어나 접미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제3자)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경우

① 접두어(お나 ご)가 결합하는 경우

예) 「お国(くに)」、「お名前(なまえ)」、「お仕事(しごと)」、「ご住所(じゅうしょ)」、「ご家族(かぞく)」

② 접미어(~さん, ~さま, ~方)가 결합하는 경우

예) 「鈴木さん」、「お父さま」、「お子様」、「お客様」

③ 단어(명사) 그 자체가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

예) 「貴社」、「先生」、「部長」、「市長」、「芳名」、「高見」

2) 동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제3자)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① 접두어(お, ご) + ます형 + になる

예) 「乗る → お乗りになる」、「入学する → ご入学になる」

② 조동사 れる, られる의 결합

예) 「乗る → 乗られる」、「起きる → 起きられる」、「来る → 来られる」、「研究する → 研究される」

③ 접두어(お, ご) + ます형 + です

예) 「先生が今お待ちです」、「いつご出発ですか」、「今社長が部長をお呼びです」

④ (お, ご) + ます형 + くださる

예) 少々お待ちください。エレベーターをご利用ください。

⑤ (お, ご) + ます형 + なさる

예) 昨夜はごゆっくりお休みなさいましたか。いつご予約なさいましたか。

⑥ 동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동사로 존경을 나타내는 경우

예) 今、社長いますか→今、社長いらっしゃいますか、先生はいつ来ますか→先生はいついらっしゃいますか、出席する→出席なさる、食べる→召し上がる…

〈겸양표현 형식〉

① 겸양을 표시하는 접두어와 접미어

예) 「お願い」「ご案内」「私ども」「当社」「弊社」「小見

② (お、ご) + ます형(또는 동작성 명사) + する

예) 「ご報告します」「ご案内します」「お送りします」

③ (お、ご) + ます형(또는 동작성 명사) + もらう의 겸양형 いただく

예) 「お送りいただく」「お待ちいただく」「ご利用いただく」

④ 동사의 사역형 + ていただく

예) 「休みます→休ませていただきます」「お先に帰ります→お先に帰らせていただきます」

⑤ 동사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동사로 겸양을 나타내는 경우

예) 「部長、ただいま帰ってきました→部長、ただいま帰って参りました」「それなら私がします→それなら私がいたします」「ちょっと見ていいですか→ちょっと拝見していいですか」

〈정중 표현 형식〉

① 정중 표현

「私は学生だ→私は学生です→私は学生でございます」「嬉しいです→嬉しゅうございます」

「本を読む→本を読みます」「約束があります→約束がございます」

② 미화어 : 「花→お花」「酒→お酒」「手洗い→お手洗い」「飯→ご飯」

#### 4. 경어 표현 형식의 출현 양상

존경 표현 형식	겸양 표현 형식	정중 표현 형식	합계(%)
898개	249개	72개	1219개
73.66%	20.42%	5.90%	100%

(1) 경어 표현 형식 :

a. 重いもの、かさばるものもご自宅までお届け。

(さがみ生活クラブ、2018년)

b. 査定金額にご納得頂ければ現金にてその場でお渡しいたします。

(イノセント、2018년)

c. お風呂用メガネ! お風呂でも曇りにくく、足元が見えて安心!

(メガネのアイガン、2019년)

#### 4.1 존경 표현 형식의 출현 양상

접두사	접미사	존경어(명사)	존경형식(동사 활용)	합계(%)
692개	96개	93개	18개	898개
77.0%	10.6%	10.2%	2.0%	100%

(2) デュアプレ相模原店でのみご利用いただけます。

(サロンデュアプレ相模原店、2019년)

(3) 入居者様に対して日常生活に必要な介助、レクリエーションの企業など行っていただきます。

(ツクイ・サンシャイン町田東館、2018년)

(4) 18歳未満の方は保護者の方の名義でお申込みいただきます。

(スポーツクラブルネサンス橋本、2019년)

(5) トレーニングに参加をされた90%以上の女性から無理なく楽しくおもしろいとの感想をいただいています。

(Luminous、2018년)

##### 4.1.1 접두사가 연결된 존경어 형식

접두사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합계(%)
お	342개(89.0%)	19개(4.9%)	0개(0%)	23개(6.0%)	384개(100%)
ご	304개(98.7%)	5개(1.6%)	2개(0.6%)	1개(0.3%)	308개(100%)

- (6) お車のことはもちろん、色々なお話を聞かせてください。  
(トヨタカローラ神奈川橋本店、2019年)
- (7) まずはお気軽にご相談・ご連絡ください。  
(アサヌマコーポレーション(株)、2018年)
- (8) 相模原店限定の大変お得なクーポンをご用意致しました。  
(サロンデュアブレ相模原店、2019年)
- (9) ご不明な点やご相談等ございましたらお電話または店頭スタッフにお気軽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Dr,Driveセルフ東橋本本店、2018年)
- (10) 今ならご加入すると3,000円分プレゼント!  
(生活協同組合パルシステム、2018年)
- (11) 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アルペンクイックフィットネス 相模原、2019年)
- (12) おしゃれな空間でごゆっくりお過ごしください。  
(焼肉バルMon-Saint、2019年)

#### 4.1.2 접미사가 연결된 존경어 형식

様(さま)	さん	かた	합계(%)
89개	5개	2개	96개
92.7%	5.2%	2.0%	100%

- (13) こんな悩みの経営者様におススメ!!  
(ASU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株式会社、2018年)
- (14) ママさん歓迎!  
(ほねごり整体院小山院、2019年)
- (15) 洗淨工事を下記の日程で行いますので、皆様方の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大和ハウスリフォーム(株)相模原営業所、2018年)

#### 4.1.3 명사형 존경어

方(かた)	どなた	합계(%)
91개	2개	93개
97.8%	2.1%	100%

(16) 鎖骨よりも長い方をロング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ヘアカラー専門店 fufuミウィ橋本店、2019年)

(17) どなたでもお気軽におこしください。

(十字架福音キリスト教会、2019年)

#### 4.1.4 동사 활용과 동사형 존경어

접두사~になる	수동형	접두사+ます형 +くださる	접두사+ます형 +なさる	동사형의 존경어	합계(%)
5개	11개	1개	0개	1개	18개
27.7%	61.1%	5.5%	0%	5.5%	100%

(18) 作業中は汚水が発生しますので、バルコニーにお出にならない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大和ハウスリフォーム、2018年)

(19) 当店では、指定された口座から毎月27日に当月分月会費を引き落と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エニタイムフィットネス相模原店、2018年)

## 4.2 겸양 표현 형식

접두사	겸양어	겸양표현	합계(%)
60개	95개	94개	249개
24.0%	38.1%	37.7%	100%

(20) 着替えのメガネやコンタクトの予備にオススメ!

(メガネのアイガン イオン橋本店、2019年)

(21) 入会手続きの際にご用意頂くもの

(エニタイムフィットネス 相模原店、2018年)

(22) 例えば、遠近両用メガネでも税込15,980円よりお作りできます!

(メガネのアイガン イオン橋本店、2019年)

#### 4.2.1 겸양의 의미를 지니는 접두사

접두사	お	ご	합계(%)
갯수	54개	6개	60개
%	90%	10%	100%

(23) 施設入居のためのお手伝い

(クリーン・ベア、2019년)

(24) そんな悩めるあなたにトレファクスタイルから古着活用のご提案

(TreFacStyle 橋本店、2018년)

#### 4.2.2 겸양어

겸양어	いたす	いただく	承る	お願い申し上げます	申す	弊社	합계(%)
갯수	13개	74개	2개	2개	2개	2개	95개
%	13.6%	77.8%	2.1%	2.1%	2.1%	2.1%	100%

(25) 草刈り、枝切りなども、かたづけ致します。

(エコロジスタサービス、2018)

(26) 店舗へお持ち頂ければ、きれいに洗濯を仕上げてお渡しいたします。

(WASH&FOLD 町田相原店、2019)

(27) 買い取りや無料回収対象外の物もご相談承ります。

(株式会社イノセント、2019)

(28) 洗浄工事を下記の日程で行いますので、皆様方の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大和ハウスリフォーム(株)相模原営業所、2018)

(29) こんにちは！トヨタカローラ神奈川橋本店の井上晴二と申します。

(トヨタカローラ神奈川橋本店、2019)

(30) クレジットカードは弊社インターネットからのご注文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Caféレストランガスト、2018)

#### 4.2.3 겸양표현

겸양어	お(ご)~する	お(ご)~いたす	~させていただく	~ておる	합계(%)
갯수	36개	19개	16개	23개	94개
%	38.2%	20.2%	17.0%	24.4%	100%

(31) ご加入時に1,000円の出資金をお預かりします。

(生活協同組合パルシステムのチラシ、2018년)

(32) 広告に掲載している物は対象エリア内ならずべて無料です。万が一費用がかかるケースは必ず事前にお伝えいたします。

(株式会社イノセント、2018년)

(33) 作業を行う際に電気・水道を使用させていただきます。

(エコロジスタサービス、2018년)

(34) 商品のお渡しは6月下旬を予定しております。

(アエラホーム株式会社、2018년)

#### 4.3 정중 표현 형식

정중어	お	ご	ござる	합계(%)
갯수	43개	0개	29개	72개
%	59.7%	0%	40.2%	100%

(35) お風呂用メガネ! お風呂でも曇りにくく、足元が見えて安心!

(メガネのアイガン イオン橋本店、2019년)

(36) 現金・印鑑が必要な場合がございます。

(エニタイムフィットネス 相模原店、2018년)

## 5. 경어화를 허용하는 품사의 의미유형

### 5.1 존경 표현 형식

#### 5.1.1 존경 접두사가 연결된 품사의 의미유형

##### (37) お+名詞

###### ① 고객의 행위 :

お問い合わせ、お掃除、お任せ、お買い上げ、お申し込み、お買い物、お選び…

###### ② 고객의 소유물 :

お家、お部屋、お庭、お気、お写真、お荷物、お電話番号、お身体、お車…

###### ③ 고객의 심적 상태 :

お手数、お好み、お悩み、お好き、お希望、お困り…

###### ④ 고객의 고유상황 :

お一人、お近く、お手元…

##### (38) お+形容詞 : お安い、お手頃、お得

##### (39) お+副詞 : お気軽に、お早めに

##### (40) ご+名詞

###### ① 고객의 행위 :

ご来園、ご要望、ご記入、ご予約、ご登録、ご契約、ご入学、ご連絡、ご使用

###### ② 고객의 소유(물):

ご家族割引、ご友人、ご愛車、ご家庭、ご体験、ご住所、ご自宅、ご自身

###### ③ 고객의 심적 상태 :

ご了承、ご容赦、ご迷惑、ご了承、ご遠慮、ご納得

###### ④ 고객의 고유상황 :

ご新規様、ご加入者、ご近所

##### (41) ご+形容詞 : ご不明、ご安心、ご満足、ご不明

##### (42) ご+動詞 : ご加入する、ご希望する

##### (43) ご+副詞 : ごゆっくり

#### 5.1.2 접미사가 연결된 품사의 의미유형

- (44) 様(さま)/さん/かた : お子様、お客様、家族様、100名様、皆様、経営者様、保護者様、お母様、会員様、ご入居者様(入居者様)、ご新規様、おかげさま、ご本人様、皆様方、

ママさん、だるまさん、お子さん、学生さん、お肉屋さん

### 5.1.3 존경어 형식(方)이 출현하는 연체수식절의 의미유형

#### (45) 과거의 특정한 행동

- a. 過去のプレゼント企画にご応募いただいた方 生活協同組合パルシステムのチラシ 2018

#### (46) 특정 상태를 희망

- a. 度数が変わったので変更したい方 メガネのアイガン イオン橋本店2019

#### (47) 미래의 특정한 행동

- a. レンズのみお買上げの方20%OFF メガネのアイガン イオン橋本店 2019

#### (48) 특정 상태에 놓인 대상

- a. 生活クラブをご利用されていない方が対象です。

さがみ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相模原センター 2018

### 5.1.4 존경화를 허용하는 동사의 의미유형

(49) 동사(명사)→접두사~お(ご)になる : お使いになる、ご利用になる、お出になる

(50) 동사→수동형 : 検討される、ご利用される、利用される、お申し込みされる、参加をされる、指定される、開始される、ご入学される、ご希望される

(51) 동사→접두사+ます형+くださる : 実行してくださる、～状態にしておいてくださる

## 5.2 겸양 표현 형식

### 5.2.1 겸양의 접두사가 연결된 품사의 의미유형

(52) お : お知らせ、お手伝い、お手渡し、おススメ、お値引き、お渡し、お届け、お祝い、お仕上げ、

(53) ご : ご案内、ご提案、ご用意、ご優待券、ご招待、

### 5.2.1 겸양어가 나타나는 문맥 정보

(54) いたす : 開始いたす、終了いたす、回収いたす、解決いたす、片付けいたす、お伝えいたす、利用いたす、指導いたす、高圧洗浄をいたす、併用をいたしかねる、引き落しいたす、サポートをいたす

- (55) いただく : ご協力いただく、ご参加いただく、ご契約いただく、ご納得いただく、ご予約いただく、
- (56) 承る : 週に1回も難しい方はオプションで栽培代行サービスも承っています。  
サポート付き農園 シェア畑 八王子みなみ野 2019
- (57) お願い申し上げる : ご迷惑をおかけいたしますが、何卒ご理解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CURRY HOUSE CoCo 荻番屋 JR橋本駅北口店 2019
- (58) 申す : 私たちはマルハン橋本台店と申します。マルハン橋本台店 2018
- (59) 弊社 : クレジットカードは弊社インターネットからのご注文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Café レストランガスト 2018

### 5.2.3 겸양화를 허용하는 동사의 의미유형

- (60) 동사(명사) → 접두사(お(ご))~する : おすすめする、お聞きする、お伝えする、ご案内する、お伝えできる、お伺いできる、お願いする、お渡しする、お預かりする、お伺いする、お伝えできる
- (61) 동사 → 접두사(お(ご))~いたす : お渡しいたす、お伝えいたす、お願い致す、おすすめいたす、お付けいたす、お取り扱いいたす、お伺いいたす、お支払いいたす、
- (62) 동사 → させていただく : お話しさせていただく、午後5時30分までとさせていただく、養生させていただく、使用させていただく、判断させていただく、締め切りとさせていただく、ご用意させていただく...
- (63) 동사 → ておる : 行っておる、会員制となっておる、含まれておる、販売しておる、お待ちしておる、ご用意しておる、揃えておる、対応しておる、表示しておる、予定しておる、実施しておる...
- (64) 동사 → ていただく : 行っただく、お見積りをしていただく、取り組んでいただく、教えていただく、検索していただく、体験していただく、参加していただく、味わっていただく...

### 5.3 정중 표현 형식

- (65) 不在時はお届けができない物件もございます。生活協同組合パルシステム 2018
- (66) 格安ライトクリーニングもございます! エコロジスタサービス 2018
- (67) エアコンの取り外しに高所作業が必要なケース等、一部作業費が発生するケースがございます。株式会社イノセント 2018

- (68) お風呂用メガネ! お風呂でも曇りにくく、足元が見えて安心! メガネのアイガン イオン橋本店 2019
- (69) あっという間に食卓やお弁当を彩る一品に。さがみ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相模原センター 2018
- (70) 東京・神奈川・千葉にお店があります。さがみ生活クラブ生活協同組合相模原センター 2018
- (71) お盆休み・年末年始 アサヌマコーポレーション(株) 2018

참고문헌(상세한 정보는 당일 배부하겠습니다.)

정의상(2019) 『New 스타일 일본어문법』 동양북스, pp. 222-240.

# 일한번역의 문제점 및 대안

- 1950년대 大江健三郎의 한국어 번역본을 실례로 -

김양선(영남대학교)

지정토론 : 권성(목포대학교)

## 1. 서

### 1.1 연구 대상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1950년대 大江健三郎의 작품 7권의 한국어 번역본의 실태를 파악하여 일한 번역의 문제점 및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李承俊(2020: 158)에도 언급되었듯이 大江는 일본 역대 2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작품의 우수성과 세계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이 인정되었으며, 문연주(2008:206)에서는 1990년대 가장 많이 번역된 일본소설 작가 6위로 26종, 김근성(2008: 9)에서는 3위로 작품편수 28개에 출판회수 63회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대중성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번호	1950년대 大江健三郎 작품	한국어 번역본	
1	〈死者の奢り〉 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사자의 잘난 척〉 2016, 박승애 역,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3권
		〈죽은 자의 사치〉 1994, 장철현 역, 도서출판보람	
		〈사자(死者의 사치(奢侈))〉 1994, 신경숙 역, 『절규』, 백양출판사	
2	〈他人の足〉 1957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남의 다리〉 <sup>1)</sup> 2016, 박승애 역,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1권

1) 윤상인 김근성 강우원용 이한정(2008:310)에는 1994년까지 총 2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했지만, 현재 입수한 것은 최근 2016년판 1권이다.

3	〈奇妙な仕事〉 1957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기묘한 아르바이트〉 2016, 박승애 역,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2권
		〈기묘한 일〉 1994, 최재철 역, 『性의人間・外』, 중앙일보사	
4	〈芽むしり仔打ち〉 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2014, 유숙자 역, 문학과지성사	2권
		『겨울골짜기』, 정태원 역, 1994, 무한대	
5	〈人間の羊〉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인간 양〉 2016, 박승애 역,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2권
		〈인간 양〉 1994, 박승호 역, 『性의人間・外』, 중앙일보사	
6	〈不意の唾〉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돌연한 병어리〉 2016, 박승애 역,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2권
		〈불의의 병어리〉 1994 허호 역, 『性의人間・外』, 중앙일보사	
7	〈飼育〉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사육〉 <sup>2)</sup> 2016 박승애 역,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1권

## 1.2 선행연구 검토

“文化素” 번역의 어려움을 강조한 保阪裕二(2004)를 비롯하여, 이한정(2008: 138-139)에서도 고유명사표기, 오역, 역주문제 등이 일한번역시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응교(2005:202)는 정확한 한국어구사력, 일본문화에 대한 정통함을 강조했으며, 오경순(2010)에서는 번역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표로 정리하여 역기능이 더 많음을 강조였고(p.36), “~고 있다” “~아/어지다”, 복수, “의’ 생략”, “사역문” “피동문” 등의 직역 자체 및 양국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가짜 동족어” pp.49-52)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이한정(2016)에서는 재번역되면서도 오류들이 개선되지 않는 번역의 질적인 문제와 표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2) 윤상인 김근성 강우원용 이한정(2008:307)에는 1999년까지 총 7권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했지만, 현재 입수한 것은 최근 2016년판 1권이다.

### 1.3 연구방법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결국 일한번역의 가장 기본적 능력은 언어능력(한국어 및 일본어 구사 능력)과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번역본을 읽고 의미불명한 부분을 체크하여, 이희재(2009)의 여러 제안 중, “수동태 길들이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동문”, “적(的)이라는 문장의 적(賊)”, “간결한 문장의 비밀, 덧말”, “살빼기”, “좁히기”, “덧붙이기”, “짜깁기”, “뒤집기”, “맞춤법도 법이다” 등을 참조하여 다음 순위별로 한국어번역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직역 우선
- 2) 가독성: 수동문 및 사역문 등을 능동문으로, ‘의의’/들/적, !~고 있다. ~아(어)지다, 등 한국어표현 자체, 역주 자체
- 3) 문체유지: 大江의 문체를 최대한 유지(문단, 지시어, 외래어 사용 등)
- 4) 간결화
- 5) 용어 통일성: 어휘, 외래어, 고유명사 등
- 6) 단순화 : 동식물

## 2. 大江健三郎의 한국어번역본 실태

### 2.1. 「死者の奢り」

	ok	오역	모두 오역	번역 누락	모두 번역 누락	문단상이	맞춤법 (띄어쓰기)
〈사자의 잘난 척〉 2016, 박승애 역	18	5	4				
〈죽은 자의 사치〉 1994, 장철현 역	12	7	4	5		8	1
〈사자(死者의 사치(奢侈))〉 1994, 신경숙 역	4	12	4	2		23	2

### 2.2 「他人の足」 ; 제목(타인의 다리), 의미불명 부분 없음

### 2.3 「奇妙な仕事」

	ok	오역	모두 오역	번역 누락	문단 상이	맞춤법 (띄어쓰기)
〈기묘한 아르바이트〉 2016, 박승애 역	2					
〈기묘한 일〉 1994, 최재철 역		1		1		

### 2.4 「芽むしり仔撃ち」

	ok	오역	모두 오역	번역 누락	모두 번역누락	문단 상이	맞춤법 (띄어쓰기)	인용 부호	원문 상이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쓰기』 2014, 유숙자 역	40	8	8	5	2				
『겨울골짜기』, 정태원 역	6	18		6	2	22		「」	

### 2.5 「人間の羊」

	ok	오역	모두 오역	번역 누락	모두 번역누락	문단 상이	맞춤법 (띄어쓰기)	인용 부호	원문 상이
〈인간 양〉 2016, 박승애 역	4	1			3				1
〈인간 양〉 1994, 박승호 역	4	1			3	1			1

### 2.6 「不意の嘸」 : 의미불명 3개

	ok	오역	모두 오역	번역 누락	모두 번역 누락	문단 상이	맞춤법 (띄어쓰기)	인용 부호	원문 상이
〈돌연한 병어리〉 2016, 박승애 역									
〈불의의 병어리〉 1994, 허호 역									

## 2.7 「飼育」 : 의미불명 2개

	ok	오역	모두 오역	번역 누락	모두 번역누락	문단 상이	맞춤법 (띄어쓰기)	인용 부호	원문 상이
〈사육〉 2016, 박승애 역									

## 3. 한국어 번역본의 문제점 및 대안

번호	분류	페이지	일본어 원문	한국어 번역문	페이지	대안
			1〈死者の奢り〉1958 = 2018 『大江健三郎 全小説1』講談社	〈사자의 잘난 척〉 2016 박승애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 21)』, 현대문학 〈죽은 자의 사치〉 1994, 장철현, 도서출판보람 〈사자(死者의 사치(奢侈))〉 1994 신경숙, 『절규』, 백양출판사	제목	죽은 자의 사치
18	어휘	42	死体積出口	시체 적출구	64,67	
				시체 적출구(積出口)/시체 적출구	44/47	
				시체 적출구(死体 積出口)/ 시체 적출구	249/252	
						시체 배출구 (cf. 〈사육:102〉 화물 반출구)
3	외래어			장 라신	32	
				쟌 라시느	235	
						장 라신(Jean Racine + 역주 1639-1699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비극작가)
1	방언	32	吸わぶられる(吸わぶる)	빨리다.	48	빨리다
					28	번역 누락
				빨리우다	231	

42	의미 불명	27	この仕事に誇りを持っているのだろう、 <u>子供たちに時には特別見学許可を取ってやるかもしれない、と僕は思った。</u>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u>아이들에게 때로는 특별 견학을 허가해 주었을지도</u>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37-38	오역
				이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지. 때로는 <u>어린이들에게 특별 견학 허가를 내어주는지도</u>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18	문단 구분 상이, 오역
				이런 일에 긍지를 갖고 있겠지, <u>아동들에게 때로는 특별 견학의 허가를 줄지도</u>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220	오역
					모두 오역 ~てやる	이 일에 분명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u>자녀들에게 때로는 특별견학 허가를 얻어 주기도</u>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92		39	「僕は一番良く勉強する学生の一人だ。～」	“나는 아주 <u>공부 잘하는</u> 학생 중 하나예요.”	58	오역
				“난 <u>공부를 잘하는</u> 사람 중의 하나예요.”	38	오역
				“나는 가장 <u>잘 공부하는</u> 학생이죠.”	242	오역
					모두 오역	“나는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중 하나예요.
105		44	//「おい、怠けるなよ」と雑役夫の一人が僕にいった。//「え?」とトラックの積台の下から腹を立てた声が出た。	//“어이 게으름 피우지 마.” 잡역부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 “뭐?” 트럭 적재함 아래서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68	//“어이 게으름 피우지 마.” 잡역부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 “뭐라구?” 트럭 적재함 아래서 화난 목소리가 들었다.

				// “어봐, 늑장부리지 말라구.” 하고 잡역부 한 사람이 내게 말 했다. // “늑장부리지 말라구” // 트럭 칠성판 밑에서 성난 목 소리가 들려왔다.	48	
				// “어이, 빈둥거리지 말라구.” // 잡역부 한 면이 나에게 말 했다. // “뭐라구!” // 트럭 적 재대(積載台) 밑에서 화난 목 소리로 대꾸했다.	253	
			2<他人の足>1957 = 2018 『大江健三郎全小 説1』講談社	<남의 다리> 2016 박승애 『오 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제목	타인의 다리
			3<奇妙な仕事> 1957 = 2018 『大江健三郎 全小説1』	<기묘한 아르바이트> 2016 박 승애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 편선21)], 현대문학/ <기묘한 일> 1994 최재철 『性の人間』		기묘한 아르바이트
2	어휘	14	院生	대학원생	18	대학원생
				사립대생	161	오역
4	의미 불명	10	こちらは文科だけど、 引き受けるよ、と僕は いった。	“나는 문과 학생이지만 어쨌든 이 일을 할 거야”하고 내가 말 했다.	11	
				“나도 할게.”하고 나는 말했다.	151	번역 누락
					직역 가능	“나는 문과지만, 할게” 하고 나는 말했다.
			4<芽むしり仔打ち> 1958 = 2018 『大江 健三郎全小説1』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2014 유숙자, 문학과지성사 『겨울골짜기』, 정태원, 1994, 무 한대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쏘기』
1	어휘	213, 214	弟	남동생, 동생	8, 9	혼용
				동생	16	동생(다른 동생이 없으므로 굳이 남동생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음=. 단순화)

7		226/ 266	半鐘台	경종警鐘(*각주: 마루에 매달아 놓고 화재나 홍수가 나거나 도 둑이 들었을 때와 같이 비상시 에 올리는 작은 종.) 망루 / 경 종대	37,125	역주+ 혼용
				경종대(警鐘台), 경종대	42, 127	
					역주 자체, 해설 추가	비상이 종치는 망루
8		226	錯雜	어수선	38	어수선
				착잡	44	‘착잡’(심정 표현에 주로 사용(환자어 의미 차이))
22		304	ひどいめにあう	된통 당하다	208	된통 당하다
				치도곤을 당하다	213	
5	동식물	233, 246	地鼠	뒤지	52, 81	
				땅쥐/들쥐	58/85	혼용
					단순화	들쥐
11		288	山羊	염소	173	염소
				산양	177	
1	고유 명사	259	李	리(李), 리	110/ 111	
				이(李), 이	112/ 113	p.114 “우리는 인를 사이에 끼고~” P.172 “이는 새들의 다리를 굽은 철사로 꿰고는 ~” 해석 애매 (‘이것’으로 해석 가)
					통일성	이(李)로 통일

6	외래어	285	ナイフ	나이프	167	나이프
				나이프	171	나이프
2	의미 불명	213	//それから舗道に村の子どもたちや女たちが集ってき、彼らは好奇心と恥らいと、鈍重なふてぶてしさをたたえた眼で僕らを見つめ、彼らの間に低く熱っぽい囁きと不意の高笑いとをわかし、僕らを憤らせた。	//그리고 도로에 마을 아이들과 여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멋쩍음, 목직한 뻔뻔스러움이 담긴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고는, 저들끼리 나직이 신나게 속삭이는가 하면 느닷없이 약자한 웃음을 주고받아 우리의 분노를 샀다.	7	
				//마을의 아이들과 여자들이 도로에 몰려와, 호기심과 수줍음, 둔중한 두툼함을 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들 사이에 낮고 열띤 속삭임과 불의의 홍소(哄笑)를 나누어 우리들을 분격케 했다.	15	
					사역→ 능동	//그리고 도로에 마을 아이들과 여자들이 모여와, 호기심과 수줍음 또 무딘 뻔뻔스러움을 담은 눈으로 우리를 응시하더니, 그들끼리 나직이 신나게 속삭이는가 하면 느닷없이 크게 웃어대서 우리는 분노했다.
16		216	草色の放水布で造った外套を着こんだ栄養不良の歌う十五人の少年たちを村の人間たちが眼もくらむほど驚嘆してかこんでいるわけだった。	풀색 방수포로 만든 외투를 걸치고 노래하는 열다섯 명의 영양불량 소년들을, 마을 사람들이 현기증이 날 만큼 감탄하며 에워싸고 있었다.	13	오역

				<p>폴색 방수포로 만든 외투를 입고 영양 불량 상태에서 노래하는 15명의 소년들을, 동네 사람들이 <u>눈이 부실</u> 만큼 경탄하며 둘러싸고 있는 <u>셈</u>이었다.</p>	21	오역
						<p>폴색 방수포로 만든 외투를 걸쳐입고 영양 불량 상태에서 노래하는 15명의 소년들을, 마을 사람들이 <u>현기증</u>이 일어날 정도로 <u>깜짝 놀라</u>하며 <u>에워</u>싸고 있던 것이었다.</p>
23		217	<p>彼は<u>時どき</u>突然僕に走りよって自分が<u>友達</u>の女の子の眼を<u>ゴム銃</u>で<u>撃ちぬいた</u>というふう<u>に</u>思いつきを頬を紅潮させて語るのだ。</p>	<p>그는 이따금 불쑥 내게 달려와서는 자신이 고무총으로 <u>여자애</u>의 <u>눈</u>을 <u>관통</u>시켰다는 식의 <u>착상</u>을 <u>뺨</u>을 <u>발그레</u> 물들이며 <u>이야기</u>했다.</p>	16	오역
				<p>//그는 이따금 갑자기 내게 달려와서, 자기가 친구인 계집아이의 <u>눈</u>을 <u>고무총</u>으로 <u>쏘아</u> <u>뚫었다</u>는 등 그런 식의 <u>착상</u>을 <u>뺨</u>을 <u>붉히</u>며 <u>지껄</u>었다.</p>	23	문단구분 상이, 오역
						<p>그는 <u>이따금</u> 갑자기 내게 달려와서, 자기가 친구인 계집애 <u>눈</u>을 <u>고무총</u>으로 <u>관통</u>시켰다는 등 문득 떠오른 생각을 <u>뺨</u>에 <u>홍조</u>를 띠며 <u>말하</u>곤 <u>한다</u>.</p>

50		228	<p>// 馬鈴薯はまだ残っていたが、やがて僕らの胃は粗末な食物をすでに<u>うけつ</u>けなくなり、僕らの柔らかい頭を眠りと満腹からくるあいまいな哀しみとが水のように<u>浸</u>していった。</p>	<p>// 감자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침내 우리의 위장은 초라한 음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졸음과 포만감에서 오는 애매한 <u>슬픔</u>이 우리의 부드러운 머리를 물처럼 흠뻑 <u>적</u>셨다.</p>	40-41	
				<p>// 감자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윽고 <u>우리</u>들의 위는 <u>허술한</u> 음식을 전혀 <u>받</u>아들이지 않아, 우리의 부드러운 머리를 졸음과 포만감에서 오는 아리송한 슬픔으로 물처럼 <u>적</u>셔갔다.</p>	46	
					<p>복수표현 자체, 가독성 (능동+자동사 표현)</p>	<p>// 감자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마침내 우리의 위는 초라한 음식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u>우리</u>의 <u>부드러운</u> 머리는 졸음과 포만감으로 인한 애매한 <u>슬픔</u> 따위로 마치 물이 스며들 듯 <u>적</u>어들었다.</p>
58		231	<p>僕らは彼の無反応から小さな衝撃を受けたが彼の眼やにが流れてこびりついている袋のようにだるんだ眼の下の皮膚は、<u>とも</u>すると<u>つり</u>あがって眼をつむらせ眠りをかもし出しそうに<u>見</u>えるほどだった。</p>	<p>우리는 <u>그</u>의 무반응에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흘러내리는 눈썹이 들러붙어 주머니처럼 축 늘어진 그의 눈밑 피부는 <u>자</u>칫 <u>하</u>면 <u>치</u>켜 올라가 눈을 덮고 졸음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u>보</u>였다.</p>	48	

				우리는 <u>그의 무반응에</u> 또다시 작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썹이 달라붙어 있는 주머니처럼 늘어난 눈 <u>아래의 살가죽은 자칫하면 치켜올라 눈을 감게 하고</u> 졸음을 자아낼 것처럼 보였다.	54	
						우리는 <u>그가 무반응인데</u> 조금 충격을 받았지만, 눈썹이 흘러내려 달라붙어서 주머니처럼 축 늘어진 그의 눈 밑 피부는 자칫하면 위까지 올라가 눈을 뒤덮어 졸음을 불러일으킬 것처럼 <u>보일</u> 지경이었다.
63		232	~子供たちだけが獣たちの死骸のたてる臭気から、優しい人間的な信号、 <u>誘いかけ</u> 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だ。	~아이들만이 짐승들의 사체가 뿜어내는 악취에서 부드러운 인간적인 신호와 <u>유혹</u> 을 받아들일 수 있다.	50-51	오역
				~아이들만이 짐승들이 풍기는 악취에서 <u>상냥하고 인간적인 신호로 유혹</u> 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56	오역
						~아이들만이 짐승들 시체가 뿜어내는 악취로부터 나오는 부드럽고 인간적인 <u>신호와 권유를 접수</u> 할 수 있을 것이다.

81	240	//弟の上衣は薬品を使って急激に腐敗させた果実の臭い、腐敗菌の長い努力のそれではなく、もっと無機的な腐敗の臭いがした。	//동생의 옷옷은 약품을 사용해 급격히 부패시킨 과일의 악취, <u>부식균의 오랜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u> 한층 무기적인 부패의 악취가 났다.	67-68	'무기적' 한글표기만으로 의미 불명
			//동생의 상의에서는 약품을 사용하여 급격히 부패시킨 과일 냄새, <u>부식균의 오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더 무기적(無機的)인 부패의</u> 냄새가 났다.	72	
				단순화 (한자표기 자제)	//동생의 옷옷은 약품을 사용해 급격히 부패시킨 과일 냄새, <u>부식균이 오래 노력 끝에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u> 훨씬 화학적인 부패 냄새가 났다.
86	248	脱走した予科練の兵隊の山狩りをする村人たちの言葉と、	탈주한 해군 하사관 학교 생도를 산사냥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 ~	85	
			탈주한 예과 연습생을 산을 뒤져 찾는 마을 사람들이 탄 말,	89	오역
					탈주한 해군 비행예과 연습생을 산을 뒤져 찾는다는 마을 사람들의 말과, ~
89	252	~、それを担当した少年は途中で明らかにおびえにとらえられたように背を震わせ査証を中止した。そこで僕らはしばらくじっとしていた。しかし、 <u>きみが</u> わかった。	~, 그걸 담당하는 소년은 도중에 분협이 겁에 질린 듯 등을 부들부들 떨며 작업을 중지했다. 거기서 우리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u>하지만</u> 깨름칙했다.	94	오역

				~ 그 일을 맡은 소년은 도중에 분명히 겁에 질린 듯이 등을 후들후들 떨며 작업을 중단했다. 우리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u>기분이 나빴다.</u>	98	오역
					모두 오역	<u>그러나 등골이 서늘했다.</u>
104		260	そして僕は李たちが運びおろして来る <u>疎開女の死体のために、仲間</u> <u>のそのための穴より一周り大きい穴を掘る</u> 役目を引き受けた。	그리고 나는 리과 동료들이 옮겨 내려올 여자의 시신을 위해, 동료의 시신을 위한 구덩이보다 훨씬 더 큰 구덩이를 파는 역할을 떠맡았다.	112	‘疎開女’ 번역 누락
				그리고 나는 이와 우리 동료들이 날라서 내려오고 있는 여자의 시체를 위하여 <u>동료의 그것을 위한 것보다는 한 둘레</u> 더 큰 구덩이를 파는 일을 맡았다.	114	‘疎開女’ 번역 누락
					가독성	그리고 나는 이(李)와 동료들이 옮겨 내려올 <u>격리되었던</u> <u>여자의 시신용으로,</u> <u>동료 시신용</u> <u>구덩이보다</u> 훨씬 더 큰 구덩이를 파는 역할을 맡았다.
128		283-284	// 弟は涙の光をたたえる眼で僕を見あげ、 <u>短く断続する甲高い声で笑った。</u>	//동생은 눈물에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u>쳐다보고는 짧게 끊어</u> <u>졌다 이어지는 새된 목소리로</u> <u>웃었다.</u>	162	
				//동생은 눈물 빛이 감도는 눈으로 나를 보고 짧게 <u>단속되는</u> 높은 소리로 웃었다.	165	‘断続’ 오역

					문체 유지	//동생은 눈물이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는 <u>새된</u> <u>목소리로 짧게</u> <u>웃다가</u> <u>멈췄다가</u> <u>반복하면서</u> 웃었다.
		296	僕らの切望と無気力、 <u>密集する黴菌、たちまち僕らを無意識の状態、喉を火と焼く讒言の発作に追いこむはずの微細な黴菌の巨大な集合、それらが牛の骨や皮から精製された淡黄色のゼラチンのように、ぐつぐつ煮えたち溶けた村を浸していた。</u>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 밀집하는 병균, 순식간에 우리를 무의식 상태와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헛소리의 발작으로 내몰 미세한 병균의 거대한 집합, 이런 것들이 소뼈나 가죽에서 정제된 담황색 젤라틴처럼 <u>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녹아내려 마을을 적시고 있었다.</u>	189	오역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 <u>집합하는 병균</u> , 무의식 상태에서 우리의 <u>목구멍을 불처럼 지지는 ( )</u> 그것들이, 소뼈나 가죽에서 정제된 담황색 젤라틴처럼 <u>부글부글 끓어서 녹아 난 마을을 적시고 있었다.</u>	194	( ) 번역 누락, 오역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 밀집하는 병균, 갑자기 우리를 무의식 상태와 <u>목구멍을 불로 태우는 혀언의 발작을</u> 일으키게 만들 미세한 병균의 거대한 집합체, 이런 것들이	젤라틴 의역에 근거한 번역 필요. 원문 오타 없음 : 阿部一 (2002: 145	

					참조)	소의 뼈나 가죽으로부터 정제되는 담황색 젤라틴과 같이, <u>부글부글</u> <u>끓어올라</u> <u>녹아버린</u> <u>마을을 폭</u> <u>덮고 있었다.</u>
144		305	//「~」と南がおしかぶ せていった。	// “~”미나미가 <u>연달아</u> 말했다.		오역
				//「~」 // 미나미가 <u>덜쳐</u> 씩씩 말했다.	214	오역
						// “~” 미나미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급히 말했다.
145		311	僕は暗い入り口に重 なった顔の中で、白く のっぺりした者たちの それが動揺するのを見 た。	나는 어두운 입구에 겹쳐진 얼 굴 가운데 희고 편편한 사람들 의 표정이 동요하는 걸 보았다.	223	
				나는 어두운 입구에 겹쳐 선 희 고 매끈한 자들이 동요하는 것 을 보았다.	228	
					가독성 (지시어 문맥상 해석)	나는 어두운 입구에 잔뜩 <u>모여있던 얼굴</u> <u>중에 희고</u> <u>편편한 얼굴을</u> <u>지닌 자들이</u> <u>동요하는 것을</u> <u>보았다.</u>
			5<人間の羊> 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 説1』講談社	<인간 양> 2016 박승애 『오에 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 <인간 양> 1994 박 승호 『性的人間』		

1	어휘	161	終発の郊外へ走るバス	교외로 나가는 막차 버스	150	
				교외행 막버스	197	
					간결화	교외행 막차 버스
5		173	外国兵	외국 군인	171	
				외국 병사	222	외국 병사
2	동물	161	牛	소	151	소
				황소	198	
1	외래어	169	キャンプ	군부대/부대	165/166	혼용
				캠프	215,216	캠프
1	원문 다름	161	背の低い、顔の <small>小さな</small> 女	키가 작고 얼굴도 <u>작그마한</u> 여자를	151	
			背の低い、顔の <small>大きい</small> 女	키가 작고 얼굴이 <u>큰</u> 여자를	198	1994 『大江健三郎全 作品(第1期)』 新潮社 (p.141)
7	의미 불명	164, 165	羊撃ち、羊撃ち、パン、パン!	<u>양치기</u> , 양치기, 빵, 빵!	156,157	오역
				양 쏘기, 양 쏘기, 빵, 빵!	204,205	양 쏘기, 양 쏘기, 빵, 빵!
						양 쏘기, 양 쏘기, 빵, 빵! (역주: 총소리 이기도 하지만, 미점령군 시절 미군과 동거하는 여자에 대한 속칭이기도 하다)
15		174	//僕は黙ったまま教員を睨みつけているだけで、体じゅうのあらゆる意志と力をつかっていた。	//나는 <u>말없이</u> 선생을 노려보며 <u>내 몸속에 남아 있는 모든 의지와 힘을 동원하려고 애를 썼다.</u>	173	
				나는 <u>말없이</u> 교원을 바라다 볼 뿐 몸의 모든 의지와 힘을 다 써버렸다.	225	

						/나는 말없이 <u>교사를</u> <u>노려보는</u> 것만으로도 몸 <u>전체의 모든</u> <u>의지와 힘이</u> 다 소진되었다.
			6<不意の咄>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 説1』講談社	<돌연한 병어리> 2016 박승애 『오에겐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 21)』, 현대문학 <불의의 병어리> 1994 허호 『性 的人間』		불의의 병어리
1	어휘	385	外国兵	외국 군인	174	
				외국 군인	173	
						외국 병사
2	의미 불명	388	外国兵たちは今さらな がら、短くがっしりし た銃をその銃床が腰へ ごつごつぶつかるよう な具合に肩へかけてい た。	외국 군인들은 새삼스럽게 짧고 도 굵직한 총을 메고 있었다. 총대가 허리에 부딪치며 철컹 철컹 소리를 냈다.	180	
				외국 군인들은 보란듯이, 몸체 가 짧고 굵직한 총을 그 손잡 이가 허리에 닿도록 어깨에 걸 치고 있었다.	181	
					간결화 [~어/고 있(었)다 →있(었) 다]	외국 병사들은 보란듯이 짧고 굵직한 총을 총대가 허리에 딱딱 소리를 내며 부딪치는 형상으로 어깨에 걸쳤다.
3		392	母は男のように尻をつ き膝を両腕にかかえこ んで身動き一つしない でいた。	어머니는 남자처럼 양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감싸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187	
				어머니는 사내처럼 궁둥이를 내 려앉아 무릎을 양팔로 감싼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188	

						어머니는 사내처럼 <u>털썩</u> 주저앉아 양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7〈飼育〉 1958 = 2018 『大江健三郎全小説1』 講談社	〈사육〉 2016 박승애 『오에겐 자부로(세계문학단편선21)』, 현대문학		
1	외래어	130	セクス	섹스	100	섹스 (cf. 〈芽むしり仔撃ち〉 p.211 “성기” )
1	동물	134	地鼠	뒤지	107	
					단순화	들쥐
2	의미 불명	134	<u>金属の味を口腔にひろげる、雨のように大粒の霧がなだれかかり、僕を息苦しくし、髪を濡らし、襟が垢で黒ずみよじれているシャツの毛ばたちに、白く光る水玉を作った。</u>	입속에 쇠 냄새를 퍼뜨리는 <u>빗방울같이 굵은 안개가 떨어져 내려 숨을 쉬기가 힘들다. 안개</u> 는 머리카락을 적시고, 옷깃에 새카맣게 때가 탄 셔츠에 인 보푸라기에 <u>하얗게 반짝이는 구슬</u> 을 만들었다.	106	
					-‘霧’ 수식어 분명하게	<u>빗방울만한 굵은 안개는 구강에서 쇠 맛을 느끼게 하며 갑자기 밀려들어서, 나는 숨쉬기 힘들고 머리가 젖었으며,</u> 옷깃에 새카맣게 때가 탄 셔츠에 인 보푸라기에는 <u>하얗게 반짝이는 물방울이 맺혔다.</u>

## 4. 결

모두 오역인 경우와, 모두 번역이 누락된 경우를 중점적으로 리스트 작성: 일본어 학습에 활용

## 참고문헌

- 김근성(2008), 「무엇이 번역되었나」, 『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pp.29-114
- 김응교(2005), 「일본문학 번역의 왜곡상-일본문학 번역의 교두보인 《빙점》을 중심으로」, 『문학사상』, 문학사상, pp.198-204
- 문연주(2008), 「일본소설의 국내 번역 출판 현황과 특성에 대한 통사적 고찰」, 『한국출판학 연구』34권, 한국출판학회
- 오경순(2010), 『번역투의 유혹(일본어가 우리말을 잡아먹었다고?)』, 이학사
- 유은경(2011), 『소설번역 이렇게 하자』, 향연
- 윤상인·김근성·강우원용·이한정(2008), 『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 pp.307-312
- 이석규·허재영·박현서·한성일·김진호·김규진,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역락
- 이한정(2008), 「어떻게 옮겼는가」, 『일본문학번역 60년 현황과 분석』, 소명, pp.115-153
- (2016), 『일본문학의 수용과 번역』, 소명, pp.101-111
-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한영문화사
- 李承俊(2020), 「韓国語教育における翻訳の活用の試み-大江健三郎」,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の韓国語翻訳を事例に一、『愛知学院大学語学研紀要』45-1, 愛知学院大学語学研究所, pp.157-175
- 保阪裕二(2004), 「日本近代小説の韓国語本約本考察」, 『日本学報』58-3

# 자순도치 한자어의 번역어와 현대어로의 변화

장원재(계명대학교)

지정토론 : 이충규(서원대학교)

## 1. 시작하며

- 健康(AB)-康健(BA)과 같이 한자어 구성요소의 순서가 바뀐 자순도치 한자어가 현대 한국어와 일본어에는 상당히 많은 페어가 존재함.
- 한일 각각 중국의 한자어를 받아들인 이후 19세기 말 이후 신어의 번역어로서 자순을 도치시킨 한자어를 조어 또는 도입하여 현대어로 이행.
- 한일 현대어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분석 기술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현상들이나 지금까지 연구가 전무함.
- 본 발표는 19세기 말 자순도치 한자어의 대역양상과 현대어로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여 분석함.

## 2. 조사자료 및 방법

1) 근대어 자순도치 한자어의 추출자료 및 대역어의 대응 양상(병렬코퍼스 구축)

자료1: 『西洋事情』(福沢諭吉, 1866-1870)의 일부 : 『西遊見聞』(유길준, 1895)의 일부

자료2: 『フレデリック大王七年戦史』(渋江保, 1896) : 『普魯士国厚禮斗益大王七年戦史』(유길준, 1908)

자료3: 『高等小学讀本』(1888)의 일부 : 『国民小学讀本』(1895)의 일부

자료4: 『新編博物学』(原田長松等編, 1901) : 『新編博物学』(이필선, 1907)

2) 해당 한자어의 1860년 이후의 통시적 용례 조사(의미, 용법, 문체, 장르)는 아래와 같이

기존 구축 및 수집한 통시코퍼스를 대상으로 함.

일본어는 国立国語研究所의 일본어역사코퍼스(日本語歴史コーパス, CHJ) 중에서 근대 이후의 잡지코퍼스를 대상으로 함. 아래는 각 연대의 코퍼스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소 단위로 집계한 결과.

연대	明六 1874-75	東洋 1881-82	国民 1887-88	太陽 1895	太陽 1901	太陽 1909	太陽 1917	太陽 1925
총형태소수	178611	195786	1006201	2027505	1977253	1867695	1799799	2030782

한편 한국어는 세종계획, 홍윤표(2012),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 근현대잡지자료<sup>1)</sup> 및 신문류), 그리고 필자가 구축한 계몽기 자료들로 구성. 근대 한국어의 경우는 형태소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문자수로 카운트함(공백, 기호는 제외).

연대	1880-89	1890-99	1900-09	1910-19	1920-29	1930-39	1940-49
총문자수	265015	5111519	8829831	1689106	12870306	12618960	2499392

각 연대별로 해당 한자어의 용례 수를 조사하여 개괄하고, 의미, 용법, 문체에 대한 차이가 없는지를 조사. 한일 간의 통시적 흐름은 위의 형태소수와 문자수를 바탕으로 조정빈도(PMW, 100만 단어(문자) 당 빈도수)를 기준으로 비교.

### 3. 자순도치 한자어의 번역양상

〈표 1〉 한일 자순도치 한자어의 병렬코퍼스 출현 현황과 대역어 페어수

유형	일본어		한국어		용례	병렬코퍼스 출현 현황	자순도치한자 어가 대역어
	AB	BA	AB	BA			
①	○	○	○	○	腔内-内腔 剛勇-勇剛	11	2
②	○	○	○	×	父祖-祖父 鉄鉞-鉞鉄	2	0

1) 허수(2020)에는 근대 잡지 자료의 상세한 정보 있으니 참고 바란다.

③	○	○	×	○	硬堅-堅硬 練熟-熟練	11	3
④	○	○	×	×	困究-究困 過買-買過	5	0
⑤	○	×	○	○	見聞-聞見 困弊-弊困	22	6
⑨	×	○	○	○	論評-評論 蠻野-野蠻	15	4
⑬	×	×	○	○	價賃-賃價 開鑿-鑿開	19	0
⑦	○	×	×	○	感賞-賞感 困窮-窮困	7	5
⑩	×	○	○	×	大增-增大 屯駐-駐屯	12	6

- ①유형, ②③④유형 < ⑤⑨⑬유형, ⑦⑩유형.
- ⑤⑨⑬유형이 많은 것은 ‘병렬코퍼스 출현현황’과도 일치. 한국어에는 AB, BA가 모두 출현하며 일본어에는 AB 또는 BA만이 출현하는 유형이 많음에 대해서는 장원재(2019a) 참고.
- ⑦⑩유형은 한일 각각 서로 다른 어형만이 출현하는 유형으로 중국 고전의 용례 유무와 1860년 이전의 용례 유무를 확인하면 19페이지 중 12페이지가 중국 고전에 용례가 있으며, 1860년 이전에 용례가 있는 페이지는 5페이지만임. 이는 AB 또는 BA가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나 어느 한쪽 유형은 근대 이후의 용례가 출현하는 페이지가 많다는 것(‘근대 이후 서양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 고전이나 한역양서의 기존 어휘를 받아들여 자순만을 도치시켜 번역어로서 사용한 가능성’)

①유형: 多数(13)-数多(62), 物産(7)-産物(4)

③유형: 硬堅(1)-堅硬(10), 費冗(1)-冗費(7), 相互(3)-互相(25)

⑤⑨⑬유형(( )안 빈도수): 動搖(3)-搖動(1), 命運(1)-運命(4), 物貨(6)-貨物(3), 培栽(3)-栽培(7), 步行(4)-行步(1), 成長(20)-長成(9), 葉托(1)-托葉(7), 進行(45)-行進(1), 平和(7)-和平(1), 黑色(16)-色黑(2)

⑦⑩유형(( )안 빈도수): 困窮(1)-窮困(1), 屯駐(3)-駐屯(1), 剝擦(1)-擦剝(2), 蚌鷓(2)-鷓蚌(2), 賞玩(1)-玩賞(2), 善後(4)-後善(4), 声音(1)-音声(2), 小少(1)-少小(1), 延展(1)-展延(1), 凹凸(10)-凸凹(1), 積蓄(1)-蓄積(1)

## 【자순도치 한자어의 대역어(이형한자어)】

- ▷ <J>:一、書中に記載したる材料は、最、普通にして、人生に有要なるものを選択し、僅数の種類を挙げて概括せり。/<K>:一、書中に記載한材料と普通으로人生日用에最緊要한者를選擇하고僅少한種類를挙히야概論하니라<자료4 <J>:はしがき/<K>:凡例>
- ▷ <J>:常に教師、父母及長上の教に従ひて、言行を正くする事は、其最も緊要なるものとす。<K>:平常 父母와 教師와 長上의 教訓을 조차 言行을 바르게 하미 最要하니라<자료3 <J>:第一課 吾が国/<K>:第一課 大朝鮮国>
- ▷ <J>:物事を精密に觀察するには、目の力を養ふこと、尤も大切なり。<K>:千事 万物을 精密히 觀察하기는 眼力을 開하미 要緊하니라<자료3 <J>:第二課 知識を得るの方法 /<K>:第二課 広智識>

## 4. 자순도치 한자어의 변화과정

### 4.1. ‘屯駐-駐屯’의 대응양상과 변화

‘屯駐’와 ‘駐屯’는 병렬코퍼스에는 ⑩유형으로 각각 3예와 1예가 나타남.

- ▷ ① <J>:然レトモ今や普軍ノ同地ニ進行スルヲ知リタレバ、直チニ近隣諸州駐屯ノ兵ヲ集メテ大小二軍ヲ編制シ、/<K>:甫恵米亞에大軍을進駐치아니하얏더니普軍이同地에侵入함을聞히고近隣諸州에屯駐한兵卒을集히야大小二軍編制하야<자료2 <J>:第二編七年戰ノ第一年 第三章 ローシツツノ戰/<K>:第三章 老施州의戰>
- ▷ ② <J>:普王フレデリックハ、索遜尼ニ滯留セル皇弟ヘンリー公ノ軍ガ奥ノ大軍ニ逼ラルト聞キ、軍ヲ率井テ同地ニ向フ。/<K>:時에皇弟顯利公의軍이索遜尼에屯駐하야奥의大兵의逼攻을當히니普大王이此報를聞히고軍을引히야索遜尼에向호<자료2 <J>:第四編七年戰ノ第三年 第三章 ホツホキルヘンノ戰/<K>:第三章 滬結県の戰>

‘屯駐’는 자료2에서 출현하며, 일본어의 ‘駐屯’, ‘滯留’에 대응하는 한국어는 ‘屯駐’만이 나타난다. 첫 번째 용례가 자순도치 한자어로 대역되는 예로 일본어는 명사(駐屯ノ兵)로 사용하는데 대해 한국어는 동사(屯駐하)로 번역된 예임.

‘屯駐’와 ‘駐屯’에 대해서 중국의 고전과 1860년 이전의 용례 유무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표 2〉 ‘屯駐’와 ‘駐屯’의 중국고전 및 1860년 이전 용례 유무

	중국 고전 용례	일본어 1860년 이전 용례	한국어 1860년 이전 용례
屯駐	유	무	유
駐屯	유	무	무

‘屯駐’와 ‘駐屯’은 모두 중국 고전에 용례가 보이지만, 일본어는 양쪽 어형 모두 1860년 이후에만 사용한 것에 반해, 한국어는 ‘駐屯’이 19세기 말 이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어와 동일하나 ‘屯駐’는 한국 고전에 용례가 보이는 점이 다름.

즉 19세기 말 당시 병렬코퍼스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어는 이전부터 중국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던 ‘屯駐’의 세력이 우세한 영향으로 판단되며, 일본어의 ‘駐屯’이 사용된 배경은 아래의 일본역사코퍼스(CHJ)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駐屯’이 압도적으로 용례수가 많음.

〈표 3〉 일본의 ‘屯駐’와 ‘駐屯’의 빈도수 변화(CHJ 검색, 中納言 2.4.4데이터버전)

	東洋 1981-1882	太陽 1895	太陽 1901	太陽 1909	太陽 1917	太陽 1925
屯駐	2	-	-	-	-	-
駐屯		18	31	12	7	2

1882년에 등장하는 ‘屯駐’의 2예는 『東洋学芸雜誌』 支那紙幣史畧 (一), (二) 기사의 동일한 平沼淑郎(히로누마 요시로) 작가에 의한 것에서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음.

- ▷ 九) 会子 是は証書なり、(第十)関子 是は邊塞に屯駐せる、軍士に供給するために発行せし紙幣なり、蓋し其最初の目的<東洋学芸雜誌<8>初版, p.15>
- ▷ 紙幣史畧(前号の続) 平沼淑郎 第二 会子紹興元年、婺州の屯駐の請願に因り、見錢関子を印造す、蓋し其地舟楫通せず、錢重ふ<東洋学芸雜誌<9>初版, p.10>

한편 한국어는 아래와 같이 홍윤표(2012)의 ‘15세기~19세기 전체’에서 ‘屯駐’의 용례가 다수 보임.

- ▷ 마련하여 십분 엄숙하므로 감히 칭의치 못하고 이의와 십니를 격하여 둔주(屯駐)하니 낭진(兩陣) 상격간(相隔間)의 홍신(鴻信)의 조호를 의논치 못하고 구구히 스상하는 뜻을 금어(禁抑)지<17xx완월회맹연권66, 4b>

▷ 보마 먼 거슬 능히 분변허더라. 체찰이 임의 칩을 물너 병마를 屯駐하고 석반을 나와 비불니 먹인후 계교를 가라쳐 남병을 마즈니 기기를 구치<17xx완월회맹연권66, 10a>

한국의 1890년 이후의 용례를 확인하면 용례수는 많지 않으나, 1900년대 이후 ‘屯駐’에서 ‘駐屯’으로 사용빈도의 역전 현상을 볼 수 있음.

<표 4> 한국의 ‘屯駐’와 ‘駐屯’의 빈도수 변화

	1890~99	1900~09	1910~19	1920~29	1930~39	1940~49
屯駐	4	4	-	-	-	-
駐屯	1	36	2	21	58	3

- ‘屯駐’의 1890년대 용례는 병렬코퍼스 이외에도 『国民小学讀本』(1895), 『西遊見聞』(1895),<sup>2)</sup> 『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7) 등에서 출현.
- ‘駐屯’은 아래의 예와 같이 독립신문의 1899년의 용례가 가장 빠른 예로서 20세기 초기 이후 용례<sup>3)</sup>가 급격히 증가하여 ‘駐屯’의 세력이 우세해짐.

- ▷ 商賈가 自由로 往來함을 어더 從來에 戒心顧慮를 免하고 其他 分隊를 各道에 屯駐케 候야 往來의 警察을 担任케 候며 因候야 貿易을 旺盛케 候니 是等<1895국민소학독본, 成吉思汗 二>
- ▷ 就候야 治療를 受候며 亂時를 當候야 軍士를 起發候거나 又 平時라도 要害地에 屯駐 候 則 兵部가 此 局의 医士를 派送候느니, 泰西 各國에 医術을 崇尚候는<1895서유견 문, 249p>
- ▷ 남아 전운) 아프리카 식민지 계부다운 쥬둔병의 일터가 바로 무후에긴구로 향候야 나 아가고 또 무도리두구시에서 유력候 일터가 라인구슈네두구에 나아가 잠간 시국의 성 흥 候을 기다리는 말을 계부다운에 전 候엿다더라<『독립신문』 1899년 9월 14 외보 4면>

‘駐屯’이 『韓仏字典』(1880, 리델), 『韓英字典』(1897, 게이일)에는 보이지 않다가 『韓英字典』(1911, 게이일)에서는 표제어로 등재되는 것도 위의 양상과 부합함.

2) 『국민소학독본』과 『서유견문』의 예는 각각 41과와 ‘第九編 義兵制度’에서 나타난 것으로 병렬코퍼 스에는 한일 대역된 단원 및 장이 아니어서 채용하지 않은 부분임을 언급해 둔다.  
3) 경향신문(1906-1907), 대한매일신보(1907), 대한자강회월보(1907), 대한협회회보(1908), 개벽(1920), 별건곤(1928), 동광(1932), 삼천리(1931-1941)

	한국어	일본어
고전	屯駐	
19세기말	屯駐	屯駐      駐屯
1910년	駐屯	駐屯
1940년	駐屯	駐屯
1970년	駐屯	駐屯
현재	駐屯	駐屯

## 4.2. ‘成長’과 ‘長成’의 대응양상과 변화

‘成長’과 ‘長成’은 병렬코퍼스의 ⑤유형으로 나타나며 각각 20회와 8회가 나타남. ‘成長’은 일본어에서 15회, 한국어에서는 5회가 나타나며, ‘長成’은 일본어에서 0회, 한국어에서만 8회 출현함. ‘成長’의 의미상 아래의 『新編博物学』에서 대부분 나타나며 다음은 대역어의 몇몇 대응 패턴에 대한 예시.

- ▷ <J>:初めは、明かに、その形状を認め難しと雖も、稍、成長するに至れば、黑白の斑紋ある鳥の糞の如き虫となるこの虫、漸次、成長するに従ひ、数回脱皮して、全身綠色に変わらず、これを幼虫といふ。/<K>:最初にその形状을確認기難하느니稍히長成하면黑白斑紋의鳥糞과如하小虫이되고漸次長成하야數回脱皮하면全身이綠色으로變하느니此를幼虫이라하며<자료4 <J>:第四章 チョー 蝶/<K>:第四章 蝶>
- ▷ <J>:その形、魚に似て鰓を以て呼吸し、柔なる水草を食して成長す。/<K>:其形은魚類に와恰似하야鰓로써呼吸하며柔軟하水草를食하고生長하느니<자료4 <J>:第五章 カヘル 蛙/<K>:第五章 蛙>

병렬코퍼스에서 일본어는 ‘成長’만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한국어는 그 대역어로서 ‘成長’, ‘長成’, ‘生長’이 출현함(‘成長-長成’ 6회). 그리고 ‘成長線’와 같은 파생어도 동일 대역으로 나타난 것도 단어의 정착 및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成長’, ‘長成’은 모두 중국 고전의 용례가 존재하며, 1860년 이전에도 한일 모두 용례가 출현한다. 단, 일본어는 아래의 역사코퍼스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이지 이후 ‘長成’의 예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현대어에서도 사용하지 않음. ‘長成’의 1860년 이전의 첫 용례는 『일본국어대사전』(제2판)에 의하면 『通俗赤繩奇縁』(1761)으로 아래의 예문과 같음.

- ▷ 通俗赤繩奇縁(1761)一・一回: 你が長成 (チョウセイ<注>セイシン)の時に至らば、必你が一生の造化を得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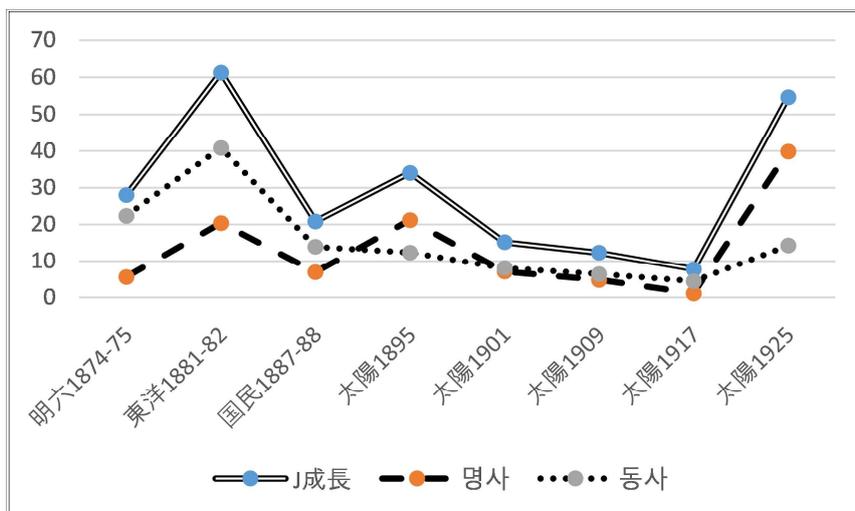
『通俗赤繩奇縁』은 중국의 명나라 小説 「醒世恒言」卷三(「古今奇觀」卷七)의 「売油郎独占花魁」를 번역한<sup>4)</sup> 책으로 중국어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長成’에 대한 주석으로서 ‘セイシ」도 주목할 필요 있음. 즉 일본어의 대역어로서 정착하지 않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セイシ」(成人)으로 주석을 달았기 때문임.

한편 ‘成長’는 『今昔物語』(1120)부터 용례가 있으며 많은 고사전(色葉, 易林, 日葡, 書言, 베본, 言海)에도 등재되어 있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成長’, ‘長成’의 CHJ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그리고 그림1(‘成長’의 전체 빈도, 명사·동사 용법의 내역)은 각 연대의 크기가 다름에 따라 상대빈도(100만 단어당 조정빈도(PMW), 연도별 코퍼스 크기 2-1)조사자료 참조)로 빈도수를 제시한다.

〈표 5〉 일본어의 ‘成長’, ‘長成’의 빈도수 변화

	明六 1874-75	東洋 1881-82	国民 1887-88	太陽 1895	太陽 1901	太陽 1909	太陽 1917	太陽 1925
長成	0	0	0	0	0	0	0	0
成長	5	12	21	69	30	23	14	111
└명사	1	4	7	43	14	9	2	81
단독	1	4	5	38	10	9	2	52
파생	0	0	0	2	1	0	0	8
복합	0	0	2	3	3	0	0	21
└동사	4	8	14	25	16	12	8	29
연체수식	0	0	3	1	0	2	4	4

〈그림 1〉 일본어의 ‘成長’(명사, 동사용법)의 빈도수 변화



4) <https://jiten.eu/article/105834>

- ‘成長’: 증감 추세는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상당량 사용.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이 메이지 초기와 중기에서 역전된다는 점이다. 현대어로 이행함에 따라 ‘成長’의 명사용법이 증가한다는 것
- 한국어의 경우는 홍윤표(2012)의 ‘15세기~20세기 전체’를 대상으로 한 ‘成長’과 ‘長成’의 조사에 따르면 각각 6예, 40예로 ‘長成’이 우세함<sup>5)</sup>.
-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표6)를 확인하면 ‘1900-09’년대 이후 ‘長成’보다 ‘成長’이 현저하게 우세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長成’은 증감 현상 없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음.

〈표 6〉 한국어의 ‘成長’, ‘長成’의 빈도수 변화

	1880-89	1890-99	1900-09	1910-19	1920-29	1930-39
<b>長成</b>	<b>0</b>	<b>53</b>	<b>99</b>	<b>13</b>	<b>69</b>	<b>69</b>
└명사	0	1	11	0	2	4
단독	0	0	4	0	1	2
파생	0	0	2	0	1	1
복합	0	1	5	0	0	1
└동사	0	52	88	13	66	64
연체수식	0	31	35	3	29	26
<b>成長</b>	<b>0</b>	<b>1</b>	<b>124</b>	<b>6</b>	<b>136</b>	<b>280</b>
└명사	0	0	65	3	59	137
단독	0	0	43	2	47	94
파생	0	0	11	0	3	9
복합	0	0	11	1	9	34
└동사	0	1	56	3	77	142
연체수식	0	0	17	1	12	13

그리고 ‘長成’과 ‘成長’의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을 확인하면 첫 번째로 ‘長成’은 동사 용법이 압도적인데 반해서 ‘成長’은 명사 용법과 동사 용법이 상당히 유사한 사용율을 나타나는 것이고, 둘째는 ‘長成’과 ‘成長’의 동사 용법 중 연체수식에 차이가 보이며 ‘長成’은 연체수식 용법이 특징으로서 193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임. 즉 小松英雄(2001)가 지적한 것과 같이 유의어가 존재할 시에 서로 의미 및 용법을 나누어 사용한 현상을 ‘長成’과 ‘成長’의 명사, 동사 용법, 그리고 동사의 연체수식 비율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음. 19세기 말

5) 근대어 이종어 사전을 확인하면 ‘長成’은 韓英字典(1897)과 韓英字典(1911)에 표제어(1.To grow up, 2. to become a man)로 등재되어 있지만, ‘成長’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일본어의 ‘成長’에 대해 한국어의 ‘長成’이 대역어로 채용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임.

	한국어		일본어	
고전	長成	成長	長成	成長
19세기말	長成	成長		成長
1910년	長成 ≒	成長		成長
1940년	長成 ≒	成長		成長
1970년	長成 ≒	成長		成長
현재	長成 ≒	成長		成長

# 일본취업연수기관의 실태조사 및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이윤정(구미대학교)

지정토론 : 이명영(경남대학교)

## 1. 서론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부 지원으로 일본취업 연수기관이 선정되어 일정의 교육을 마치고 기업면접과 채용시험을 거쳐, 일본으로 취업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부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K-move스쿨이나 청해진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연수기관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해서 글로벌 산업 역군으로 일하고 있다

국내의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취업처가 부족해진 지금이야말로 일본 취업이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해외취업에 관한 연구는 해외취업자의 특성 분석이나 취업 방법론, IT분야 취업을 위한 일본어 교육,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어휘분석 연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해외취업자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으로 취업자의 취업국, 연령, 성별, 학력, 전공분야 등에 대한 통계가 연구되어 왔다.

민병희(2019)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취업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4개국의 취업자 특성을 분석하였다. 2013-2017년의 5년간의 해외취업 자료를 통해 취업국가, 취업자의 연령, 성별, 학력, 전공계열, 업체분류, 직업분류, 비자타입 등의 분석결과를 통해 해외로의 취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최병기(2010)는 해외취업사업을 통계적, 경영학적 기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전략 발굴의 여지가 많은 청년층 국가 간 교류사업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을 제공하였다. 2003년-2007년의 해외취업자 현황을 국가별, 직종별, 연령별, 성별, 학력별로 분석하였으며, 해외취업과정

의 성과와 문제점 및 장애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각 분야의 일본취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어휘분석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운정(2019)은 IT업계로 진출할 청년들의 일본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基本情報技術者試験』의 10년간 기출문제 어휘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어휘는 명사, 동사, な형용사, い형용사, 부사에 한정하여, 각 품사별로 상위 20위, 50위, 100위 내의 어휘의 커버율을 확인하였으며, 각 품사를 어종별로 분류하고, 일본국립국어연구소의 『日本語教育のための基本語彙調査』 데이터를 토대로 기본어휘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방대한 양의 전문어휘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휘학습 방법을 제시함은 물론, 관련분야의 어휘를 출현횟수가 많은 어휘부터 순서대로 습득시킴으로써 일본취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병휘(2019)와 최병기(2010)는 해외취업자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운정(2019)는 해외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공분야의 어휘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일본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5년간의 해외취업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기취업자와 취업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연수과정의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자 및 취업처의 만족도 높은 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일본 기업으로 취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일본기업취업자들은 대학이나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일본어 교육과 전공기술교육을 습득하여 취업하게 된다.

이런 연수기관들은 일본의 기업들과 사전에 취업 약정을 맺고 연수생들은 일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기업면접과 채용시험을 통과하여 회사로부터 내정을 받게 된다. 연수기관은 대학이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같은 학교 기관도 있고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직업전문학교나 기업들도 있다.

이러한 연수기관은 교육 기간이나 교육 분야, 교육내용, 연수 인원, 연수생 선발 기준 등 기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산업인력공단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해외취업 연수기관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연수기관별, 연수과정별, 교육프로그램별 연수참여자 수, 연수기간 및 수업시수 등을 조사하고 조사된 사항을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상황과 실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실제 운영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의 전체 연수 시간 및 과목별 세분화된 연수시간과 과목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통계를 통해 일본취업 연수기관에서의 매뉴얼을 만듦으로써 연수기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취업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일본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일본의 기업을 조사하여 업무분야, 한국인 취업자 수, 한국인 취업자의 주된 업무, 복지혜택, 채용 시 가장 중점을 두는 항목, 회사

가 요구하는 전공 기술력과 일본어 실력, 연수과정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조사한다. 또한, 일본의 기업에 취업한 취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업분야, 비자종류, 근무지역, 연봉, 업무만족도, 취업 당시의 본인의 전공실력 및 어학실력, 연수과정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설문조사한다. 이와 같은 조사는 연수기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취업률 향상과 취업자들의 실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일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일본취업과정을 운영하는 연수기관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K-move스쿨이나 청해진대학 등의 연수사업을 통해 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최근 5년간의 연도별로 일본취업프로그램 운영기관, 전공분야, 연수인원 등을 조사 분석을 통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되는 일본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상황과 실태를 살펴본다.

둘째로, 실제 K-move스쿨이나 청해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몇 곳 선정하여 전공분야별로 연수참가 인원수, 전체 수업 시수, 과목별 수업 시수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일본취업에 대한 매뉴얼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을 채용하는 공고를 내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자의 일본어 수준, 나이, 전공 등에 대한 채용 자격이나 업무분야, 지역, 기업 복지 등을 조사하고, 한국인 일본 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1)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되는 일본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상황과 실태

최근 5년간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K-move스쿨과 청해진대학을 조사하여, 연도별, 교육기관별, 과정별, 교육분야별로 과정 수와 참가인원수를 파악한다.

#### ① 최근 5년(2015-2019)의 일본취업 연수기관 조사

일본취업 연수기관을 학교와 교육업체로 나누고, 학교는 대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업체는 직업학교와 기업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수과정 및 연수기간에 따른 연수생 조사

연수과정은 K-move스쿨과 청해진대학으로 나누어 연수생을 조사한다. K-move스쿨은 우수과정과 일반과정으로 나누고, 연수기간별로 장기연수와 단기연수로 나누어 연수생을 조사한다.

③ 연수과정의 교육분야별 연수인원

교육분야는 기계·자동차분야, IT분야, 관광분야, 종합사무직, 그 외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본 취업을 위한 연수기관, 과정의 종류, 교육분야, 연수인원, 취업자 현황 등의 조사를 통해 연수기관들은 교육과정 선정에서 교육분야, 연수기간, 연수인원을 산정할 때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고, 연수생은 본인의 희망 분야의 취업을 위해 연수기간, 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분석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학 및 민간 연수과정을 선정하여 실제적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성과 자료를 수집한다.

\* 실제 연수과정의 실태 조사

- ① 연수과정 구분
- ② 연수생 선발 기준(연령, 전공 등)
- ③ 연수분야(직무, 일본어)
- ④ 연수과정 참여 인원 수
- ⑤ 연수시수 및 과목별 교육시수

위와 같이 전공분야별로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계하여 전공분야별 일본 취업 연수기관의 매뉴얼을 작성한다.

모든 연수기관은 연수생들의 안정적인 성공적인 일본취업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연수생을 지도하고 있다. 보다 질 높은 교육, 취업 등을 위해서는 연수기관들끼리의 정보 교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수기관들의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은 큰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어떤 기관에서 어떤 연수생을 교육하게 되더라도 각 연수과정별로 연수생들의 연수기간은 몇 개월이 적합한지, 한 과정의 연수생 인원수는 몇 명이 적합한지, 연수생들의 연수과정 개시 전 어학 레벨에 따른 어학교육 시간은 몇 시간이 적합한지 등에

관한 매뉴얼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기업으로의 취업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글로벌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연수생과 연수기관에 더 많은 취업성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다.

### 3) 설문을 통한 기업과 취업자들의 요구를 분석

국내 연수기관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연수생들은 연수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기업으로의 취업, 취업박람회 면접을 통한 취업, 직접 일본 기업의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취업을 하고 있다.

연수생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즉 인성, 기술력과 어학력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을 기계·자동차분야, IT분야, 관광·서비스분야, 종합사무분야 등 전공분야별로 20곳 정도 조사하여 한국인 근로자 수, 업무내용, 기업복지, 회사 만족도, 연수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일본기업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취업분야, 업무내용, 회사 복지, 근무지, 근무연수, 실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 연수과정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설문 조사한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을 통한 통계는 연수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취업률 상승과 취업 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업과 취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요구와 취업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과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기업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기업과 실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어학력, 인성교육 등을 통해 연수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다.

국내 연수기관에 전공분야별 일본의 기업을 소개하고, 또한 일본 기업에 국내의 연수기관을 소개하여 일본 취업의 문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기업의 설문과 취업자 설문뿐만 아니라, 연수생들이 일본기업과 취업자에게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문 조사하고, 결과를 잘 반영하여 연수기관, 연수생, 취업자, 기업이 순환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진출한 일본기업, 일본이 투자 또는 합작한 국내기업, 일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등을 조사하여, 연수과정에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연수생들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 4.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K-move스쿨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외취업 연수기관을 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move스쿨은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과정과 단기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전공분야의 전문 기술을 익히고, 상급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청해진대학이다. 청해진대학은 저학년에서부터 천천히 해외취업을 준비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언어력으로 보다 우수한 실력을 갖추어 해외취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많은 연수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일본 기업에 취업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외 취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연수기관은 연수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수생들의 능력에 맞는 최선의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연수기관별, 연수과정별, 전공분야별 연수인원을 조사하고 연수기간 및 연수 시수 등을 조사하여, 취업자 현황을 분석하여,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일본 취업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는 연수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연수과정의 종류 및 연수분야, 참여인원수, 어떤 교육과정을 개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공과목, 전공시수, 어학시수 등과 같은 과정별 연수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조사와 취업한 연수생 설문 등을 통해 기업과 취업자와 연수생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연수과정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는 물론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업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 취업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실시하고, 그것이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수생들의 일본취업의 역량강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로의 일본취업 목표를 달성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2017) 『해외취업 완전정복-일본』 펄플
- 모리타마모루(2013) 『일본기업에 취직하기』 시사일본어사
- 문필선(2020) 『IT분야 진출을 위한 일본어 교육 - NCS기반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 고려

대학교

- 민병휘(2019)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취업자 특성 분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이미숙(2017) 『해외취업 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이윤정(2019) 「일본 IT분야 어휘분석연구 - 『基本情報技術者試験』의 10년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 『일본어교육연구』47집, 한국일어교육학회
- 전윤선(2010) 「일본 IT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접근법 고찰 - 사례 중심으로 방법론적인 고찰 -」 『일본문화학보』47집, 한국일본문화학회
- \_\_\_\_\_ (2018) 『대학의 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국내 및 일본취업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 최병기(2010) 『해외취업사업의 미래전략 방법론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월드잡플러스 <https://www.worldjob.or.kr/abGuide/jobView.do?menuId=1000000031#none>(검색일 : 2020.04.03.)

# 한국과 일본의 도시에 투영된 언어문화자본

이순형(영남대학교) · 이승민(계명대학교) · 손미정(경북대학교)  
지정토론 : 이현정(금오공대)

## 1. 연구목적 및 배경

- 프르지오, 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래미안, THE SHARP 등 도시공간과 네이밍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들은 바로 국내 대기업에서 앞 다투어 내세우고 있는 기업 브랜드명으로,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이미지를 결정하는 문화자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세계에 K 바람이 분다-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주목한 우리말” 한국어 사전에는 없는 치맥(Chimaek), 삼겹살(Samgyeopsal), 대박(Daebak), 떡방(Mukbang) 등이 등재되었다.<sup>1)</sup> 특히 ‘떡방’은 한국 표기법에 따른 ‘Meokbang’이 아니라 세계인이 발음하기 쉬운 ‘Mukbang’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문화 관련 단어가 영어사전에 등재됨에 따라 한국어가 세계 속에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 아래 그림 1~3의 「チメック」「대박」「サムギョプサル」은 일본의 쓰시마, 후쿠오카, 도쿄 지역에서 직접 조사한 것으로, ‘문화자본’으로서의 한국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사진 1〉 치메ック(쓰시마)



〈사진 2〉 대박(후쿠오카)



〈사진 3〉サムギョプサル(도쿄)

1)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11/1105334/>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등재된 한국어 26개 (2021.10)

- 이에 본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시 공간에 산재하는 언어문화자본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도시의 지역 언어문화 및 다언어의 사용양상과 역할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 ① 지역어의 시장 상품화 및 다언어로서의 지역어
- ② 판매촉진전략 및 배리어 프리 기능으로서의 다언어표기
- ③ 언어문화자본에 나타난 正·負의 가치

## 2. 지역어의 시장 상품화 및 다언어로서의 지역어

### 2.1 지역어의 시장 상품화

일본에서는 齋藤(2020), 롱그(2020) 등 도시의 언어경관을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언어 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립국어원(2014)을 중심으로 지역의 언어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방언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상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국가적 규모의 연구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실제 한국과 일본의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어가 시장 상품화되어 언어문화자본으로 활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4>는 한림매일시장, 제주의 동문시장(구제주), 제주중앙 지하상가 등과 일본 시코쿠의 고치(高知) 등에서 「이거 얼마우파? 요거~만원인디이~», 「土佐の高知にはこじゃんと旨い地酒があるぜよ」과 같이 시장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어는 지역 특산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제파급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사진 4> 지역어의 시장 상품화의 일례

## 2.2 다언어로서의 지역어

종래 다언어에 관한 연구는 국제화의 추세에 힘입어 외국인에게 언어서비스나 배려라고 하는 역할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지역의 언어문화가 글로벌 언어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홋카이도의 아이누어 「イランカラプテ」나 제주의 지역 언어문화 「통시」, 「흔저읍서, 하여볶서, 쉬영갑서예」 등이 그 일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어가 언어문화자본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사진 5〉 다언어의 하나로서 지역 언어문화

## 3. 판매촉진전략 및 배리어 프리 기능으로서의 다언어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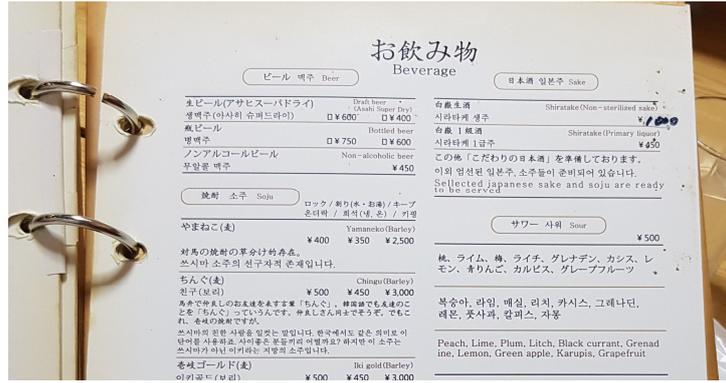
외국인 여행자, 외국적 주민 등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할 필요가 있을 때 다언어로 표기하게 된다. 다언어표기는 그 지역의 언어문화를 외국인과 함께 공유,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 3.1 판매촉진전략으로서의 다언어표기

다언어로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수신자로 하여금 상품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된다. 〈사진 6〉에서는 ‘갈비만두’에 해당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표기를 사용하였고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추가하였다. 〈사진 7〉은 ‘야마네코(麦) 쓰시마 소주의 선구자적 존재입니다’, ‘친(麦) 쓰시마의 친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죠. 사이좋은 분들끼리 어떨까요?’와 같이 음식점의 주 이용고객인 한국인을 배려하여 구체적인 한국어 설명도 곁들임으로써 판매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사진 6〉 한국의 메뉴판(서울)



〈사진 7〉 일본의 메뉴판(쓰시마)

### 3.2 배리어 프리 기능으로서의 다언어표기

배리어 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벽을 없애자고 하는 시책, 혹은 장애를 없앤 상태를 가리킨다. 언어의 관점에서 배리어는 존재하는데, 언어의 배리어 프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장애를 없앤다는 개념으로, 정보약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언어표기의 예는 〈사진 8〉과 〈사진9〉와 같다.



〈사진 8〉 화장실 안내(제주)



〈사진 9〉 화장실 문 사용법(교토)

## 4. 언어문화자본에 나타난 正・負의 가치

자국의 방언을 포함한 다언어를 문화자본으로 녹여 낸 다양한 유형, 무형의 상품 개발은 해당 상품의 시장성 고양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재고 및 그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브랜드로

서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다양한 상품설명과 주의, 안내문 등에서 언어의 문화자본으로서의 역할이 중대하다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관광지의 상품설명, 안내, 주의 표현을 중심으로 문화자본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일본어표기 및 표현을 고찰한다. 이때 발신자의 외국어 메시지가 해당 외국인 수신자에게 적확하게 전달되어 도움이 되는 경우를 [正의 가치], 발신자의 의도와는 달리 수신자에게 오해의 소지를 유발시키는 경우를 [부의 가치]로 정의한다.

#### 4.1 正의 가치

어떤 지역의 상품 설명, 안내, 주의문 등에 사용된 다언어 메시지가 해당 외국인에게 적확하게 전달되어 제품의 시장상품성을 높이거나 기업의 이미지, 지역의 이미지 재고에 긍정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진 10> 제주 연동시장의 호떡 포장마차의 정성이 담긴 일본어로 번역된 상품 설명. (<사진 11> ‘주 메뉴’라는 직역 대신 영어의 ‘主食’에 해당하는 스테이플[staple]을 한국어로 찾아 적어 둠. <사진 10>, <사진 11> 해당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려는 발신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된 正의 효과)



<사진 10> 호떡포장마차(제주)



<사진 11> 스테이플 메뉴(후쿠 오카)

#### 4.2 負의 가치

어떤 지역의 상품 설명, 안내, 주의문 등에 사용된 다언어 메시지가 발신자(발신주체)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외국인 수신자에게 다소의 거부감과 당혹감 등을 유발시켜 시장성과 기업 및 지역의 이미지 재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진 12〉 문열림 버튼(제주)



〈사진 13〉 유부주머니(부산)

〈사진 12〉 문열림 버튼의 [~할 때]의 의미인 ‘~시時’ → ‘し’로 한자음 발음으로 표기된 예. 〈사진 13〉 ‘유부 주머니’를 ‘유부(有婦=所帶持ち) + 주머니(ポケット)’라는 사전적 의미로 잘못 표기되어 당혹감 유발. 〈사진 12〉, 〈사진 13〉은 발신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오해 및 당혹감을 느낄 수 있는 負의 효과로 작용)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14) 『2014년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국립국어원, 경북대학교
- 이순형(2017) 「언어경관에 나타난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의 가능성」 『일본 토대 연구 자료집』 준비호, pp.30-34, 경북대학교 일본연구센터
- あべ・やすし(2020) 「観光と言語のバリアフリー」 山川和彦(編) 『観光言語を考える』 pp.153-169, くろしお出版
- 李舜炯・李賢貞(2020) 「言語接触からみた日韓隣接地域の言語景観」 『日本語学研究』 66, pp.117-134, 韓国日本語学会
- 大橋理枝, 롱그・다니엘(2011) 『日本語からたどる文化』 NHK出版
- 斎藤敬太(2020) 「観光資源としてのことば-日本国内の活用事例を中心に-」 『日本語学』 39-3 pp. 118-127 明治書院
- 長谷川由起子・柿原武史(2020) 「外国人観光客への真の「おもてなし」」 柿原武史・上村圭介・長谷川由起子(編) 『今そこにある多言語なニッポン』 pp.89-101 くろしお出版
- 롱그・다니엘(2020) 「北海道における文化的観光資源としての言語-言語景観で活用される北海道方言とアイヌ語-」 『韓国日本語学会第41・42回国際學術大会論文集』 pp.123-126, 韓国日本語学会

# 일본문학



#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그 이야기의 원형

-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을 중심으로 -

강윤경(경북대학교)

지정토론 : 이은희(계명대학교)

## 1. 들어가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1949~, 이하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1987)은 하루키의 많은 장편소설들 가운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독자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서 문학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동안 많은 독자들이 이 작품을 찾았다는 것은 그 만큼 작가에 의해 조형된 등장인물들이 갖는 개성과 매력이 작품 안에 잘 녹아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문예비평가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빈부의 격차가 고착화된 일본 사회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작가가 된 것은 몇 안 되는 일본의 자부심으로 소비되고 있기도 하며 하루키는 현재 일본 문화 내셔널리즘의 중심에 서 있다<sup>1)</sup>고 말하고 있다. 하루키의 일부 작품에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sup>2)</sup> 고모리 요이치의 이러한 언급은 일본 안에서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1935~, 이하 오에)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하루키의 문학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즈미 요시노리(清水良典)는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이 발표된 1987년 이후 하루키는 일종의 출판업계의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다. 두 평론가의 언급은 하루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소비’, ‘브랜드화’라는 단어의 뉘앙스 속에는 웬지 하루키 작품을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으로 보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異論)을 만들어낸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은 일본문학사를 넘어 세계문학사의 틀 안에서 미증유(未曾有)의 반향을 일으킨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1) 고모리 요이치(2007) 『무라카미 하루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pp.5-6.

2) 고모리 요이치는 하루키의 작품 중 인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국 타임즈가 ‘올해의 베스트10’에 선정한 『해변의 카프카』의 치유논리가 과거 일본이 행한 전쟁의 만행을 은폐하고 우익 이데올로기를 견고히 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風の歌を聞け)』(1979)에 시작으로 『노르웨이의 숲』까지 하루키의 초기작품들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정서는 지나간 시대에 대한 상실감과 비애, 망자들을 향한 진혼곡이 한줄기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며 하루키 문학의 한 축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작품이 예상치 못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사실을 차지하고도 『노르웨이의 숲』이 가지는 유의미한 또 다른 이유는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베일에 가려 있던 불문과 여학생이 『1973년의 핀볼(1973年のピンボール)』(1980)에서는 나오코(直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노르웨이의 숲』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키 초기소설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나오코는 『노르웨이의 숲』에서 죽음으로 인해 하루키 문학의 초기소설의 흐름을 완성하며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논자는 나오코라는 등장인물이 작가인 하루키에게 있어 원형이 되는 인물로 자신의 소설 안에서 조형화 되어야만 했던 인물이었으며 더불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며 하루키만의 이야기하기와 글쓰기의 구조를 분명하게 구현해 냈다고 생각한다.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의 선행연구를 보면 조주희 씨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나오코와 레이코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와나타베를 카운슬러(counselor)로서의 역할로 보았고,<sup>3)</sup> 이은례씨는 하루키 문학의 대표적 키워드인 이(異)공간, 이계(異界)를 나오코와 레이코가 살고 있던 교토의 산골에 있던 요양원 ‘아미료(阿美寮)’ 설정하여<sup>4)</sup> 『노르웨이의 숲』을 연구하였다. 문학적 평가가 대극적 위치에 있던 오에와 하루키의 텍스트를 비교분석한 조현구 씨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sup>5)</sup> 그 이유는 지식인층이 지지하는 오에의 작품과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하루키의 작품을 텍스트로서 기준을 삼고 객관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르웨이의 숲』의 나오코에 대한 여러 연구를 보면 그녀가 죽음(死)의 세계를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는 듯하다.

일본의 연구에서 논자가 주목한 것은 마츠모토 겐이치(松本健一)의 연구이다. 그는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에서 등장했던 아미료라는 공간은 도시생활에서 도태한 자들, 현대문명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자기치유를 위한 공동체로 의미를 두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 간에 있어야 할 소통이 지속적으로 부재할 때 『1Q84』(2009)에 등장하는 컬트집단(옴진리교)이 형성되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sup>6)</sup> 그의 지적은 치료를 위해 모여 있던 작은 집단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대한 종교집단으로 변형해 나갔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루키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한 일본의 사회 저변에 흐르는 우울한 현상들을 직시해 자신의 소설로 일그러진 일본사회의 시대의 초상(肖像)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趙柱喜(2011) 「告白する彼女たち—『ノルウェイの森』の中で—」 日本近代文学関西支部, pp.161-170.  
 4) 이은례(2019) 『『노르웨이의 숲』에 그려진 도시와 이공간』 《日本学研究》 第58輯  
 5) 조현구(2015) 「오에와 하루키, ‘이야기하기’를 통한 서사구조의 비교문학적 연구」 日語日文学, 第66輯 pp.351-370.  
 6) 松本健一(2010) 『都市小説から世界文学へ』 第三文明社, pp.84-133.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키 『노르웨이의 숲』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하루키의 글쓰기와 이야기하는 구조에 한정하기로 한다. 국내에서는 초기작품에서 『1Q84』까지 아우르는 이야기 구조와 글쓰기 구조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며 그것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나오코와 돌격대, 미도리, 등 언어장애를 가진 인물들이 표상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 2. 하루키 초기문학과 이야기의 구조

하루키가 등단 할 당시 오에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식인문단에서는 하루키의 데뷔작을 시작하여 초기삼부작을 미국소설을 흉내 낸 가벼운 소설이라고 치부하였다. 물론 글쓰기의 형식만을 보았을 때 그러한 비판은 일견 틀리다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루키의 이야기 속에는 ‘보이는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이야기’ 즉, 두 이야기가 혼재하고 있다. 행간 사이 숨어 있는 비유와 암시를 지나쳐 버리면 이야기 저변에 흐르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 낼 수 없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의 경우 주인공 「나」와 「손가락이 네 개 밖에 없는 여자」가 얼핏 사랑하는 남녀관계로 보이지만 작품 속에 암시되는 부분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보면 이야기 속에는 「쥐」와 「손가락이 없는 여자」의 사랑이야기가 각색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의 숲』의 경우 작가는 100% 연애소설로 읽어 달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야기 이면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자기치유와 구제를 위한 이야기가 발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신관계의 글쓰기 방법은 초기작품뿐만이 아닌 하루키 전 작품들을 아우르며 구현되는 것을 볼 때 하루키의 글쓰기 방법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틀 안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조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삼부작에서 「나」와 「쥐」의 분신관계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끝과 하일드보드 원더랜드(世界の終わ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1985)에서 「僕」와 「私」의 분신관계구조가 이어진다. 이후, 『해변의 카프카(海辺のカフカ)』(2002)의 경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누나와 관계를 갖는다는 오이디푸스적 이야기 안에서 다무라 고이치(카프카 아버지)와 조니워커의 분신관계, 카프카 소년과 나카타 노인 역시 분신관계를 조형해 내고 있으며 『1Q84』에서도 덴고(天吾)와 아오마메(青豆)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는 에로스적 분신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1Q84』의 덴고(天吾)와 아오마메(青豆)는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자아가 통일되는 헤피엔드의 이야기라는 것이 전작들과 구분될 수 있겠다. 이렇듯 하루키 문학의 전체를 넘나들며 분신적 구조의 글쓰기는 일본인의 많은 평론가들에게 정설이 되어 가는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

### 3. 『노르웨이의 숲』의 이야기 구조

이야기(narrative)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사건을 줄거리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의미 질서를 생성해 내는 인식과 서술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자신이 자기 이야기하는 가운데 위치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 자기를 유의미한 존재로서 구성하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sup>7)</sup>는 언급에서 『노르웨이의 숲』의 나오코 역시 자신의 이야기 즉, 내면의 문제를 와타나베에게 이야기하는 행위에 의해 자기존재를 확인하고 자기 구제의 방법을 탐색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 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와타나베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결연한 호소를 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장편소설이 「반딧불이(螢)」라는 단편소설을 원형으로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하루키의 여러 장편들은 역시 그의 단편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다. 유일하게 『세계의 끝과 하일드보드 원더랜드(世界の終わりとハードボイルド・ワンダーランド)』의 원형인 단편 「その不確かな壁」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실패한 단편으로 완성된 『세계의 끝과 하일드보드 원더랜드』로 하루키 일본에서 권위 있는 다니자키 준이치로상을 수상하게 된다. 하루키의 소설들 중 문학적으로 성공한 작품들에서 조형된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급속하게 변해가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고독을 느끼며 사회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인물, 결혼을 하지만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는 소시민적인 남성, 그리고 마음의 병을 극복하지 못한 인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은 시대와 사람들과 소통이 좌절되고 사회에 링크되지 못하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한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신분석학자인 사이토 타마키(齊藤環) 씨는 1990년대 무라카미 하루키가 반복하여 그린 특이한 모티브가 ‘트라우마와 해리(解離)’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리(解離)란 인간의 마음에서 시간적·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일이며 스트레스를 느끼는 마음의 부분을 몽땅 도려내어 구석으로 밀어 놓는 몸짓이다’라고 말하고<sup>8)</sup> 있다. 사이토 타마키의 언급처럼 하루키의 소설적 모티브는 트라우마와 해리로 인한 정신 병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반면, 작가인 하루키는 『노르웨이의 숲』을 100% 연애소설, 리얼리즘의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애소설로 보았을 때, 나오코와 기즈키, 와타나베의 삼각관계와 나오코, 미도리, 와타나베의 삼각관계가 대치를 이루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중구조로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등장인물인 기즈키, 나가사와, 돌격대, 레이코, 미도리 등 모두가 병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조주희 씨가 와타나베를 나오코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운슬러

7) 鈴木智之(2009) 『村上春樹と物語の条件』 青弓社、p.52

8) 고모리 요이치(2007) 『무라카미 하루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p.10.

(counselor)로 규정한 반면, 남부진 씨는 와타나베는 나오키의 분신이며 와타나베 역시 병리적 결손자로 규정하고 있다.<sup>9)</sup> 남부진 씨가 와타나베를 나오키의 분신으로 보는 근거는 와타나베가 나오키와 미도리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나오키가 죽은 후 와타나베가 한 달 넘게 한 방랑여행은 자신의 정신 병리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을 치르는 기간이었고 이 의식을 마친 후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돌아 갈 수 있었다고 논하고 있다. 엔도 신지(遠藤伸治) 씨의 나오키와 미도리가 분신관계<sup>10)</sup>라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사고하는 것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나오키의 언어장애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성적 환상을 거침없이 남성인 와타나베에게 홍수처럼 쏟아내는 미도리의 언어는 나오키와는 대극적이지만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오키와 미도리의 분신관계설정은 미도리는 생(生)을, 나오키는 죽음(死)을 표상한다는 기존의 정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노르웨이의 숲』이 100% 연애소설이라는 작가의 말보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치유와 구제를 갈구하며 분신관계, 동시적 존재로서 서로의 결핍을 상대화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결론으로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나오키’와 ‘돌격대’ 그리고 ‘미도리’ 인물의 조형

작품 속 나오키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즈키가 자살을 하고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인다. 최근에는 분열증이란 의학용어 대신 조현병이란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나오키의 경우 초기 증상은 언어장애였다. 여기서 언어장애란 자신의 사고를 언어화해서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기즈키의 의문의 자살이 나오키의 정신적인 병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나오키의 언니가 나오키가 6세 때 목을 매고 자살을 한 점. 나오키의 숙부(叔父)가 자살을 한 것에 대해 나오키의 아버지는 나오키의 죽음이 가족의 유전적인 문제일거라고 하는 추측하는 부분이 나온다. 즉, 나오키의 정신 병리적 문제는 기즈키의 자살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유전적으로 잠재해 있던 나오키의 병이 기즈키의 자살이 동기가 되어 발병했다고 유추 할 수 있다. 아니면 기즈키의 자살 이전 기즈키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한 시점부터 나오키는 이미 정신과 육체의 괴리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을 수 있고 기즈키 자살의 동기 역시 육체적 사랑을 나오키와 공유할 수 없다는 좌절에서 생겨났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에서 나오키와 더불어 또 한 사람의 언어장애를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독자들에게도 웃음을 주며 사랑을 받았던 와타나베의 룸메이트 돌격대이다. 텍스트에 묘사된 돌격

9) 南富鎮(2019) 『村上春樹精神の病と癒し』 春風社, pp.197-229.

10) 遠藤伸治(1991) 『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論』 近代文学試論』 広島大学近代文学文学研究会

대는 언어장애뿐만 아니라 결벽증,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논자는 돌격대와 나오코를 언어장애를 가진 같은 병리적 결손자로 보며 작품 속에서 돌격대가 와타나베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은 나오코의 죽음을 암시하는 비유로서 해석한다. 그리고 나오코와 ‘아미료’라는 공간과 돌격대와 ‘기숙사’라는 공간에 주목한다. 하루키 문학에서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공간은 폐쇄성을 나타내며 주인공들은 그 폐쇄적 공간에서 탈출하여 개방적인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나오코 역시 와타나베를 통해 폐쇄적인 아미료에서 개방적 현실세계에 들어가고자 노력을 했다. 나오코는 기즈키가 살아 있을 때부터 둘만의 폐쇄적 관계 안에 있었다. 기즈키의 죽음으로 인해 폐쇄적이었지만 완전했던 세계가 파괴가 되고 나오코는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 나오코가 와타나베를 사랑했기 때문에 와타나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병리적 문제 즉, 현실세계(정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와타나베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노르웨이의 숲』이 100% 연애소설이 아니라 정신적 결손자가 자기치유와 구제를 갈망하는 이야기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돌격대와 ‘기숙사’를 보고자 한다. 돌격대는 지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지리원에 들어 갈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복장과 태도가 단정한 와타나베의 룸메이트이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를 보인다. 즉, 자신이 사고하는 것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언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또래의 젊은 남성들과는 다르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돌격대라는 명칭도 그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와타나베와 돌격대가 같이 살았던 기숙사는 실제 도쿄에 존재하는 和敬塾이라는 공간으로 하루키가 와세다대학을 다닐 때 살았던 곳이다. 이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와는 달리 정치·경제계 거물의 별장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야기 속에 묘사된 것처럼 국기계양대가 실제로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sup>11)</sup> 주목하는 것은 돌격대라는 인물과 이 기숙사에 닮은꼴이라 하겠다. 이 기숙사의 특이한 점은 아침 6시면 국기(일장기)가 올라가는 의식이 행해지고 저녁에도 같은 형식으로 장중하게 국기를 하강하는 의식이 치러진다는 것이다. 국기가 올라가는 시각에 돌격대는 아침체조를 한다. 돌격대의 아침체조는 국기가 계양될 때의 엄숙함이 갖추어져 있으며 장엄한 의례와 같다. 기숙사의 국기계양과 돌격대의 아침체조는 일본의 국가주의(보수, 우익)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인다. 돌격대는 당시 젊은 세대들과는 소통할 수 없는 시대에 뒤처지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로 어느 날 갑자기 기숙사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작품에서도 사라진다. 돌격대의 사라짐은 나오코의 자살과 같은 의미로 현실세계에서 시대와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병리적 인물의 좌절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宮脇俊文((2006) 『村上春樹ワダンーランド』 株式会社いそっぷ社, pp.80-88.

## 5. 나오며

### 참고문헌

#### 【텍스트】

村上春樹(1990) 『村上春樹全作品1979~1989⑥』 講談社

#### 【참고문헌】

이은례(2019) 「『노르웨이의 숲』에 그려진 도시와 이공간」 《日本学研究》 第58輯 pp.179-197.

조현구(2015) 「오에와 하루키, ‘이야기하기’를 통한 서사구조의 비교문학적 연구」 日語日文学, 第66輯 pp.352-370.

趙柱喜(2011) 「告白する彼女たち-『ノルウェイの森』の中で-」 日本近代文学関西支部、 pp. 161-170.

勝原晴希(2017) 「多くの祭りのために-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を読む-」 駒沢国文、 54

고모리 요이치(2007) 『무라카미 하루키론』 고려대학교출판부 p.10.

鈴木智之(2009) 『村上春樹と物語の条件』 青弓社、 p.52.

南富鎮(2019) 『村上春樹精神の病と癒し』 春風社、 pp.197-229.

宮脇俊文((2006) 『村上春樹ワダン-ランド』 株式会社いそっぷ社、 pp.80-88.

松本健一(2010) 『都市小説から世界文学へ』 第三文明社、 pp.84-133.

遠藤伸治(1991) 「村上春樹『ノルウェイの森』論」 『近代文学試論』 広島大学近代文学文学研究会

# 한일 원폭문학에 나타난 ‘원폭처녀(原爆乙女)’의 비교고찰

- 大田洋子の ‘景子’들과 김옥숙의 『흉터의 꽃』 속 ‘분희’를 중심으로 -

김경인(전남대학교)

지정토론 : 유은경(주오대학 객원연구원)

## 1. 들어가며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찾아온 우리의 광복 이후, ‘조선인원폭피해와 희생자’에 대한 문제는, 재일피폭자에 대해서든 귀국한 재한피폭자에 대해서든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잊히고 묻힌, 그러나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일제식민지기 관련 민족문제 중 하나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아니 누군가에겐 너무 늦어버린 통한의 법인 ‘원폭 피해자법’이 2016년 5월 마침내 제정(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것과 때를 같이 하여 2017년 5월에는 ‘분희’라는 한 원폭처녀(原爆乙女)<sup>1)</sup>와 그녀의 3대 가족사를 그린 소설 『흉터의 꽃』이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원폭 이전의 조선인 문제에서 출발해, 원폭피폭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조선인 가족의 마지못한 渡日, 그리고 원폭과 이후의 비참한 삶을 아우르고 있다.

사실 국내연구 중 원폭문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일본의 특정한 작가에 의한 원폭문학 몇 편, 예컨대 井伏鱒二의 『黒い雨』, 原民喜의 『夏の花』 등에 집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조선

---

1) 원폭과 원폭문학의 원점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원폭투하와 패전 그리고 미군점령기를 거친 이후 ‘原爆乙女(원폭처녀)’라는 신조어가 ‘원폭에 의한 희생과 평화의 상징적 용어’로 통용되었다. 이는 원폭희생자 중 피폭에 의한 질병과 흉터와 같은 1차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결혼 및 출산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입게 되는 사회적 차별 등의 2차적 피해까지 중첩되어, 남성과 기혼여성과는 다른 차원의 희생양으로 간주되었음을 시사해준다. 본고에서 고찰할 김옥숙의 『흉터의 꽃』의 여주인공들 역시 그러한 처지의 피폭희생자로 대표적인 ‘원폭처녀’라 할 수 있다. 다만, ‘원폭처녀’라는 용어는 일본 내에서 2004년 무렵부터 젠더문제 등을 이유로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폭한 젊은 여성(被爆した若い女性)’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패전 이후 원폭희생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반영된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인원폭피해’ 관련 원폭문학에 대한 연구는 김경인(2013)과 이영희(2017, 2019), 이정희(2020), 이행선(2017)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이들 연구는 특정작품의 고찰을 통해 조선인원폭피해의 진실이나 한국 원폭문학의 현주소를 일방향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한국의 원폭문학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원폭문제와 원폭문학의 발상지인 일본에서의 표상양상 및 담론 등과의 비교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원폭투하 이후 한 동안 일본 사회에서 원폭희생의 대표적 표상으로 부상되었던 젊은 여성의 피폭자, 이른바 ‘원폭처녀’를 묘사하고 있는 일본의 원폭문학을 살펴보고, 그에 비춰 우리나라 원폭문학에 드러난 ‘원폭처녀’의 표상상은 어떠한가를 고찰하려는 것이 본 발표의 취지라 할 수 있다.

## 2. 大田洋子の 원폭문학에 표상된 원폭처녀(原爆乙女)

### 2.1 일본의 원폭문학 속 ‘원폭처녀’의 표상과 사회적 담론

194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투하된 원폭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항복을 하고 패전국이 되었고, 이후 7년 간의 미군점령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 가운데 일본은 자국민 원폭피해자에 대한 수습과 치료 및 보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내적인 대처여하는 차치하고, 대외적으로 ‘반핵·평화운동’의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며 ‘원폭의 희생국, 피해자’ 이미지를 만들어갔다. 일본의 원폭피해에 대한 대처는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경제적 거래의 수단이자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당시 일본이 자국의 ‘희생자, 피해자’ 이미지 만들기과 선전에 앞세웠던 프레임 중 하나가 ‘원폭처녀’였다. 즉 원폭으로 인해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화상흉터인 켈로이드와 갖은 원폭증 질병을 가지고 불행한 운명에 처해진 젊은 처자들을, 일본정부와 사회는 그들의 슬픈 운명의 실체를 ‘전쟁과 원폭의 희생, 평화의 상징’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원폭문학에 표상되고 있는 원폭처녀는 과연 어떤 이미지일까?

원폭피폭과 패전 후 일본 내에서 발표된 원폭문학 작품들 중 특히 ‘원폭처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작품들로는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를 비롯해 中沢啓治의 『はだしのゲン』, 大田洋子の 「ほたる」나 「暴露の時間」 등과 大野允子の 『ヒロシマの少女』 등등 많은 소설 외에도 1980년대 일본의 NHK에서 방영된 『夢千代日記』 시리즈와 같은 드라마 및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작품들이 있다.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일본의 원폭문학 작품 중에서 ‘원폭처녀’의 예를 찾으면, 이부세 마사지의 『검은 비』 속 야스코(矢須子)와 나카자와 게이치(中沢啓治)의 만화 『맨발의 겐』 속

가쓰코(勝子)와 나쓰에(夏江)를 들 수 있다. 이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일본 ‘원폭처녀’의 대표적 이미지는 ‘전쟁과 피폭에 의한 희생의 가련한 상징적 존재’ 그리고 원폭에 의한 켈로이드와 온갖 원폭증으로 심신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삶에 대한 의지로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보호와 응원의 대상’으로 대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원폭문학에 나타난 또 다른 ‘원폭처녀’에 대한 표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원폭문학 작가 중 한 사람인 오타 요코(大田洋子, 1903~1963)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원폭처녀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하자.

## 2.2 太田洋子の 원폭문학 속 ‘원폭처녀’들

오타 요코(大田洋子)는 원폭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원폭문학을 발표해온 대표적인 ‘원폭체험 작가’ 중 한 사람으로, 그의 『屍の街』<sup>2)</sup>는 아주 이른 시기에 “조선인 왕족(=李鍵公殿下<sup>3)</sup>)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씀으로써 어쩌면 일본 원폭문학 중에서는 최초로 ‘조선인피폭과 희생’을 인지하고 담아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패전 후 짧은 기간 동안 미군정의 통제 하에서 다수의 ‘원폭처녀’와 그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을 담은 작품을 발표한 ‘원폭작가’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김옥숙의 『홍터의 꽃』 속 원폭처녀와의 비교에 앞서, 일본의 원폭문학에 나타난 ‘원폭처녀’의 표상의 양상을 오타 요코의 수필과 몇 편의 단편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오타 요코의 이상의 작품들을 주요인물과 간략한 줄거리, 그리고 고찰하고자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작품명 (초출)	주요인물▶고찰내용	
広島から来た娘たち (1952년 『世界』 8월호)	켈로이드를 없애는 성형수술을 위해 도쿄로 온 9명의 히로시마 원폭처녀들 ▶당시 일본 내에 부각되었던 원폭처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했는가?	
暴露の時間 (1952년 『世界』 2월호)	원폭피해로 인해 몸에 가장 심한 켈로이드가 남아 ‘원폭 1호’라고 불렸던 요시카와 키요시(吉川清, 1911~1986) <sup>4)</sup> 가 모델인 ‘원폭2호’ 구마타(熊太)와 얼굴 전면이 켈로이드로 뒤덮인小川景子	▶오타가 표상하고자 했던 원폭처녀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

- 2) 이 작품은 원폭투하 직후부터 같은 해 11월 경까지 원폭후유증과 고난 속에서 집필된 기록적인 색채가 강한 소설로이지만, 당시 미점령군의 감시와 통제 하에 보도되지 못하다가 1948년에야 출판되었다.
- 3) 작중에서는 ‘이건(李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8월 9일자 <매일신보>에 따르면 히로시마에서 이우(李鐫, 이건의 동생)가 전사하였다고 함.

ほたる (1953년 『小説公園』 6월호)	여동생이 사는 H시를 방문한 원폭작가인 ‘나’와 피폭으로 얼굴에 끔찍한 켈로이드를 가진 빙수가게의 처녀 다카다 미쓰코(高田光子)	
病葉 (1958년 『群像』 10월호)	원폭이 투하된 지 나흘째 되는 히로시마에 온 에미 고로(江見五郎=난다 야스이치), 그가 만나 인연을 맺게 되는 다양한 사연의 오가와 마사코(小川昌子)와 하치요(八千代), 그리고 피폭자는 아니지만 곱사등이에 천식환자인 기쿠요(菊代)	

오타 요코의 이상의 작품들에서 표상하고 있는 ‘원폭처녀’의 이미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広島から来た娘たち」를 통해 보는 원폭처녀에 대한 사회적 담론

사회적으로 이용당하는 그들. 히로시마에서 도쿄로 상경하여 극빈대우를 받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전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일본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교도소를 찾아가 전범자들에게 용서한다며 화해를 청하는 그들의 연출은 무엇을 의도했던 것일까? 도쿄대병원 분원에서 치료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진단과 수차례 반복되어야 하는 피부이식 수술 앞에서 그들이 느껴야 했던 박탈감은 어떠했을까?

② 흥측한 원폭처녀의 모습에 울부짖는 사람들

오타 요코의 이상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원폭처녀’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오열’이라는 점이다. 「暴露の時間」의 景子を 처음 보고 오열하는 절의 주인 有哲와 「ほたる」의 光子를 보고 끝없이 오열하는 작가인 ‘나’와 ‘나의 어머니’, 그리고 光子의 무대 위 춤을 보고 그녀와 함께 울음을 터트리러는 관객들 이야기가 나온다. 과연 케이코나 미쓰코의 얼굴을 보고 오열하는 그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이야기에서 보면, 모두 타인의 상처를 보고 자신의 상처의 깊이를 알게 되어 울부짖는다. 타인을 위한 동정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동정과 자괴감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③ 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의 표출

오타 요코의 소설 속 원폭처녀 景子(光子)와 昌子は 처음 대하는 타인을 접할 때면 당당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응시하거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작품 속 표현을 빌려 보면, “景子はまっすぐ有哲を見て答えた。誰に対してもひるまぬ正視の眼が、ぎらぎら光っていた。(暴露、

4)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폭심지로부터 1.5km 지점에 위치한 자택에서 피폭. 1946년 2월부터 1951년 4월까지 히로시마 적십자병원에 입원하며 16회에 걸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는 반전 및 반핵운동에 앞장서는 평화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원폭피해자 보상을 위한 피폭자운동의 초석을 만들었다.

p.165)거나, “高田光子はわざと私に真正面の顔をつきつけている。”(「ほたる」 p.189), 혹은 ‘이미 포기했기에 괜찮다’며 ‘타인이 내 얼굴에 빨리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짐짓 얼굴을 들고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 다닌다’(「ほたる」 p.193)고 미쓰코는 말한다. 그런가 하면 「病葉」의 마사코는 한쪽 눈이 없는 흉터투성이의 얼굴로 낯선 남자에게도 서슴없이 접근한다(“鞭のようにからだをしなわせながら、わたしのテーブルに来て腰をおろした。(중략) 娘はわたしにやさしそうにわらいかけたのだ”, p.202)

이는 언뜻 자신감이나 당당함처럼 보이지만, 극심한 외상의 ‘원폭처녀’라는 현실과 그런 자신들을 구경거리처럼 바라보는 세상에 맞서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자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 수 있다.

### 3. 한국의 원폭문학에 나타난 ‘원폭처녀’의 표상

그렇다면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피폭자의 10%를 차지했던 조선인피폭자 중 어린 처자였던 ‘조선의 원폭처녀’의 운명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시끄럽게 대외적으로 이용된 일본의 반핵운동과 평화 이미지의 전형이었던 ‘원폭처녀’의 이미지와 한국 사회와 원폭문학에서 묘사되는 ‘한국 원폭처녀’의 이미지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 3.1 김옥숙의 『흉터의 꽃』 속 ‘분희’

2017년에는 ‘분희’라는 한 원폭처녀와 그녀의 4대 가족사를 그린 소설 『흉터의 꽃』(김옥숙, 새움출판)이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원폭 이전의 재일조선인 문제 즉 생존을 위한 자의적인 도일이었던 강제징용이었던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핍박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던 문제와, 그것이 필연적 원인이 되어 처해진 원폭피폭이라는 비통한 조선인피폭자의 원폭 당시와 고향으로의 귀국 이후에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1930년에 먹고살기 위해 히로시마로 건너갔다가 가족 전체가 피폭당한 합천 출신의 ‘강순구’ 일가의 4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원폭사(原爆史)’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선의 ‘원폭처녀’의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분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원폭처녀’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sup>5)</sup>

『흉터의 꽃』에는 원폭 당시의 ‘원폭처녀’인 ‘분희’와 원폭2세라는 운명을 등에 업은 현재의 ‘원폭처녀’인 ‘인옥’이 등장한다. 이 두 ‘원폭처녀’는 닮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의 이미지로

5) 지면의 제한 상 작품의 줄거리는 생략함

표상되고 있다.

조선인원폭피해자는 일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광복을 맞아 돌아온 조국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차별과 괘시의 대상이 되어 버려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3.2 오타 요코의 ‘景子’와 김옥숙의 ‘분희’의 비교

아래의 표는 앞서 알아본 오타 요코의 ‘景子’ 등 원폭처녀의 표상에 비춰, 한국의 ‘분희’는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大田洋子の 景子들	김옥숙 『홍터의 꽃』 속 분희
표상화된 이미지의 비교	①「広島から来た娘たち」를 통해 보는 원폭처녀에 대한 사회적 담론	일본에서 귀국한 소수의 피폭자 매국노, 친일파 라는 차별 가난과 원폭증에 의한 질병
	②흥측한 원폭처녀의 모습에 울부짖는 사람들	하지만 분희를 본 사람들, 예컨대 결혼한 남편과 시댁의 식구들과 이웃,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분희의 화상홍터를 부끄러움과 분노의 대상으로밖에 바라보지 않는다.
	③당당하게 맞서려는 의지의 표출	하지만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늘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추려는 ‘분희’, 늙어서도 타인의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하는 ‘분희’
작품 속 차별적 표현	化け物, 半人間, 動物園の見世物 ▶피폭자 일신에 대한 비난과 비하의 표현	재수 옴 붙은 년, 자식 잡아먹은 년, 집안 망해먹은 년, 집안망신 ▶타인, 특히 가족에 위해한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된 표현

일본 ‘원폭처녀’의 경우, 켈로이드 수술을 위해 ‘도미치료를 받게 된 25명의 원폭처녀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일본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평화와 화해의 메신저’로 부각되었다. 반면에 제일 및 재한의 원폭처녀들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외면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난과 갖은 원폭병으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특히 한국의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심리적 육체적 학대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다만 그나마 그들을 살 수 있게 한 것은 ‘가족’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아니었을까. 요컨대 그들에게엔 보호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주체로서의 삶만이 존재했던 것이다.

## 4. 나오며

일본은 원폭의 피해자이기 전에 원폭의 발생 원인이자 그런 의미에서의 가해자라는 점에서, 일본 및 일본인만을 원폭희생자로 간주하는 일본 내의 원폭과 원폭문학과 제국주의 일본의 절대적 피해자인 조선인피폭희생자를 서사하는 ‘원폭문학’에 대한 다의적인 비교고찰이 필요하다.

‘원폭처녀’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일본이 전쟁과 원폭의 희생자임을 표상하고, 그러면서 ‘원폭처녀’로 하여금 평화를 위해 ‘전범자’를 용서하는 화해의 제스처를 연출하게 함으로써 일본이 평화의 선구자인 양 선전하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원폭처녀’를 비롯한 일본의 실제 원폭희생자들의 인식과 삶의 현실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음을 오타 요코의 작품 속 원폭처녀들은 보여주고 있다.

그에 비해 ‘분희’로 대표되는 조선인 ‘원폭처녀’는 피폭에 의한 질병과 흉터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차별까지도 일본의 원폭처녀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음에도 국가와 사회는 어떤 치료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버려두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조선인 원폭처녀의 경우에는 ‘또 하나의 원폭지옥’이 더 존재했다. 그것은 바로 결혼과 출산에서 지워진 여성에 대한 유교적 관념에 얽매인 가족에 의한 폭력과 폭행이 그녀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전후파의 정동(1)

- 홋타 요시에 『광장의 고독』과 『시간』 -

이상혁(고려대학교)

지정토론 : 길미현(우송대학교)

## 1. 들어가며 - 불안이라는 정동

소위 15년 전쟁기에는 ‘불안’의 정동이 수많은 문학 작품을 통해 표출되었고, 2000년대 이후의 지금 이 시대에도 적자생존과 양극화 구조 속에서 불안의 정동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물론 이 두 시점만이 아니라 전후 일본이라는 시공간에서도 불안과 허무 등의 정동은 전후파라는 불리는 작가들의 텍스트를 통해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런 정동 표출은 이 세 시점만 떼어놓고 보면 강한 불안이 표출되고 있다는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정동 표출을 둘러싼 문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쟁기의 불안은 허무를 동반하기보다 집단-국가로의 회귀라는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던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현대의 불안과 전후의 불안 역시 같은 결과를 낳았는가, 라고 물으면 그렇지만은 않다고 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정동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을 넘어서 시대의 (무)의식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불안을 포함하여 정동은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정서인 동시에 정동이라는 비의식 영역을 통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 및 내부 메커니즘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전후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동이라는 비의식적 영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로 본 발표에서는 홋타 요시에의 『광장의 고독』(1951)과 『시간』(1955)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전후 공간에서의 주체 인식, 정동의 표출과 그 효과-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광장의 고독(1951) : 한국전쟁

일본 전후파의 특징은 요시모토 타카아키의 표현을 빌리면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의식과 관념이 중시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전후파 텍스트에는 의식과 관념에 상반되는 신체 감각과 물질성에 대한 클로즈업이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광장의 고독』을 통해 감각-신체-물질에 대한 훗타 요시에의 기술을 살펴보겠다.

『광장의 고독』의 주인공 기가키(木垣)는 관념적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참여’(commit, commitment)라는 행위를 놓고도 관념적으로 고민한다. 그는 좌파 마르크스주의에 몸을 맡기지도 못하고, 우파의 스탠스에서 미국의 편에 서지도 못한 채 자신의 관념 속에서 갈등을 거듭한다는 점에서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행동하지 못하고 고민만 한다는 것은 ‘참여’에 대한 선택을 계속해서 미룬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의미를 고정시켜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남기는 소설 쓰기 작업을 행하지 못한다. 글쓰기가 문자화된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통해 외부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글쓰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참여’를 연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에 기가키는 소설 쓰기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 연기시켜 왔던 ‘참여’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하다. 첫 번째 질문은 기가키가 왜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 연기시켜 왔던 ‘참여’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를 둘러싼 외부 사건이라는 문맥이 그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점이다. 첫 번째 질문은 기가키 내부의 의식적-비의식적 메커니즘이 그의 심적 변화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패전 후의 일본의 상황과 한국전쟁이라는 외부 사건 및 시공간적 배경에 관련된 것이자, 난징대학살을 배경으로 하는 『시간』과의 유사성 및 차이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를 고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겠지만, 본 발표에서는 정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다. 간단히 정리하면, 관념상 기가키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옳다, 라고 정해주던 기존의 가치 판단 기준은 패전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권위를 상실했다. 이런 ‘기준’과 ‘의미’가 상실되었다는 것은 곧 주체를 무의미한 것·덧없는 것으로서의 허무 및 불안에 빠지게 만든다. 때문에 전후파의 텍스트에서 불안과 허무가 떠도는 것은, 그리고 기가키가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관념상의 고민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된다.

이런 무의미와 허무와 데카당스 속에서 하나의 확실함이 있다면, 기가키에게 그것은 신체적-물질적인 감각과 그것이 가져오는 쾌감이다.

인간은 기계화된 사회에서 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대로일지도 모른다. (...) 바로 인쇄되는 그 운전기의, 둔중하게 발밑을 울리는 소리를 신

체로 느끼는 것은 전율이라고 말하면 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일종의 이상한 육체적 기쁨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広場の孤独』 킨들판, 94)

이 인용에서 포착할 수 있는 것은 1)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비주체=기계로서의 인간, 2) 관념에 대비되는 ‘생활’ 영역, 3) 운전기의 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감각과 그로 인한 쾌감(전율-육체적 기쁨)이 가진 확실성이다. 혹자는 기계화된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기가키는 운전기로 대표되는 기계-물질이 인간 신체라는 기계-물질에 전달하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구보다 관념적이기에 갈등하는 기가키는 번역 단어를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떠올리는 자신을 스스로 ‘기계’처럼 기술한다.

이렇게 보면, 관념과 이성만 대립하는 논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이지만 결국 선택을 할 수 없는 비주체의 길로 향한다면, 물질-감각-신체는 구체적으로 잡히는 확실함을 가지기에 그로부터 유래하는 육체-물질적 쾌감 및 정동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함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키는 이 감각-물질-정동의 확실함에서부터 주체(‘고독’)가 되어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확실함이 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로서 ‘법률’, ‘농부’, ‘성(性)’ 등의 단어를 계속 언급하지만, 결국 그가 선택-참여하기로 결정한 길은 소설이라는 픽션을 통해서이다. 그 방법은 소설 속 “임의의 인물이 주위의 교차하고 대립하는 현실에 대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선택”(1128)하고, “다양한 사건이나 사고(事故)를 접하며 선택된 입장의 위치가 이번에는 역으로 소위 대각선적으로 이 인물의 위치를 결정해 가”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임의의 인물’은 개별적인 주체로서의 ‘특정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 및 위치를 정해 ‘참여’할 수 없었던 비주체 혹은 임의의 인물로서의 기가키는 소설을 적는다는 행위에 의해, 그 소설 속에서 구축된 캐릭터를 통해, 소설이라는 사고실험을 통해 ‘특정 인물=주체=고독’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는 개별적 주체성 및 단독성이라는 ‘예견 불가능의 지역’ 혹은 ‘혼’(정신)을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찾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설 속 표현을 빌려 침묵도 하나의 ‘참여’라고 한다면, 기가키는 어찌되었건 한걸음 나아가려고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이는 확실한 해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 가”(1611)겠다는, 혹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매듭지어 가겠다는 수행(修行)적 과정에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임의의 인물’을 기가키라고 한다면, 그는 ‘선택된 그 입장의 위치’로부터 역으로 구축되는 비주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기가키는 한국 전쟁을 둘러싼 두 입장(미국과 소련, 우익과 좌익 등) 사이에서, 선택-결정하지 못하는 그의 갈등 속에서 여전히 상황순응적으로 따라갈 뿐인 비주체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기가키가 한국이라는 타자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더 나아가 기가키로 상징되는 일본의 전후 지식인들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타자(‘임의의 인물’)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일본이라는 주체를 세워나갔던 것일까, 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해서는 남상욱(2015), 서동주(2015)의 논문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이런 양가성이 결과적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기가키가 감각-신체-정동의 확실함을 느끼고 그 개입에 의해 관념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외부의 확실함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관념 속에서 인간의 '혼'(주체성)을 찾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3. 시간(1955) : 1937년 난징대학살

이런 의문 속에서 작품이 쓰여지고 발표된 시간 상으로는 4년 후, 텍스트 속 시간으로는 십 수년 전인 『시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광장의 고독』이 전후 일본의 폐허(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정신적이기도 한) 위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내면적 갈등 및 비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시간』은 개인(인간)을 둘러싼 좀 더 근원적인 모순·이항대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전자가 전쟁이라는 극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는 외부(한국)에 두고 있다면, 후자는 그 극한 상황이 내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건의 위치에서 내/외부의 경계가 사라졌기에 여기서는 고유한 사건으로서의 '난징대학살'이라는 역사적 문맥을 소거한 채 보도록 하겠다. 즉 고유명으로서의 '난징대학살'이라는 사건을 지우고 보면, 이 텍스트는 '미국(우익)/소련(좌익)'이라는 『광장의 고독』의 이항대립을 넘어, 인간/인공/자연이라는 경계 속에서 인간성 및 주체성에 대해 묻고 있다.

주인공 '나'에게 쓰진산은 "거의 종교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것이 종교인 이유는 그 숭고한 아름다움 때문이고,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역사'나 '지상의 생명체'와 관계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 혹은 '인간의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는 영속성에는 유한적인 시간성을 가진 주관적 인간(사)을 넘어서는 숭고함, 아름다움, 종교성이 깃든다. 칸트가 지적하듯이, 이 숭고미란 아름다움인 동시에 인간의 통제를 넘어선 공포와 두려움이기도 하다. 반면 '성벽'이라는 인공물은 그런 숭고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인간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한" 방벽이다. 이런 인식에서 '인간(성)'이란 자연의 숭고미에 맞서 싸우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성벽의 의미는 "지극히 정신적인 것"이 된다.

문제는 난징대학살이라는 사건처럼 인간(인공)에 의해 발생한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운 사건이 인간을 덮칠 때이다.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에 외부인 동시에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그 인위적 사건들은 성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 숙부를 비롯한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일본군이 가져올 공포를 심지어 기대한다. 공포가 일상이 되면 일종의 허무를 느끼거나, 더 나아가 일종의 해방감으로서의 테카당스에 이른다. 『광장의 고독』의 기가키의 경우처럼, 이런 인간(인공)적인 사건이 외부에만 머무르면 이와 비교하여 '나'라는 내부를 위치지어가면 되지만, 그 압도적 사건이 내/외부의 경계를 파괴해버릴 경우 '나'라는 주체(내부)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전쟁(난징대학살)이라는 외부 사건이

개인(내부)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극한 상황 혹은 예외상태에서 인간성, 주체성, 내부(내면)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더 이상 외부 세계에 전혀 의지할 수 없”기에 “내부란, 내부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묻는 ‘나’는 어떻게 나(인간)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분량을 이유로 결론만 말하면, 『시간』에서의 훗타 요시에는 리얼리즘, 별거벗음, 자기와의 싸움, 의지 등을 말한다. 즉 현실이 아무리 처참할지라도 이를 있는 그대로 보는 리얼리즘적 자세(보들레르와 양양의 눈), 외부의 명령과 선입견으로 각인된 옷을 벗어던지고 고독한 단독자로서 서는 것, 압도적 외부로부터 ‘도망’가거나 반대로 내면화하여 ‘폭발’하지 않는 것(사회적 명령이나 국제질서,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 굴복하지 않는 것), 그렇게 현실과 외부에 맞선 ‘나’의 자기와의 싸움(끊임없이 의지를 다지며 외부에 굴복하고자 하는 자신에 맞서 싸우는 것) 등이야말로 ‘인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때 이런 방법들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세발술’이나 ‘성벽’ 같은 것이 가진 물질성의 균전함, ‘백마’와 같은 광기에 대한 마주함 등이다. 나를 둘러싼 ‘일상’이 가진 영속성, 광기, 욕망 등의 양면성을 제대로 응시하며, 단순히 “인식이나 관찰만 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행동·실천하는 것. 마치 농부가 자연이라는 압도적 외부를 피하지 않은 채 그 안에서 묵묵히 밭을 경작하는 것과 같이 “강하게 인내하는 것”. 이때 ‘세발술’으로 상징되는 물질성, 열정을 받아들이는 신체의 물질성, 농부의 곡괭이나 낫 혹은 칼 장수의 소음이라는 감각의 물질성, 자신과 외부의 불안·공포·분노·슬픔 등의 감정을 일종의 물질성·육체성으로서의 정동으로 받아들이며 응시하는 것 등은 ‘나(인간)’의 광기와 ‘외부’의 명령을 응시하는 것이자,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유한성 및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별거벗음’의 비천한 존재 양태야말로 그로부터 인간적인 것이 가진 (광기가 아니라) 강인함, 즉 주체성을 획득하는 길임을 훗타 요시에는 주장하고 있다.

소설(픽션) 및 ‘임의의 인물’이라는 외부를 설정하여 그 타자의 선택으로부터 역으로 나의 위치를 설정하려는 『광장의 고독』의 기가키와 비교하면, 『시간』에서의 ‘나’는 외부-타자의 선택과 위치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주체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라는 존재의 물질성과 유한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맹신이나 광기가 가진 유한성을 인지하고, 그 광기가 만들어내는 압도적 외부 사건이나 자기 내부의 맹신에 저항하고 인내하는 힘을 가진 주체가 정립된다는 점에서 ‘나’는 기가키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물질성으로서의 정동은 ‘농부의 곡괭이와 낫’이자 ‘멀리서 들리는 칼 장수의 소리’처럼 외부의 명령과 이를 내면화한 자기 내부의 맹신이라는 ‘커튼’을 찢게 만드는 계기,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여는 토대가 된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 전쟁기, 전후, 현재

불안과 두려움 등은 확실함을 보증해주던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며 발생한다. 쇼와 10년을 전후한 ‘불안의 시대’, ‘불안의 문학’ 역시 기존의 가치 질서들이 붕괴하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 불안(‘세스토프적 불안’)이 강하게 환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작가는 그 불안이라는 정서 혹은 정동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집단-국가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히노 아시헤이의 ‘병대삼부작’은 휴머니즘이 붕괴되는 전쟁 상황에서 군대 및 민족이라는 집단으로 회귀하는 ‘군인적 주체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야시 후미코 역시 전장에서 서의 공포와 불안이라는 정동에 의해 야기되는 ‘별거벗음’, 즉 자기동일성-자기연속성의 흔들림을 병사들과의 동일화를 통해 해소하였다. 이시카와 다츠조의 경우, 전쟁이라는 극한상황 속에서 기존의 확실함이 무너져 감에 따라 개인의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과 그 확실함을 다시 보증받기 위해 ‘헌병대’로부터의 별을 바라고, 그것마저 실패하자 다시 군대(중대)와의 동일화를 내면화하는 개인의 모습을 『살아 있는 병사』를 통해 그렸다. 하지만 그 소설 때문에 기소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 집단-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그려 나간다.

반면 훗타 요시에와 마찬가지로 전후과의 일원인 하니야 유타카는 대답하는 이항을 극단까지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훗타 요시에와 유사하다. 하니야의 전쟁기 소설이자 데뷔작인 『동굴』에서는 ‘나’라는 동일률(‘A는 A이다’, ‘나는 나다’라는 동어반복)에 대한 회의를 통해 <‘나’라는 것>까지 의심하고 해체해간다. 소설을 포함하여 전후 하니야의 글들에서는 대답하는 논리를 그 극단까지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포함한 동일률까지 해체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훗타 요시에의 방법을 더 철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때 하니야에게 기존의 의미 체계를 주입시키는 외부 구조의 억압적 힘, 동일률의 주어부와 술어부의 ‘나’가 같지 않음에도 같다고 믿게 만드는 힘을 해체시키는 것(훗타 요시에의 표현을 빌리면 ‘별거벗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동이다.

이렇게 보면 불안과 공포라는 정동이 한편으로는 집단에 회귀시키는 원인으로서 작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선입견적 가치 체계를 벗어던지고 ‘별거벗은’ ‘고독’한 ‘나’(주체)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감각-정동이 가진 물질성은 신체-육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체 성립의 문제는 이시하라 신타로의 <태양의 계절>이 가진 ‘전후가 끝났다’는 징표나 55년 체제의 발족 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서동주, 2015).

덧붙여 이런 정동의 양가성 위에서 현재를 보면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일까? 제로년대 이후에 점점 더 심화되는 적자생존의 환경과 그로 인한 불안이라는 정동은 제로년대의 주체들에게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아직 명확히 결론내릴 수는 없지만, 무라

타 사야카, 이토 게이카쿠 같은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불안과 분노 및 주체를 둘러싼 문제의식 등은 이전 시대와 유사한 지점을 갖는 동시에 다른 지점을 가질 터이기에, 이 문제에 착목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일본학



#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에 대한 조선 측 인식(認識)의 형성과 변화

이중협(영남대학교)

지정토론 : 손정아(경북대학교)

## 1. 머리말

임진전쟁(壬辰戰爭)은 16세기 말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조선·일본·명이 참전한 대규모 국제전의 양상을 보였다. 이 전쟁은 전황이나 향후 영향 면에서도 중요한 전쟁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역내(域內) 상호 인식·정보의 구체화와 초기적 민족 정체성 표출이 행해졌다는 면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전자의 면의 일례(一例)를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 측의 일본 측 인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전쟁에 참여한 일본군은 그 수가 1592년 3월에 발포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주인장(朱印狀)을 통해 확인되는 것만 대략 16만 명을 전후하며 이를 직접 지휘하며 조선에 도해한 다이묘(大名)의 수도 많았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인장에서 3만 명을 동원해 7번대를 지휘하게끔 지시된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라는 인물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모리 테루모토가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이끌고 도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당시에는 그 존재감이 주목받지 못하였고, 이후 정보의 구체화를 통해 가장 큰 폭으로 인식에 변화가 생긴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 2. 임진전쟁 발발 이전과 전쟁 중에 보인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

모리 테루모토는 앞서 언급하였듯 임진전쟁 발발 초기 파병된 16만 명의 병력 가운데 3만 명의 동원·지휘를 담당하는 인물이다. 이 규모는 임진전쟁 참전 일본군 가운데 최대 규모이

다. 또한 모리 가는 도요토미 정권 아래의 대다이묘로 추고쿠(中国)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리 테루모토에 관련한 조선 측의 기록을 전쟁 이전의 것으로는 『鶴峯先生文集』에 실린 기사가 존재한다. 해당 기사는 1590년 통신사 부사였던 김성일(金誠一)이 쓰시마 측에게 과거 조선과 교류가 많았던 쇼니 씨(少弐氏)와 오우치 씨(大内氏)가 멸망한 사실을 감춘 것에 대해 힐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 가운데, 오우치 씨가 망하고 현재 그 영지를 영유하고 있는 인물로 “毛利之孫晁元”이 등장한다. 이 인물이 모리 테루모토로 晁元은 輝元의 오기로 보인다. 본 기사를 통해 조선 측의 모리 테루모토 인식은 아주 미약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사 내용 또한 그가 주된 대상이 아닐 뿐더러 그저 오우치 씨의 영지를 당시에 영유하고 있는 인물로 거론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쟁이 발발하고 모리 테루모토가 3만 명의 군대를 인솔하고 조선에 상륙한 이후에는 인식에 변화가 생겼을까? 전쟁 기간 중 조선 측 기록 속에서 모리 테루모토에 관련된 기사는 4개 확인된다.

첫 번째 기사는 『宣祖實錄』 선조 25년(1592) 11월 11일자 기사로, 명이 조선에게 일본군의 정보를 질의하여 이에 대해 조선 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답신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측이 毛利耀元이라는 인물이 전라도에 주둔하였다고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耀元 역시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輝元의 오기이나 앞선 1590년의 사례보다는 한자 형태가 비교적 유사해졌다. 그러나 정보 내용은 사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구체화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같은 『宣祖實錄』의 선조 27년(1594) 11월 11일자 기사로, 조선 측이 투항한 일본인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이 기술은 대체로 毛利耀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흥미로운데, 여전히 한자 표기는 『宣祖實錄』 선조 25년(1592) 11월 11일자 기사와 같다. 내용은 이전의 기술과 비교하면 상당히 구체적인데 모리요원이 관백과 더불어 위세가 비등하다는 것, 모리요원은 전쟁 초에 부산에 머물렀고 이미 본국에 돌아갔다는 점, 그의 아들이 관백의 양녀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 기사가 실록 편찬 과정에서 남았다는 점과 애초에 이 진술이 조선 측의 “小早川族黨”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 측의 일본 측 장수·다이묘에 대한 인식과 정보 획득이 전쟁 초기와 비교하면 구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기사는 『宣祖實錄』의 선조 28년(1595) 6월 8일자 기사로 당시 일본 측과 강화 교섭을 행하고 있던 명 측의 부사 양빈이 제공한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잔류한 일본군의 각 진영별 인솔자와 병력을 기재한 것인데, “釜山 山輝元二万”이라는 언급을 통해 모리 테루모토가 부산에서 2만 명을 인솔하고 있다고 명·조선 측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宣祖實錄』의 선조 27년(1594) 11월 11일자 기사에서 확인하였듯 사실이 아니었다. 다만 모리 테루모토가 귀국한 이후에도 모리 군은 그대로 남아 그의 아들 히데모토가 대리인으로서 인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완전히 틀린 정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앞선 사례들의 기술과는 달리 모리 테루모토의 한자 표기가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네 번째 기사는 『白沙先生文集』에 수록된 연대 불명의 12월 초하루 기사로 이항복(李恒福)이 심유경(沈惟敬)에게 보낸 질문이 기술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 이항복은 毛利耀元이 처음에 전라도를 침범했다가 나중에 한산도에서 패하여 죽은 자가 맞는지 묻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정보는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의 정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뒷부분의 “及今南遁。蟻聚海岸。築壘為窟者。無慮十餘處。”라는 기술을 통해 이 기사가 적어도 1593년 4월 이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宣祖實錄』의 선조 27년(1594) 11월 11일자 기사를 통해 조선 측이 1594년 11월 단계에는 이미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 기사는 1593년 12월 초하루로 비정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전쟁 와중에 있었던 이 기사들을 통해 조선 측이 전쟁 발발 초기에는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오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왜(降倭)를 통한 자체적인 정보 획득과 더불어 1593년 4월 이후 일본 측과 직접적으로 강화교섭을 행하고 있던 명 측을 경유한 정보 입수를 통해 기존의 오보들을 개정하였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정보와 인식도 개정되었는데, 다만 여타 장수들에 비해 그 기재 수 자체가 적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임진전쟁에서 최대 병력을 이끌고 도해한 인물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기에 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 3. 전쟁 직후의 정보 유입과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

앞서 살펴보았듯 전쟁 기간 중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정보와 인식 수준은 비록 사실 관계는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기재 수나 내용을 통해 그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낮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기에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는 『宣廟中興誌』의 임진년 4월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四月、平秀吉遣其將毛利輝元、等大挙入寇、陷釜山鎮、僉使鄭撥死之、平秀吉大發、兵十六萬、以京西天酋毛利輝為元帥、養女婿平秀家副之、統大將三十五人、平義智為先鋒、渡海入寇、…(後略)…

이 기술을 통해 19세기 초엽에 이르면 조선에서 모리 테루모토를 임진전쟁의 일본 측 원수(“元帥”)로까지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도 “京西天酋”라 하여 모리 테루모토가 서일본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가였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는 것도 엿볼 수 있다. 전쟁

중의 기술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가 축적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정보가 이러한 인식과 곧바로 연결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임진전쟁 이후 어느 시점에 조선 측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정보 유입 과정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직후에 있었던 각종 기록과 이후의 통신사 사행 기록을 참고하여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정보 유입과 인식 변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먼저 살펴볼 것은 전쟁 직후에 귀국한 피로인(被虜人)들에 의한 저술들이다. 첫 번째로 전라도 영광(靈光) 출신의 사족(士族) 강항(姜沆)이 저술한 『看羊錄』 賊中封疏 속에 실린 賊中聞見錄의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로 강항이 일본으로 여행되고 난 이후에 얻은 정보들을 조선 조정에 보고한 내용에서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기사들과 비교해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본에서 직접 얻은 정보였던 만큼 질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개선되어 있다. 모리 테루모토에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면 모리 테루모토의 집안 내력, 영지 현황과 강성함, 1600년 4월 시점 일본 국내 정세에서의 역할 등이 종합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항은 비록 포로로 여행되었지만 글을 아는 식자층이었기 때문인지 대우가 일반인과는 다소 달랐던 듯하다. 그는 그러한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여 일본에서 승려·무사 등 식자층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조선으로 유입시켰다.

전라도 함평(咸平) 출신 사족이면서 강항과 마찬가지로 영광 일대에서 포로로 잡힌 정희득(鄭希得)의 『月峯海上錄』에 실린 附日本總圖에 나오는 기술에서도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희득은 당시 하치스카 가(蜂須賀家)에 포로로 잡혀 아와 국(阿波国)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역시 귀국 이후에 같은 처지의 조선인들과 정보를 교류하여 『月峯海上錄』 안에 일본 정보를 기재하였다. 다만 이 기사는 시기상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看羊錄』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저자인 정희득이 강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저술의 영향을 받았거나, 『看羊錄』의 내용을 추후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두 사료를 통해 모리 테루모토에 대해 상당히 심화된 정보가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직접 체류한 피로인들의 정보를 통해 모리 테루모토가 단순히 조선에 도해해 왔던 여러 일본군 다이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京西大帥”이며 임진전쟁에 있어서 “為元帥者也”라고 인식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기본 설명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대비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통해 그가 당시 일본 국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피로인을 통한 정보 유입과 인식 구성의 양상은 『亂中雜錄』의 신축년(1601) 6월조에 기록된 남충원에 대한 공초 내용과 『宣祖實錄』 선조 34년 4월 25일조 기사에 기록된 강사준·여진덕 등에 대한 공초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측이 일본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피로인들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로인이 스스로 저술한 정보 이외에도 귀국한 이들을 문초하여 정보를 캐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를 통해 1599년 말부터 1601년 초까지의 쓰시마 측 국교 재개 시도 단절에 대한 조선 측의 의구심이 해소되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 일본 정세의 급박한 상황이 피로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보는 전쟁 이전이나 전쟁 와중에 얻었던 정보와는 그 양적·질적 수준이 현저히 달랐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바탕이 되어 이후의 일본 인식이 구축되어 갔다. 이 점은 전쟁 당시에 최대 규모의 파병을 행했음에도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통신사 사행의 저술을 통한 일본 정보의 유입과 인식 변화 양상이다. 1607년부터 1643년까지의 5차례의 사행 기록 가운데 모리 테루모토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어 있는 기사를 9개 찾아볼 수 있다. 그 가운데 1607년 사행 기록인 경심(慶瀾)의 『海槎錄』 정미년 3월 16일자 기사에서는 나가토 국(長門國)에 들어오면서 그 영주로 모리 테루모토를 언급하고 있고, 같은 저서의 5월 8일자 기사에서는 세키가하라(関ヶ原)를 지나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전투와 그 경위, 그 이후의 영지 축소 등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역시 모리 테루모토를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대비하여 그의 정치적 위상과 세력이 강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의 통신 사행 기록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1607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가토 국을 지날 때, 세키가하라를 지날 때에 그에 대한 언급이 보이고 있다. 다만 1624년의 사행 기록인 강홍중(姜弘重)의 『東槎錄』과 1636년 사행 기록인 김세렴(金世濂)의 『海槎錄』·황호(黃虜)의 『東槎錄』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역관으로 동행하고 있던 강우성(康遇聖)이라는 인물이 이에야스의 군중에서 이 전투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언급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앞선 피로인의 저술과 공술, 직접적 증언이 일본 정보·인식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우성은 이전의 1616년 사행에도 동행하였으나 1616년 사행은 에도(江戸)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리 테루모토는 1627년에 사망했던 영향도 있어 이후의 사행에서는 세키가하라 전투에 관련한 언급 이외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에 대한 정보와 인식은 이 단계에서 일단 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 4. 18세기 후반 일본 정보 속에 보이는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유입된 일본 정보가 18세기 후반에 정리되는 와중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정보·인식이 어떤 식으로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지적할 기사는 이형상이 1704년 이후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瓶窩全書 東耳刪畧』에 실린 기술로 임진년에 출병해 온 일본군 장수의 명단과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은 3장에서 확인한 피로인들의 저술 내용과 거의 내용이 같은데

“壬辰出来倭将”의 구절은 『月峯海上錄』에 기술된 일본군 제장들 명단과 거의 양식이 같고, “輝元”의 구절은 『看羊錄』에서의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기술 내용과 거의 같다.

두 번째로는 이공익(李肯翊)이 20년간에 걸쳐 작성했다고 하는 기사본말체 사서 『燃藜室記述』의 기술로 전쟁 직후에 있었던 기록들을 정리한 내용을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모두 다른 사료에서 취합한 것으로 앞부분은 『亂中雜錄』 신축년 6월조에 기술된 남충원의 공초 내용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고, 뒤 부분은 『宣祖實錄』 선조 34년 4월 25일자 기사의 강사준·여진덕 등의 공초 내용과 흡사하다. 세키가하라 전투의 결과를 포함한 정세는 비교적 먼저 귀국한 강항 등의 저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후 귀환한 피로인들에 대한 공초 내용과 더불어 통신사 사행 기록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덕무(李德懋)가 저술한 『蜻蛉国志』의 기술을 거론할 수 있다. 『蜻蛉国志』은 18세기 조선의 일본학에 있어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고증학적 성격을 가진 서적이다. 비교적 임진전쟁의 충격에서 거리가 먼 저술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일본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따라서 앞선 저술들에 비하면 임진전쟁이 서술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임진전쟁에 관련한 서술은 거의 대부분 “人物”란의 히테요시에 대한 서술에 집중되어 있는데,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과 서술도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용 구성상에서 앞선 통신사 사행 기록의 영향이 엿보이나 그 내용과 수량에 대한 언급에서 통신사 사행 기록보다 정교하여 일본 측 자료의 적극적 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사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 뒤에 저술된 것으로 여겨지며 앞서 확인한 바 있는 『宣廟中興誌』는 임진전쟁에 관련한 조선 후기 기록의 최종 정리본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료는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이라는 것으로 임진전쟁의 원수(元帥)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 승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 이전에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잘못된 정보로 인식되고 있거나 존재감이 미미했던 모리 테루모토는, 이 단계에 이르러 일본 측의 실질적인 전쟁 사령관으로 인식된 것이다.

『宣廟中興誌』를 비롯한 18세기 조선의 사료들에 보이는 공통점은 임진전쟁 직후의 기록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이다. 『看羊錄』에 묘사된 전쟁 수행 과정에서의 “有曰輝元者。京西大帥也。壬辰之役。為元帥者也。”라는 구절과 전쟁 직후의 “使輝元。領率西諸將居伏見。以備東諸將之生事者。”라는 구절은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조선 측의 인식을 증폭시켰다. 이 영향으로 고증학적 연구서의 성격이 강한 『蜻蛉国志』에서조차 “以輝元秀元等為將。殘害朝鮮。”이라 하여 모리 테루모토의 위치와 역할을 어느 정도 인식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보다 과장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임진전쟁 이후 조선 측의 일본군 다이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구체화하고 변화되었는지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쟁 이전과 전쟁 중에는 그다지 인식되지 못했던 모리 테루모토가 전쟁 직후 일본에서 귀국한 피로인들의 정보와 통신사 사행이 획득한 정보 등을 통해, 그 인식이 확대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통신사 사행의 기록에서도 피로인에 의한 정보 제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피로인이 가져온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 직후에 귀국한 강항의 기술과 평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有曰輝元者。京西大帥也。壬辰之役。為元帥者也。”라는 서술의 흔적은 동시기에 저술된 『月峯海上錄』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며, 이 정보가 세키가하라 전투에 대한 피로인들의 공술과 결합하여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18세기 말에 저술된 『宣廟中興誌』에서 그가 임진전쟁 당시 일본군의 명목상 원수(元帥)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 전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령관으로 여겨지기에 이른다. 조선 후기의 일본 연구서로 비교적 객관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덕무의 『蜻蛉國志』에서조차 그를 히데요시가 내세운 일본군의 대장이라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관계를 떠나 모리 테루모토에 대한 조선 측의 정보·인식은 과장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모리 테루모토의 사례를 통해 조선 후기의 일본 정보·인식의 형성과 변화에 강항의 『看羊錄』을 중심으로 한 피로인의 일본 서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와 인식의 발전 양상을 구체화하는 작업, 그리고 18세기 후반에 인식이 확대 재생산된 모리 테루모토와 같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다시 잊혀져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고 싶다.

## 참고문헌

### 1. 사료

『看羊錄』, 『亂中雜錄』, 『白沙先生文集』, 『瓶窩全書』, 『宣廟中興誌』, 『宣祖實錄』, 『月峯海上錄』, 『燃藜室記述』, 『靑莊館全書』, 『鶴峯先生文集』, 『海行摠載』

위 사료들은 여러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들을 이용하였다. 내역을 밝히자면 우선 『宣祖實錄』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瓶窩全書』와 『宣廟中興誌』는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http://>

yoksa.aks.ac.kr/main.jsp)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나머지 사료는 한국고전종합DB 웹사이트 (<https://db.itkc.or.kr/>)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2. 논저

김명엽, 「『丁酉避乱記』를 통해서 본 鄭好仁의 被虜生活과 日本認識」,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김미선, 「임진왜란기 해외체험 포로실기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민덕기, 「임진왜란에 납치된 조선인과 정보의 교류」, 『史学研究』 74호, 2004.6

박희병, 「조선의 일본학 성립 : 원증거와 이덕무」, 『한국문화』 61호, 2013.3

박민철, 「瓶窩 李衡祥의 著述과 家藏 文献의 書誌的 分析」,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이준희, 「『燃藜室記述』의 分析的 考察 : 이공익의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7권 3호, 1981.9

이중협, 「임진전쟁 초기 모리 테루모토 군의 동향과 점령지 지배」,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정장식, 「英祖代 通信使와 李德懋의 日本 研究」, 『日本文化學報』 제23권, 2004.11

하우봉, 「李德懋의 『蜻蛉國志』에 대하여」, 『全北史學』 제9집, 1985.12

# ポストコロナ時代を見据えた定住外国人の 日本語教育と生活適応の課題

－ 日本語教師養成講座のカリキュラムを通じて－

山口 勝弘(東海大学付属浦安高等学校)

지정토론 : 장유리(경북대학교)

キーワード：養成講座カリキュラム、教師研修、日本語学習者からの学び、現場性・ライブ感

## 1. 現況と問題提起

現在、日本では慢性的に日本語教師が不足している。各教育機関からは日本語教育専門の求人サイトばかりでなく一般の求人サイトでも新規更新された「日本語教師募集」の文字が消えることはない。

文化庁も、教師不足の現状については把握しており、学習者の多様化と変容に伴い、これまでの進学予備教育が主流であった教育内容の見直し、指導者への研修の充実などを唱えている。また日本語教育機関の教員採用基準については、財団法人日本語教育振興協会「日本語教育施設における教員養成の教育課程に関する調査研究委員会」が平成12年度文化庁委嘱事業「日本語教育施設における日本語教員養成について」の中でも、すでに授業実践力、社会経験、指導力向上のための教員研修と、現状の多様化への対応のための採用資格条件の見直しについても指摘<sup>1)</sup>しており、平成30年には「平成12年教育内容」に対してさらに検討が加えられた「日本語人材教育の養成・研修の在り方について」の報告がなされた。教員養成講座のカリキュラムと教師研修プログラムは、こうした文化庁の示す指針に従って組まれている。

---

1) ヒューマンアカデミー日本語教師養成講座 非常勤講

日本語学校における日本語教員などの養成・研修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文化庁)

日本語教師養成講座カリキュラム一例<sup>2)</sup>

«理論学習科目» 日本語教育学入門 日本語教授法 社会・文化・地域 / 言語と社会 言語の構造 言語と心理 音声・音韻 / 文字・表記 語用論的規範 日本語教育学総論	«実践力養成科目» 形態・語彙・意味 日本語教育文法 評価法とICT 日本語教育実践1(留学生) 日本語教育実践2 (生活者・ビジネスパーソン等) 日本語教育実践3 (技能別指導)
---	--

発表者は平成元年に公立中学校<sup>3)</sup>に着任以来、30余年にわたって日本語教育に携わってきた。日本語教育能力検定試験が開始され、種類も僅かな日本語教材しかなかった時代を振り返ると、この長い期間に日本語教育は確かに進化を遂げている事を肌で感じる。現在、日本語教師養成課程の講義(教育実習等、日本語教育指導者への育成教育)を担当しているが、その経験を通じて、日本語教師になりたい人が多い状況にあって、日本語教師が不足しているという報告や課題の指摘に留まる事無く、この小稿でいくつかの方向性と具体的方策の提示を試みたい。

\* こうして日本語学習者、日本語教育指導者に対する様々な試行錯誤が深化し、2019年4月の改正入管法施行直後に全世界が未曾有のコロナ禍に見舞われ、日本語学習者の入国が停止さ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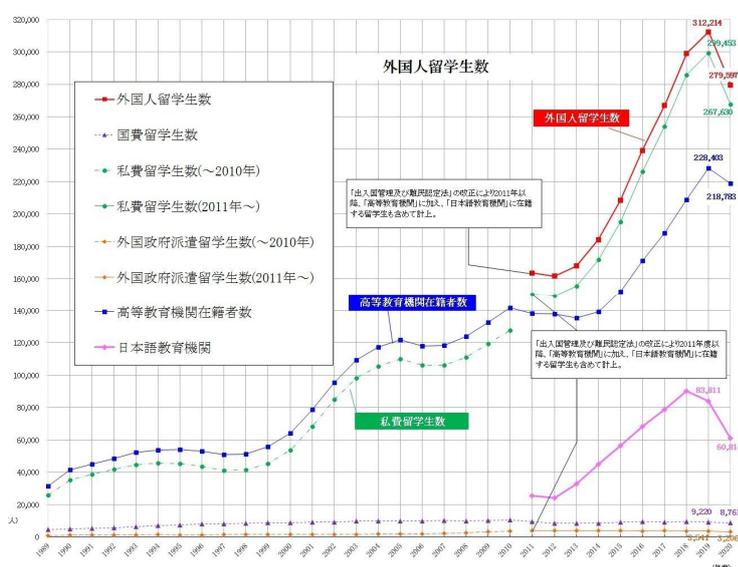
## 2. 日本国内における定住外国人と日本語学習者

日本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のうち、その大半を占めるのは日本語学校である。学習者の目的は日本での進学や就職を目指している留学生向けの学習内容が展開されており、日本語能力試験(JLPT) や日本留学試験(EJU) の合格レベルが、進学先の推薦や入学先の決定を大きく左右している。これらの試験は一般に「日本語ができる」指標としても取り扱われるので、日本語学校をはじめとする日本語教育機関では「生活適応」に必要な日本語学習の内容はごく限られたものとなっている。日本語学校の授業は2部制になっている事は、生活者として日本

2) ヒューマンアカデミー日本語教師養成講座

3) 文部科学省中国帰国子女教育研究協力校

に滞在している日本語学習者にとっても便利なシステムであるが、学習内容は日本語能力試験に合格するための内容が中心となっているので、今すぐに生活に必要な日本語表現やサバイバル教育としての日本語学習の内容が後回しになる事は、現場でも指摘されている。だが、教育課程や学習時間数については、文化庁と入管局による告示基準に則って管理されている為に、日本語教育機関が独自に「生活適応サポート」に関する内容を授業内に取り入れる事は実質的には不可能であり、現在、在日外国人が最も必要としている日本の社会システムや、暮らしている地域の自治体のルールなどについて学習する事はできない。日本の留学生数についても見ておきたい。令和2年5月1日現在の日本の留学生数は 279,597人(前年比32,617人(10.4%)減となっている。日本語教育の内容は、日本で高等教育機関に進学する為の留学生向けの日本語教育が実施されており、ここでも「生活適応」といったサバイバル教育は、二の次となる。(下図参照)



## 1. 日本語教師養成課程の方向性

日本語教師となる為の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はよく知られている。①大学の主専攻或いは副専攻で規定の単位を取得した修了者という項目は現在、実質的に削除され、②日本語教師養成講座420時間修了者よりも③日本語教育能力検定試験合格者について重視する方向である。それは昨今、日本語教師の国家資格化に関する議論から、所謂「公認日本語教師」と名付けられた資格へと移行準備に入っている。いずれにしても民間資格から国家資格へと格上げされる場合には「筆記試験での合格」という事が必須となる為に、日本語教師を目指す者は机に向かう時間が長くなる事は予想できよう。今回テーマとしている在日外国人の生活適応

についての現場性、生活サポートとは離れてゆかざるを得ない。文化庁は「質の向上を図る」為に「教育実習の充実化」を謳っているが現在、日本語教師養成講座で実施されている「教育実習」は、①日本語学校における外国人留学生に対する日本語力の向上、②クラス授業を成立させる事ができるか。③使用テキストと指導書、教授要目に沿って授業が進められるか。の三点が重視されているわけである。長年、多くの日本語学校で使用されている『みんなの日本語』(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を使用して、いかに教科書の教授要目から逸脱せずに授業が進められるかが評価の対象となる。国家資格化とは、「明確な評価基準」が必要となる為に、これ以上明確な方法が見つからないという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のである。

今現在、困難を抱えている在日外国人に対する個々のケアやサポートについては、やはりそれぞれの現場状況から日本語教師自身の判断に委ねられている事も否定できない。資格取得の為に内容が中心となる為に、在日外国人が現在抱えている課題に対峙する事は質的にも時間的にも困難は多い。

生活適応指導は個々の対応が必要である。現場の教師が課題解決が図れるようになるまでには、まだ相当な時間がかかることが予想されている。それは日本語学校が目指しているものは、留学生の進路保障に必要なJLPT(日本語能力試験) に合格するための内容を中心として授業が進められ、また日本語教師養成講座が受講生に対して教授する内容も、日本語学習が必要な外国人への即時対応力よりも、日本語教育能力検定試験に合格するためのカリキュラムを中心とした内容に重きが置かれているのである。

#### 4. 外国人生活者が求めるもの

現在、在日外国人の数は、昨年令和2年の統計で288万人を越えており、新型コロナによって前年度よりやや減少したものの、これは日本全体の人口比の約2%に相当する。一方で韓国の在日外国人174万人とう数は韓国の全人口比率に占める外国人の数は3.4%に上り、日本を上回っている。これは嘗てのように、日本は物価の高い国であり、韓国は日本よりもやや安い国といったような以前の状況からは説明がつかない現状を示している。結論を急ぐわけではないが、現在の韓国が外国人にとっては、日本よりもルールがわかりやすい社会運営がなされているからであろう。

- ・ 韓国の地下鉄での色と番号による便利さと、日本の地下鉄車内放送の難解さ不便さ。
- ・ 韓国のスマホの便利さと、日本のスマホの不便さ(目的に到達するまでの速度と手続きの手順)
- ・ 各証明書取得時における簡素化の実現や予防接種の手続き。

と韓日インフラ比較による利便性の違いは枚挙に遑が無い。

総じて言えることは「不便で時間がかかる割には料金が安い物事」よりも「便利で速く目的を達成できる価格バランス」の違いは、生活者である外国人にとってはリアルな課題であり、非言語によって物事が進み解決が図れる国に対して信頼を感じるのは当然である。

韓国・日本共に10年前より増加傾向にあったベトナム人や最近増加傾向にある中央アジア諸国の人々にとっては日本よりも韓国のほうが「暮らしやすい国」であると言ってもいいだろう。

また一方で、日本では比較的長期に滞在する外国人の中でも、一部地域に集住する日系人をはじめとする在日外国人が直面する問題が顕在化している。例えば、雇用の不安定、雇用条件の不平等、社会保険の未加入問題、義務教育年限の外国人の子どもの不就学問題、青少年犯罪を含む犯罪の頻発等である。このような実態を受けて政府関係当局も様々な対策をとっているが、政府部内の様々な省庁にまたがるため、日本政府は一層深い戦略に根ざした省庁横断的な対策をとることが必要となっている。こうして日本が近隣の東アジア諸国と比して人口比に対する外国人の数が少ない一因としては「暮らしにくさ」がある事は否めない。

日本語教育の拡充は30年前とは比べ物にならないほど大きな進化を遂げているにも関わらず「外国人に対するサポート(暮らしやすさ)=日本語教育の充実」といった旧来の価値観に偏重した結果、「生活適応に必要な要素」が置き去りにされてしまった事は否めない。

## 5. 小結

冒頭1で紹介した如く、この30余年を通じて検討が加えられてきた日本語教員養成課程のカリキュラムに無駄な内容は無い。また現在の教育課程に挙げられている個々の内容についても、今後も更なる深化が期待できる。ただ2、3、4で指摘したように、システムや方向性の問題で、留学生以外の日本で生活する外国人が求める課題解決には時間がかかる事は予想できる。新型コロナの感染拡大は、日本語学校ばかりでなく社会全体が時差通勤、直接接触を避ける為の現場人員の削減を迫られる中で、レテワーク、オンライン授業へと移行するしかなかったのだが、教師養成講座の教育課程は、長い歳月をかけて築き上げられ、その一定の成果が保たれているわけであるから、「内容」を見直すのではなく、まず「方法」の変更(やり方)について熟考し、実践可能策を模索してゆくことが今、最も重要だと考えている。

例えば4で上げたように教師養成講座の項目には無い「(韓国人の)日本語学習者から学ぶ」事の具現化として、モニター画面上に映す事は、やり方と工夫によってはオンラインも現場であるというライブ感覚として、現地の臨場感を伝える事は充分可能な方策であると考えてもよいだろう。

\* この稿を提出する直前の2021年11月29日。南アで発生した変異株オミクロンの感染防止策

として日本への入国停止措置が発令された。

## 参考文献資料

- 山口勝弘「中国帰国生徒への日本語教育－取り出し授業の問題点と介入授業の可能性－」(日本語教育学世界大会 第7回日本語教育国際研究大会/釜山外国語大学校2008)
- 山口勝弘「中国残留邦人の生活支援について」(2009東亜細亜日本学会/世宗大学校2009)
- 山口勝弘「日本文化理解の為のトピック学習の研究」(東北アジア文化学会/釜慶大学校2011)
- 山口勝弘「日本の多文化共生と教育政策」(日本語文学会/大邱カトリック大学校2012)
- 法務省入国管理局「新たな外国人材の受入れに関する在留資格「特定技能」の創設について」(2019)
- 閣議決定「特定技能の在留資格に係る制度の運用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平成30年12月25日
- 日本語教育振興協会「日本語教育機関の運営に関する基準」(文化庁)
- 日本語教育機関の教員の概要(文化庁)
- 平成12年度文化庁委嘱事業「日本語教育施設における日本語教員養成について」
- 平成18年度における日本語教育機関実習生受入れ等の現状に関する調査結果(文化庁)

### 〈WEB資料〉

- 日本語学校における日本語教員などの養成・研修の現状と課題について(文化庁)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nihongo\\_kyoin/02/shiryo\\_3.html](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kondankaito/nihongo_kyoin/02/shiryo_3.html)
- 公益財団法人国際研修協力機構(JITCO) HP「外国人技能実習制度とは」〈<https://www.jitco.or.jp/ja/regulation/index.html>〉
- 法務省・厚生労働省・経済産業省「高度外国人材の受入れ・就労状況」未来投資会議構造改革徹底推進会合「企業関連制度・産業構造改革・イノベーション」

## [일본어문학] 제96집(2022년 2월 28일 발행) 투고논문 모집안내

- 1) 투고마감 : 2022년 1월 10일(월)
- 2) 논문 작성요령 : 학회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 참조  
(<http://trijapan.com/>)
- 3) 논문 제출처 : 일본어문학회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  
(<http://trijapan.com/>)
- 4) 논문 심사료 : 6만원(투고 시 송금)
- 5) 논문 게재료 : 일반논문 10만원(심사 후 게재확정 시 송금)  
연구비 수혜논문 20만원(심사 후 게재확정 시 송금)

## 2021/2022년도 이사회비 및 회원 연회비 납부 당부

2021년도 이사회비 및 연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이사님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의 입금계좌번호도 동일함)

1. 입회비 10,000원
2. 개인회원 연회비 30,000원
3. 이사회비 : 50,000원

우체국 : 700203-01-003552      일본어문학회  
대우은행(가상계좌) : 010-9444-6161      일본어문학회